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0 시작에 앞서

대상별 활용 방법

문제의 정답을 어떻게든 정하신 후에 답지를 보세요. 정답의 근거까지 스스로 설명해보신 후에 해설을 보셔야 남길 게 생깁니다. 풀 어 보지도 않고, 고민도 안 해보고, 스스로에게 설명도 못하면서, 냅다 해설부터 보면서 '음~ 이게 맞지~ 고려치 고려치 나도 이렇게 생각했었어~' 이러면 남는 게 없습니다. **실전과 같이 맞히고 틀려가면서 본인에게 남겨야만, 비로소 내 것이 되어 실력이 길러집니다.**

중학생·고1

해당 자료로 본인이 고등 국어 '상위권'에 들 수 있는지 판단 가능합니다. 50% 이상의 정답률을 보이고, 정답 근거를 대략적으로라도 '설명'해낸다면, 고등학교 내신·모의고사에서 상위권을 목표할 수 있습니다. 풀었는데 거의 다 틀린다거나, 해설이 도대체가 뭘 말인지 모르겠고, 나오는 개념어조차도 생소하다면, 국어 공부량을 늘립시다.

고2

이 자료로 본인이 그간 국어 공부를 열심히, 꾸준히, 꼼꼼히, 잘, 해왔는지 점검 가능합니다. 100%에 가까운 정답률을 보이고, 이유까지도 얼추 설명해낸다면 당신은 상위권일 것입니다. 하지만, 개념어가 부족하여 문제를 틀린다든지, 주관식으로 생각해 보는 게 힘들고 어색하다든지, 해설지의 좋은 독해·풀이 습관이 잘 안된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어 학습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고3·N수

해당 자료로 국어 기초개념 및 기초습관이 잘 잡혀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100%에 가까운 정답률을 보이고, 이유까지도 막힘없이 설명해낼 수 있다면 당신은 수능에서 상위권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간간이 틀리는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설명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해설을 토대로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약점들이 수능 당일 당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므로, 아니 매우 높은 확률로, 아니 반드시 발목을 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겸손할 수 있도록, 늘 긴장하고 자극받을 수 있도록, 혹은 내가 잘 해오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93 비문학

[지문]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사고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유추이다. 유추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성질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기초하여 미루어 짐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학문 또는 예술 활동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행하고 있는 사고법이다.

유추는 '알고자 하는 특성의 확정 - 알고 있는 대상과의 비교 - 결론 내리기'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동물원에 가서 '백조'를 처음 본 어린아이가 그것이 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자. 이 경우 '알고자하는 대상'과 그 '알고자 하는 특성'을 확정하면 '백조가 날 수 있는가?'가 된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비둘기'를 떠올리고는 백조와 비둘기 사이에 '깃털이 있다', '다리가 둘이다', '날개가 있다' 등의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비교이다. 그 다음에 '비둘기는 난다'는 특성을 다시 확인한 후 '백조가 날 것이다'고 결론을 내리면 유추가 끝난다.

많은 논리학자들은 유추가 판단을 그르치게 한다고 폄하한다. 유추를 통해 알아낸 것이 옳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위의 경우 '백조가 난다'는 것은 옳다.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타조'에 대해 '타조가 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사실에 어긋난다. 이는 공통점이 가장 많은 대상을 비교 대상으로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추를 통해 알아낸 것은 옳을 가능성이 있다고는 할 수 있어도 틀림없다고는 할 수 없다.

결국 유추를 통해 옳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범위 좁히기'의 과정을 통해 비교할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만약 어린아이가 수많은 새 중에서 비둘기 말고, 타조와 더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 예를 들면 '몸통에 비해 날개 크기가 작다'는 공통점을 하나 더 갖고 있는 '닭'을 가지고 유추를 했다면 '타조는 날지 못할 것이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옳지 않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추는 필요하다.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알고 태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알아내지는 못한다. 그런데도 인간이 많은 지식을 갖게 된 것은 유추와 같은 사고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

1. 윗글은 유추의 활용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그 유형을 소개하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2. 유추를 통해 옳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정답 : ()

※ 2014년 고1 3월 31 ~ 33번 비문학 지문 참조

#93 정답 및 해설

[지문]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사고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유추이다. 유추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성질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기초하여 미루어 짐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학문 또는 예술 활동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행하고 있는 사고법이다.

유추는 '알고자 하는 특성의 확정-알고 있는 대상과의 비교-결론 내리기'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동물원에 가서 '백조'를 처음 본 어린아이가 그것이 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자. 이 경우 '알고자하는 대상'과 그 '알고자 하는 특성'을 확정하면 '백조가 날 수 있는가?'가 된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비둘기'를 떠올리고는 백조와 비둘기 사이에 '깃털이 있다', '다리가 둘이다', '날개가 있다' 등의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비교이다. 그 다음에 '비둘기는 난다'는 특성을 다시 확인한 후 '백조가 날 것이다'고 결론을 내리면 유추가 끝난다.

많은 논리학자들은 유추가 판단을 그르치게 한다고 폄하한다. 유추를 통해 알아낸 것이 옳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위의 경우 '백조가 난다'는 것은 옳다.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타조'에 대해 '타조가 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사실에 어긋난다. 이는 공통점이 가장 많은 대상을 비교 대상으로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추를 통해 알아낸 것은 옳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어도 틀림없다고는 할 수 없다.

결국 유추를 통해 옳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범위 좁히기'의 과정을 통해 비교할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만약 어린아이가 수많은 새 중에서 비둘기 말고, 타조와 더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 예를 들면 '몸통에 비해 날개 크기가 작다'는 공통점을 하나 더 갖고 있는 '닭'을 가지고 유추를 했다면 '타조는 날지 못할 것이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옳지 않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추는 필요하다.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알고 태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알아내지는 못한다. 그런데도 인간이 많은 지식을 갖게 된 것은 유추와 같은 사고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독해]

- 비슷한 걸로 미루어 짐작하는게 유추
[좋은 독해 습관 : 나만의 표현으로 개념 혹은 문단 정리]
- 확정, 비교, 결론
- 예시 바로 주네.
- '날 수 있는가?' = '특성 확정'
[좋은 독해 습관 : 지문-지문 동어반복]
- 공통점 = 알고 있는 대상과의 비교
[좋은 독해 습관 : 지문-지문 동어반복]
- 결론 내리기 **[좋은 독해 습관 : 지문-지문 동어반복]**
- 유추의 단점? **[좋은 독해 습관 : 문단 전개 예상해보며 읽기]**
- '타조가 공통점이 가장 많지는 않아서' 이게 핵심이네
[좋은 독해 습관 : 문단 핵심 정리해보며 읽기]
- 가능성 vs 틀림없다. 절대적 vs 상대적.
[좋은 독해 습관 :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구분하기]
- 범위 좁히기 사용 -> 가능성 높임. 비례 관계네.
[좋은 독해 습관 : 인과·상관·비례 관계 등 나오면 반드시 정리]
- 더 많은 공통점, 앞에 문단 공통점이 가장 많지 않아서 틀렸으니 더 많은 공통점 찾자는 것이 핵심.
[좋은 독해 습관 : 문단 핵심 정리해보며 읽기]
- 한 번에 모든 걸 알긴 힘드나, 유추로 많은 지식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유추 단점 있어도 필요함
[좋은 독해 습관 : 문단 핵심 정리해보며 읽기]

[정답 및 해설]

1. 거짓

- 유추의 활용 사례 분석(선택지) = 2문단 백조 나는지 유추하는 과정(지문) 자세히 나와 있네요.

[좋은 풀이 습관 : 선택지 표현을 보고 지문 내용을 떠올려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 그런데 그 유형을 소개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특히, '그'라는 지시관형사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유추'로 바꾸어서 읽히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습관적 동어반복은 매우 좋은 독해 습관입니다. '그 유형'이라고 읽기보다는, '유추의 유형'이라고 읽으면, 틀린 게 더 확실히 와 닿을 겁니다. 좋은 독해 습관, 좋은 풀이 습관이 20%의 학생들이 실수하는 진술을 나만큼은 실수하지 않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좋은 풀이 습관 : 사소한 것들도 자연스럽게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읽어보기]

2. 범위 좁히기, 즉 공통점이 더 많은 대상을 찾아, 공통점이 가장 많은 대상과 비교하기

- 4문단에 '범위 좁히기'의 과정을 통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렇다고 '범위 좁히기'만 특 답으로 적어 놓으면 감점입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쓰셔야 합니다.

- 뒤에 나옵니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유추를 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쓰면 만점입니다.

+ 이에 더해 3문단에 공통점이 가장 많은 대상을 비교 대상으로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추가 판단을 그르친다는 내용을 떠올려서 그 반대를 생각해 보았다면 더 좋겠네요. '그럼 공통점이 가장 많은 대상을 비교 대상으로 선택한다면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네'라는 생각까지 적어냈다면 아주 훌륭한 생각이겠죠. [좋은 독해 습관 : 반대적 사고]

#94 문학

[보기]

이 시의 화자는 잠을 이루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잠을 이겨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지문]

잠아 잠아 짙은 잠아 이 내 눈에 쌓인 잠아
염치불구 이 내 잠아 검치두덕* 이 내 잠아
어제 간밤 오던 잠이 오늘 아침 다시 오네
잠아 잠아 무삼 잠고 가라가라 멀리 가라
세상 사람 무수한데 구태 너는 간 데 없어
원치 않는 이 내 눈에 이렇듯이 자심하뇨
주야에 한가하여 월명동창 혼자 앉아
삼사경 깊은 **밤**을 헛되이 보내면서
잠 못 들어 한하는데 그런 사람 있건마는
무상불청* **원망 소리** 올 때마다 듣난고니
석반을 거두치고 황혼이 되듯마듯
낮에 못한 남은 일을 밤에 하려 마음먹고
언하당* 황혼이라 섬섬옥수 바삐 들어
등잔 앞에 고개 숙여 실 한 바람 불어 내어
더문더문 질긔 **바늘** 두엇 뜸 뜨듯마듯
난데없는 이 내 잠이 소리 없이 달려드네
눈썹 속에 숨었는가 눈 알로 솟아온가
이 눈 저 눈 왕래하며 무삼 요술 피우는고
맑고 맑은 이 내 눈이 절로절로 희미하다

- 작자 미상, 「잠노래」

- * 검치두덕 : 욕심 언덕.
- * 무상불청 : 청하지 않은.
- * 언하당 : 말을 마치자마자.

[문제] 진위판단

1. '밤'은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의 처지를 한탄하는 시간이다.
정답 : (참 / 거짓)
2. '원망 소리'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정답 : (참 / 거짓)
3. '바늘'은 삶을 살아가며 느끼는 화자의 애환이 담겨 있다.
정답 : (참 / 거짓)

※ 2015년 고1 3월 35 ~ 37번 문학 지문 참조

#94 정답 및 해설

[보기]

이 시의 화자는 잠을 이루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잠을 이겨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지문]

잠아 잠아 짙은 잠아 이 내 눈에 쌓인 잠아

염치불구 이 내 잠아 검치두덕* 이 내 잠아

어제 간밤 오던 잠이 오늘 아침 다시 오네

잠아 잠아 무삼 잠고 가라가라 멀리 가라

세상 사람 무수한데 구태 너는 간 데 없어

원치 않는 이 내 눈에 이렇듯이 자심하뇨

주야에 한가하여 월명동창 혼자 앉아

삼사경 깊은 **밤**을 헛되이 보내면서

잠 못 들어 한하는데 그런 사람 있건마는

무상불청* **원망 소리** 올 때마다 듣난고니

석반을 거두치고 황혼이 되듯마듯

낮에 못한 남은 일을 밤에 하려 마음먹고

언하당* 황혼이라 섬섬옥수 바빠 들어

등잔 앞에 고개 숙여 실 한 바람 불어 내어

더문더문 질긔 **바늘** 두엇 뜸 뜨듯마듯

난데없는 이 내 잠이 소리 없이 달려드네

눈썹 속에 숨었는가 눈 알로 솟아온가

이 눈 저 눈 왕래하며 무삼 요술 피우는고

맑고 맑은 이 내 눈이 절로절로 희미하다

[현장독해]

- 잠을 이겨 내기 어려운 화자의 모습. 그니까 졸려 죽는 화자 모습 시에서 찾아보자

[좋은 독해 습관 : 보기에서 지문과 연결할 키워드 파악]

- 눈에 잠이 쌓였다. 눈꺼풀이 무겁다는 뜻인 듯.

- '검치두덕'이 욕심언덕이라니. 잠이 염치도 없고 욕심만 많다는 걸 보니 화자는 잠 안 좋아하네. [좋은 독해 습관 : *표시된 단어는 어떻게든 해석에 반영하기]

- 잠에게 좀 멀리 가라고 하는 화자. 잠을 사람처럼 표현하며 잠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좋은 독해 습관 : 자주 출제된 출제요소 지문 독해서 떠올리기]

- '자심하뇨' 심하다는 뜻이려나? 세상사람 많은데, 개네는 밤 다른데 안가고 널 안 원하는 나한테만 오냐 이런 의미인 듯? [좋은 독해 습관 : 모르는 단어 유사표현 및 상황으로 의미추론]

- 잠자고 싶어도 잠 못들어서 한스러워하는 사람도 많은데, 청하지도 않은 원망 소리를 왜 와서 듣는거니? 즉 내가 잠을 원망하는거네. [좋은 독해 습관 : 밑줄의 의미 생각해보고 넘어가기]

- 낮에 못한 일 밤에 하려고 했는데 또 잠 오는 상황. 달려드나니 의인법도 있고. '바늘'은 그냥 일 하는 도구정도인데? 왜 밑줄이지? 일단 더 생각 만나니 넘어가자

[좋은 독해 습관 : 밑줄의 의미 생각해보고 잘 안되면 넘어가기]

- 졸리다

[정답 및 해설]

1. 거짓

2. 참

- 현장 독해할 때, 즉 시험 현장에서 지문을 읽을 때 아래와 같은 현대어 풀이가 막힘없이 되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삼사경 깊은 **밤**을 헛되이 보내면서 / 잠 못 들어 한하는데 그런 사람 있건마는 / 무상불청* **원망 소리** 올 때마다 듣난고니
- = 밤 11시 ~ 새벽 3시 늦은 밤을 헛되이 보내면서 / 잠 못 드는 걸 한탄하는 그런 사람도 (세상에) 있는데 / (너는) 청하지도 않은 원망 소리를 올 때마다 듣는 것이냐(직역)
- = 나는 잠 너보고 오라고 요청하지도 않았고, 나와 반대로 잠을 자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가면 될 일이지 왜 나한테 오냐(의역)
- + 삼경은 밤 11시~1시, 사경은 새벽 1시~3시를 의미합니다. 고전시가 빈출 어휘 암기를 바탕으로 한 풍부한 어휘력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면 더욱 좋겠죠.

-> 이렇게 현대어 풀이 및 해석이 되고, 상황 파악이 되면, **진술 1번의 '밤'은 화자의 과거나 현재 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와 달리 밤을 헛되이 쓰거나 오히려 잠을 자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화자의 현재 과거 대비가 아니라, 잠이 오는 화자와 달리 잠이 안 오는 다른 사람들의 처지 대비라는 거죠. 1번 거짓.

-> **진술 2번의 '원망 소리' 역시 화자가 잠에게 하는 원망소리죠.** 선택지의 대상은 '잠'이겠고, 화자의 감정은 '원망'이며, 이걸 지문에서 대놓고 왜 나한테 원망 소리 듣냐며 얘기하고 있으니 '직접적으로 드러나'있습니다. 2번 참.

+ 결국 1번 2번 진술의 참·거짓을 진위판단하기 위해서는, **막힘없는 현대어 풀이를 통한 상황판단이 핵심**입니다. 영어 지문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영어 문장의 의미가 한국어로 와 닿지 않으면 (원어만 수준 제외)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문의 상황을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고전시가의 표현들이 머릿속에서 현대어로 막힘없이 바뀌어 술술 읽힐 때까지 같은 시를 반복해서 해석 연습해보세요.** 현대어 풀이를 보지 않고 백지테스트 보듯, 오로지 고전시가 지문만 놓고 현대어 풀이를 해보려고 시도해 보시고, 잘 안 되거나 애매한 부분은 표시해두고 다시 현대어 풀이 보면서 이해하고 외워보고 하는 걸 반복해봅시다. 이렇게 몇 십, 아니 몇 작품만 해도 고전시가 지문 해석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3. 참(?)

- 저녁 밥상(석반)을 치운 후 남은 일을 하기 위해 등잔불 아래서 바늘을 잡는 상황이므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화자의 애환을 형상화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게 해설지 원문입니다.
- 위와 같은 해설이 지문 읽으면서 바로 떠올랐다고 하는 건 이상적인 풀이로 보이구요. 보자마자 이런 해석이 바로 떠오르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지문 읽는 상황에서는 '화자가 밤에도 일하는 바쁜 상황인 것 같다' 정도로 해석이 되고, 그러니 '뭘 삶의 애환이라고 볼 수도 있으려나?' 정도로 생각해서 참으로 결론짓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풀이겠네요. 다만, 위에 현장독해에서 보시다시피 저조차도 이렇게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래 사진을 보시죠.

★ 가장 확실한 정답을 단 1개만 찾으면 그만인 게 객관식이다 ★

3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화자의 내적 심리가 드러난 것이다.
- ㉡ ㉡: 부정적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 ㉢ ㉢: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의 처지를 한탄하는 시간이다.
- ㉣ ㉣: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 ㉤ ㉤: 삶을 살아가며 느끼는 화자의 애환이 담겨 있다.

- 사진에서 볼 수 있듯 사실 위 1번 2번 3번 문제는 사진의 ㉢㉣㉤번 선택지입니다. 이 중 틀린 진술(=적절하지 않은 진술) 단 한 개를 찾아내면 되는 문제구요. 즉 문제 3번(=선택지 ㉤번)이 '참'인 이유는, 아래 문제 1번(=선택지 ㉢번)이 가장 확실한 '거짓'이기 때문인 면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정답이 나왔으니 나머지 4개 선택지가 애매할 순 있어도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 풀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번을 20%의 학생들이 선택했는데요. 이 학생들은 자신이 ㉤번 선택지를 왜 틀리다고 생각했는지를 반성하고 고민하실 게 아니라, **왜 1번 문제, 즉 ㉢번 선택지를 틀리다고 생각 못했는지를 오답하셔야 제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번 선택지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뒤에 선택지는 보지도 않고 넘어가서 시간까지 아낀 학생들이 이 문제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1등급·1% 학생들입니다.** ㉤번까지 보고 ㉤번 찍고 틀린 학생들이 이 문제에서 압도적으로 진 학생들이구요. 즉, '3번 문제 해설처럼 풀기 가능? 불가능?' 이걸로 화내고 싸우지 마시고, 1번2번 문제 제대로 풀었는지,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가는 국어

#95 문법

[지문]

1.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
2. **꽃이며** 바람이며 얼마나 이쁘니?
3. 차가 막혔기 **때문에** 늦었다는 건 너답지 못해.
4. **바쁘** 살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생기게 마련이다.
5. 이제**부터** 잘 하자.

[문제] 쪼개서 원형파악

- 밑줄 친 단어들의 **품사**는 무엇인가요? 의미와 기능까지 최대한 디테일하게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2023학년도 수능 언어와 매체 영역의 문법 출제경향을 생각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디테일한 '쪼개서 원형파악'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제요소 관련 문법 용어들이 막힘없이 떠오를 정도로 암기하고, 문법 개념어를 활용한 쪼개서 원형파악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문학' '문학' '매체' 영역에서는 다를 수 있으나, '문법' 영역에서만만큼은 사고력뿐 아니라 '암기력'과 '분해력'까지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정확 하면서도 '막힘없이' 풀 수 있습니다. 문법 영역을 다 맞히는 건 당연한 것이나, 막힘없이 다 맞혀야만 고난도 비문학 영역에서 '사고력'을 발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95 정답 및 해설

[정답]

1.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

- **관형사** : 이미 지난 동안이 긴 (나무)

- 명사 체언 '시간' 앞에서 시간을 꾸미고 있으므로 문장 성분은 '관형어'. '오랜' 자체가 관형사여서 틀렸던 적이 있으므로 품사는 **관형사**. (숲?이라기 보다는 암기)

* 부사 '오래'에 관형사 파생 접미사 '-ㄴ'이 붙어 관형사 '오랜'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틀립니다. 관형사 파생 접미사 '-ㄴ'같은 건 없거든요. 더 나아가 표준국어대사전에 '-ㄴ'이 접미사로 쓰인 경우는 없습니다. '-ㄴ'은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많이 쓰입니다.

* 형용사 '오래다'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ㄴ'이 붙어 형용사의 관형사형 '오랜'이 되었으므로, '오랜'의 품사는 '형용사'라고 생각해도 틀립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오랜'을 검색하면 관형사로 나오거든요.

-> 결국 '오랜'이 관형사라는 것은 암기해놓는 것이 편합니다.

2. **꽃이며** 바람이며 얼마나 이쁘니?

- **접속조사** :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나무)

- 명사 '꽃' 뒤에 붙어 있으므로 일단 '조사'. 문장을 '꽃이 얼마나 이쁘니?' '바람이 얼마나 이쁘니?'로 쪼개도 말이 되고, '바람이며 꽃이며 얼마나 이쁘니?'로 둘의 위치를 바꾸어도 문장이 성립하니까, 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조사 (숲)

3. 차가 막혔기 **때문**에 늦었다는 건 너답지 못해.

- **의존명사** : (명사나 대명사, 어미 '-기', '-은', '-는', '-던' 뒤에 쓰여) 어떤 일의 원인이나 까닭 (나무)

- 뒤에 맥락상 원인의 의미고, 그러니까 앞말이 원인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부사격조사 '-에'가 뒤에 붙어있는 것이고, 그런데 '차가 막혔다'의 수식을 앞에서 받지 못하고 홀로 쓰일 수는 없으니까, '의존명사'네 (숲)

+ 안긴문장 '차가 막혔다'에 명사형 전성어미 '-기'가 붙어 명사절이 되었고, '명사절'이 의존명사 '때문'을 앞에서 꾸며주고 있으므로 '관형어 역할'로 쓰였다고 알아 두시면 됩니다.

4. **바쁘** 살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생기게 마련이다.

- **부사** : 일이 많거나 또는 서둘러서 하여야 할 일로 인하여 겨를이 없이 또는 몹시 급하게. (나무)

- 동사 '살다'를 앞에서 꾸며주고 있으므로 '부사' (숲)

+ 형용사 '바쁘다'에 (일부 부사, 형용사 어근 뒤에 붙어) 부사를 만드는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붙었고, '—탈락'이 일어나 부사 '바쁘'가 되어 사전에 등재되었습니다.

5. **이제부터** 잘 하자.

- **보조사** : (체언이나 부사어 또는 일부 어미 뒤에 붙어)부터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나무)

- '바로 이때'를 의미하는 명사 '이제' 뒤에 붙어 있으므로 조사인데, 'from, since'의 의미를 더해줌으로 보조사. 격조사나 접속조사 '부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숲)

[출제요소] 예외암기!

[출제요소] 숲과 나무. 단어 의미와 상황 맥락 둘 다 활용하여 '종합적 판단'을 통해 정답의 확신성을 높인다.

#96 화법

[지문] 다음은 '세마포르'에 대한 강연의 일부이다.

여러분, 과거에는 먼 곳까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어떤 시각 통신 수단을 사용했을까요? (청중의 대답을 들은 후 고개를 끄덕이며) 네, 그렇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봉화가 있었습니다. 봉화는 수 킬로미터 간격으로 세운 봉화대에 불을 붙여 메시지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긴 했지만, 특정한 몇 가지 메시지만 전달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난 시각 통신 수단이 바로 오늘 말씀 드릴 세마포르입니다. 세마포르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1792년에 프랑스에서 발명된 세마פור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먼 곳까지 전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각 통신 수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마פור는 어떤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을까요? (화면을 가리키며) 이 화면은 세마포르에 쓰인 탑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탑의 지붕에는 나무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이 기둥 꼭대기에는 선풍기 날개처럼 회전이 가능한 긴 널빤지가 하나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긴 널빤지 양끝에 각도 조절이 가능한 짧은 널빤지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 널빤지들의 각도를 각각 조절하면 여러 형태를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각각의 형태들이 로마자나 숫자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청중의 표정을 살피고)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네요. 자, 여기에 제시된 예를 같이 보시죠.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에 보이는 것은 각각 로마자 A와 숫자 7을 의미하는 형태입니다. 긴 널빤지가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 양쪽의 짧은 널빤지가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형태는 A이고요, 긴 널빤지와 짧은 널빤지 모두가 수평인 형태는 7입니다. 세마פור는 이러한 널빤지의 형태를 탑에서 탑으로 시간차를 두어 차례대로 전달해 나가는 방식을 통해 글자를 하나씩 전달하였습니다. 이 방식으로 (손가락 세 개를 펴며) 1분에 3개의 글자를 전달할 수 있었는데,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글자 100개를 전송하는데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산과 같은 고지대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시거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송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마פור는 유용한 시각 통신 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에서처럼 수 킬로미터 간격으로 500여 개에 이르는 송수신 탑을 세워 5,000 킬로미터에 달하는 곳까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는데요, 프랑스는 세마포르를 활용해 긴박한 상황을 단시간에 멀리까지 전파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 위 강연자의 말하기에 대한 진위판단

1.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의사 전달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2. 화제와 관련된 수치를 제시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3.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청중과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4. 다른 대상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화제의 특성을 밝히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96 정답 및 해설

[지문] 다음은 '세마포르'에 대한 강연의 일부이다.

여러분, 과거에는 먼 곳까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어떤 시각 통신 수단을 사용했을까요? (청중의 대답을 들은 후 고개를 끄덕이며) 네, 그렇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봉화가 있었습니다. 봉화는 수 킬로미터 간격으로 세운 봉화대에 불을 붙여 메시지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긴 했지만, 특정한 몇 가지 메시지만 전달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난 시각 통신 수단이 바로 오늘 말씀 드릴 세마포르입니다. 세마포르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1792년에 프랑스에서 발명된 세마פור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먼 곳까지 전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각 통신 수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마פור는 어떤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을까요? (화면을 가리키며) 이 화면은 세마포르에 쓰인 탑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탑의 지붕에는 나무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이 기둥 꼭대기에는 선풍기 날개처럼 회전이 가능한 긴 널빤지가 하나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긴 널빤지 양끝에 각도 조절이 가능한 짧은 널빤지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 널빤지들의 각도를 각각 조절하면 여러 형태를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각각의 형태들이 로마자나 숫자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청중의 표정을 살피고)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네요. 자, 여기에 제시된 예를 같이 보시죠.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에 보이는 것은 각각 로마자 A와 숫자 7을 의미하는 형태입니다. 긴 널빤지가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 양쪽의 짧은 널빤지가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형태는 A이고요, 긴 널빤지와 짧은 널빤지 모두가 수평인 형태는 7입니다. 세마פור는 이러한 널빤지의 형태를 탑에서 탑으로 시간차를 두어 차례대로 전달해 나가는 방식을 통해 글자를 하나씩 전달하였습니다. 이 방식으로 (손가락 세 개를 펴며) 1분에 3개의 글자를 전달할 수 있었는데,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글자 100개를 전송하는데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산과 같은 고지대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시거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송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마פור는 유용한 시각 통신 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에서처럼 수 킬로미터 간격으로 500여 개에 이르는 송수신 탑을 세워 5,000 킬로미터에 달하는 곳까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는데요, 프랑스는 세마포르를 활용해 긴박한 상황을 단시간에 멀리까지 전파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독해]

[좋은 독해 습관 : 작문 영역은 빈출 출제 요소를 '암기'해두고 지문 독해 시에 출제 요소를 떠올려가며 글 읽기]

- 질문을 통해 청중의 주의 환기
- 청중과 상호작용
-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표현효과 높임. 문제에 그림 있으면 확인.
- 봉화의 장점과 한계
- 질문을 통해 청중의 주의 환기. 키워드 세마포르.
- 세마포르 역할
- 질문을 통해 청중의 주의 환기. 자문자답.
- 시각자료 활용. 문제에 그림 있으면 확인.
- 형태를 달리 해서 로마자, 숫자 의미 표현
- 청중의 이해 정도, 특히 비언어적 표현 확인하며 강연 진행
- 예시로 부연 설명
- ~~개교생~~ 했겠네 하나씩아라나
- 비언어적 표현으로 표현효과 높임
- 안개 끼면 잘 안보인다는 듯?
[좋은 독해 습관 : 나만의 예시를 통해 지문 이해도 높이기]
- 시각자료 엄청 자주 쓰네
- 구체적인 수치 제시해서 표현효과 높임

[정답 및 해설] 1. 참, 2. 참, 3. 거짓, 4. 참

1.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의사 전달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참

- 비언어적 표현(선택지) = 손가락 세 개를 펴며(지문)

[좋은 독해 습관 : 선택지 표현과 의미·역할이 유사한 지문 표현 구체적으로 떠올려보기]

2. 화제와 관련된 수치를 제시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참

- 화제와 관련된 수치(선택지) = 1분에 3개, 200여 킬로미터 100개 1시간, 500개 5000킬로미터(지문)

[좋은 독해 습관 : 선택지 표현과 의미·역할이 유사한 지문 표현 구체적으로 떠올려보기]

3.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청중과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 : 거짓

-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했으므로 거짓.

+ 자기의 질문에 자기가 대답하는 자문자답이 있습니다.

+ 전체적으로는 매우 그럴듯해 보이고, 자주 봐서 친숙하기까지 한 진술 사이에 속 한 두 글자 틀린 표현을 넣어 단순사실판단으로 틀리게 만드는 출제 노하우 주의

4. 다른 대상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화제의 특성을 밝히고 있다. : 참

- 다른 대상(선택지) = 봉화(지문), 화제(선택지) = 세마포르(지문)

[좋은 독해 습관 : 선택지 표현과 의미·역할이 유사한 지문 표현 구체적으로 떠올려보기]

* 이 진술에서 '다른 대상'을 세마포르라고 생각하고, '화제'를 봉화라고 생각해서 푸셨다면 틀리신 겁니다. 본문 위에 '다음은 세마포르에 대한 강연의 일부'라고 했으므로 화제는 '세마포르'입니다. 지문과 문제 외에 다른 표현, 예를 들어 문학 작품의 제목이나 화법과 작문의 영역 소개, *표시된 어휘 풀이 안 읽거나 대충 읽는 안 좋은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수능 날 반드시 벌 받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든 한번은 벌 받습니다 명심하세요. 출제자들은 자신들이 애써 적어놓은 글을 대충 읽거나, 안 읽거나, 발췌만 해서 읽는 수험생들을 반드시 벌 주려고 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더라고요. 제목, 글감 소개, *표시 어휘 풀이 이런 것들은 썩이라도 한번은 읽읍시다. [좋은 독해 습관 : 출제자가 적어놓은 건 한번은 읽어보고 넘어간다]

★ 화법과 작문 영역 노하우 ★

1. 빈출되는 출제요소, 즉 질문으로 청중의 주의 환기, 청중과 상호작용, 시청각자료 활용.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구체적인 수치. 예시. 자문자답. 청중의 이해정도 점검. 신뢰도 있는 기관 인용. 이런 출제요소를 '읽기'해두세요. 지문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막힘 없이 떠오를 때까지 계속 연습해보세요.

2. 선택지에 나온 표현과 유사한 지문 표현을 구체적으로 떠올려보려고 시도해보고, 안되면 일단 다른 선택지로 넘어가서 해보시다가, 마지막으로 지문으로 돌아가서 찾아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지-지문 동어반복'입니다.

위의 2가지 좋은 독해 습관 및 좋은 풀이 습관을 계속 연습하여 의식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될 정도로 만들어 두세요. 그때부터는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시간 상 안하거나 적당히 넘어가도 되는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화법과 작문 영역 풀이 시간이 대폭 줄어들면서도 정답률을 유지하여, 남들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위 2가지조차 안했는데도 남들보다 획기적으로 풀이 속도가 빨라지고 다 맞히는 기적이 일어나기는 힘듭니다. 하루하루 차분히 단계를 밟아나가 남들이 쉽게 못 해내는 경지에 오르시기를 응원합니다.

#97 비문학

[지문]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탐색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이 현재 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로 인해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GPS는 어떻게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것일까?

GPS는 크게 GPS 위성과 GPS 수신기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지구를 도는 약 30개의 GPS 위성은 일정한 속력으로 정해진 궤도를 돌면서, 자신의 위치 정보 및 시각 정보를 담은 신호를 지구로 송신한다. 이 신호를 받은 수신기는 위성에서 신호를 보낸 시각과 자신이 신호를 받은 시각의 차이를 근거로, 위성 신호가 수신기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계산하여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위성이 보낸 신호는 빛의 속력으로 이동하므로, 신호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t)에 빛의 속도(c)를 곱하면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r)를 구할 수 있다. 이를 식으로 표시하면 ' $r = t \times c$ '이다.

그런데 GPS가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대성 이론을 고려해야 한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대상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대상에 미치는 중력이 약해질수록 시간은 빠르게 흐른다. 실제로 위성은 지구의 자전 속도보다 빠르게 지구 주변을 돌고 있기 때문에 지표면에 비해 시간이 느리게 흘러, 위성의 시간은 하루에 약 $7.2\mu s$ *씩 느려지게 된다. 또한 위성은 약 20,000 km 이상의 상공에 있기 때문에 중력이 지표면보다 약하게 작용해 지표면에 비해 시간이 하루에 약 $45.8\mu s$ 씩 빨라지게 된다. 그 결과 GPS 위성에 있는 원자시계의 시간은 지표면의 시간에 비해 매일 약 $38.6\mu s$ 씩 빨라진다. 이러한 차이는 하루에 약 11 km의 오차를 발생시킨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GPS는 위성에 탑재된 원자시계의 시간을 지표면의 시간과 일치하도록 조정하여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구하게 된다.

이렇게 계산된 거리는 수신기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변 측량법을 알아야 한다. 삼변 측량법은 세 기준점 A, B, C의 위치와, 각 기준점에서 대상 P까지의 거리를 이용하여 P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 μs (마이크로초) : 1초의 100만분의 1.

[문제]

1. GPS 위성은 약 20,000 km 이상의 상공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정해진 궤도를 돈다.

정답 : (참 / 거짓)

2. GPS 수신기는 GPS 위성에 보낸 신호를 바탕으로 자신의 위치 정보를 계산한다.

정답 : (참 / 거짓)

3. GPS 위성과 GPS 수신기 간의 거리를 빛의 속력으로 나누면 위성의 신호가 수신기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된다.

정답 : (참 / 거짓)

※ 2019년 고1 3월 34 ~ 38번 비문학 지문 참조

#97 정답 및 해설

[지문]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탐색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이 현재 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로 인해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GPS는 어떻게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것일까?

GPS는 크게 GPS 위성과 GPS 수신기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지구를 도는 약 30개의 GPS 위성은 일정한 속력으로 정해진 궤도를 돌면서, 자신의 위치 정보 및 시각 정보를 담은 신호를 지구로 송신한다. 이 신호를 받은 수신기는 위성에서 신호를 보낸 시각과 자신이 신호를 받은 시각의 차이를 근거로, 위성 신호가 수신기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계산하여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위성이 보낸 신호는 빛의 속력으로 이동하므로, 신호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t)에 빛의 속도(c)를 곱하면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r)를 구할 수 있다. 이를 식으로 표시하면 $r = t \times c$ 이다.

그런데 GPS가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대성 이론을 고려해야 한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대상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대상에 미치는 중력이 약해질수록 시간은 빠르게 흐른다. 실제로 위성은 지구의 자전 속도보다 빠르게 지구 주변을 돌고 있기 때문에 지표면에 비해 시간이 느리게 흘러, 위성의 시간은 하루에 약 $7.2\mu\text{s}$ 씩 느려지게 된다. 또한 위성은 약 20,000 km 이상의 상공에 있기 때문에 중력이 지표면보다 약하게 작용해 지표면에 비해 시간이 하루에 약 $45.8\mu\text{s}$ 씩 빨라지게 된다. 그 결과 GPS 위성에 있는 원자시계의 시간은 지표면의 시간에 비해 매일 약 $38.6\mu\text{s}$ 씩 빨라진다. 이러한 차이는 하루에 약 11 km의 오차를 발생시킨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GPS는 위성에 탑재된 원자시계의 시간을 지표면의 시간과 일치하도록 조정하여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구하게 된다.

이렇게 계산된 거리는 수신기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변 측량법을 알아야 한다. 삼변 측량법은 세 기준점 A, B, C의 위치와, 각 기준점에서 대상 P까지의 거리를 이용하여 P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 μs (마이크로초) : 1초의 100만분의 1.

[현장독해]

- 내비게이션, GPS, 현재 위치 파악

[좋은 독해 습관 : 키워드 정리]

- 위성, 수신기

[좋은 독해 습관 : 글쓰기가 구분하는 것들은 구분하기]

- 위성은 신호 송신

- 수신기는 시간 계산, 거리 계산

[좋은 독해 습관 : 차이점 구분]

- $r = t \times c$ 문제 나오겠네 [좋은 독해 습관 : 수식 주의]

- 빠르게 움직이면 시간은 느리게, 중력이 약해지면 시간은 빠르게. 반비례 관계 문제 내겠네.

[좋은 독해 습관 : 비례·반비례 관계 주의]

- 위성이 빠르니, 위성 시간은 느려지게.

[좋은 독해 습관 : 지문-지문 동어반복]

- 중력이 약해지니 위성 시간 시간은 빠르게

[좋은 독해 습관 : 지문-지문 동어반복]

- $45.8 - 7.2 = 38.6$

[좋은 독해 습관 : 결과가 도출된 과정을 스스로 풀어보기]

- 2문단에 t 를 잘 조정해야 r 을 구할 수 있다

[좋은 독해 습관 : 지문-지문 동어반복]

- 삼변 측량법. r 을 구한 후 1문단 현재 위치 파악하는 법 나눔

[좋은 독해 습관 : 지문-지문 동어반복]

[정답 및 해설] 1. 참, 2. 거짓, 3. 참

1. GPS 위성은 약 20,000 km 이상의 상공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정해진 궤도를 돈다. : 참

- 25% 학생들이 거짓이라고 답했는데요. 20000km 내용이 나오는 것은 3문단이고, 느려지고 빨라진다는 표현이 3문단에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 선택지에 '일정한 속력'이라는 표현이 확 틀려보여서 거짓이라고 답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답 근거는 2문단에 GPS 위성은 일정한 속력으로 궤도를 돈다, 3문단에 위성은 약 20000km 이상의 상공에 있다, 이 두 표현을 조합하여 '참'입니다.
- 문제 풀이 당시를 기준으로 3문단 정보보다 더 이전에 봤던 2문단 정보도 떠올릴 수 있는 기억력, 이렇게 떨어진 정보들을 연결해 조합할 줄 아는 연상력, 시간이 다른 것이고 속력이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할 줄 아는 구분력(?) 등이 필요했던 문제였습니다.

[좋은 풀이 습관 : 선택지 - 지문 동어반복, 지문-지문 동어반복, 엄밀한 대상 구분]

2. GPS 수신기는 GPS 위성에 보낸 신호를 바탕으로 자신의 위치 정보를 계산한다. : 거짓

- 수신기는 위성의 신호를 받는 역할이고, 신호를 보내는 것은 위성입니다. 즉, 신호를 보낸다는 서술어의 주체와 대상이 반대로 되었습니다. 서술어의 주체와 대상을 엄밀히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 또한 'GPS 수신기는 자신의 위치 정보를 계산한다.'는 선택지 앞뒤 표현은 맞는 말이지요. 출제자는 이처럼 맞는 표현 사이에 틀린 표현 하나를 쏙 집어넣어 수험생들이 착각하도록 만드는 출제 노하우를 자주 활용합니다. 늘 긴장하시면서 선택지 표현을 잘 뜯어보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좋은 풀이 습관 : 서술어의 주체와 대상 엄밀히 구분, 사소한 한 두글자 단순사실판단으로 틀린 건 아닌지 늘 긴장]

3. GPS 위성과 GPS 수신기 간의 거리를 빛의 속력으로 나누면 위성의 신호가 수신기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된다. : 참

- $r = t \times c$ 예상한대로 나왔네요. GPS 위성과 GPS 수신기 간의 거리(선택지) = r (지문), 빛의 속력(선택지) = c (지문), 위성의 신호가 수신기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선택지) = t (지문),
- r 을 c 로 나누면 t 가 된다. 수학에서 이항이네요. $r / c = t$. 참. 국어 잘하고 싶으시면 수학도 잘 하셔야 합니다.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읽으며 출제 요소 예측, 좋은 풀이 습관 : 선택지-지문 동어반복, 수학적 사고]

#98 문학

[보기]

작품에서 공간은 화자가 위치한 구체적인 장소의 의미를 넘어서 화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 담겨 있기도 하다. 지문에 설정된 시적 공간에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

[지문]

새로 거른 막걸리 젓빛처럼 뿌영고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세.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옹헤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삼시간에 보리 낱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 티끌뿐이로다.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겠는가.

- 정약용, [보리타작]

[문제] 진위판단

1. ㉠은 고된 삶을 살아왔던 화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2. ㉡에는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모습에 대한 화자의 평가가 담겨있다.
정답 : (참 / 거짓)
3. ㉢에는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는 모습이 나타나있다.
정답 : (참 / 거짓)
4. 이 시는 연쇄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 2016년 고1 3월 37 ~ 39번 문학 지문 참조

#98 정답 및 해설

[보기]

작품에서 공간은 화자가 위치한 구체적인 장소의 의미를 넘어서 화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 담겨 있기도 하다. 지문에 설정된 시적 공간에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

[지문]

새로 거른 막걸리 젓빛처럼 뿌옇고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세.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옹헤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삼시간에 보리 낱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 티끌뿐이로다.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겠는가.

- 정약용, [보리타작]

[현장독해]

- 공간 중요
- 화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지향하는 삶 찾기

[좋은 독해 습관 : 보기에서 지문과 연결할 키워드 파악]

- 보리밥 많은 거 보니 좋은 듯

- 농촌 일 하느라 몸 탄 듯

- 제목 보리타작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표현

[좋은 독해 습관 : 제목과 지문 표현 연결]

- 노동요도 부르네. 보리타작 중이고

- 보리타작하며 노래하는 농민들의 기색 살펴보니 즐거워 보임

[좋은 독해 습관 : '그'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기]

- 몸은 고되어도, 마음은 좋다는 듯

- 보리타작하는 농촌 공간이 낙원

[좋은 독해 습관 : 보기-지문 동어반복]

- 벼슬길에 헤매고 있을 필요가 없다

[좋은 독해 습관 : 설의적 표현은 평서형으로 바꾸어 의도파악]

[정답 및 해설] 1.거짓 2.참 3.참 4.거짓

1. ㉠은 고된 삶을 살아왔던 화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 거짓

- ㉠이후에 '그 기색을 살펴보니'라는 표현을 보면, 위의 행위들은 시적화자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농민들의 한 것이라는 걸 추측 가능합니다. 즉, 밑줄 ㉠까지의 모습은 시적화자의 모습이 아니라 시적대상인 농민들이 보리타작하는 모습을 담은 것이고, ㉠이후 마지막 2행이 그 모습을 보고 시적화자 자신을 성찰하는 거죠. 또한 이 시를 현장독해하는 순간에는 이런 생각이 안 떠올랐어도, 문제 2번을 풀다보면 ㉠ 이전까지는 화자가 아닌 농민들의 모습임을 눈치 챌 수도 있습니다. 이 시를 지금 이 순간에 생전 처음 본 학생이라도 맞히는 것이 가능한 했다는 건데요(이상적 풀이, 소수론) 그런데... 말입니다...

★ '사전독해', 배경지식과 상식도 중요하다 ★

위 풀이처럼 '오로지 현장독해 및 눈치'만으로 이 문제를 맞히는 이런 이상적 풀이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앞된 부분에 주어를 제대로 안 써놓다 보니, 화자가 행동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숲) 이 시를 보기 전에, 이 시는 시적대상인 보리타작을 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작가 정약용 본인일 수도 있는 시적화자가 제3자로서 관찰하는 작품임을 이미 알고 있어야 풀기 수월했습니다. 즉, '현장독해'만큼이나 배경지식, 상식 등의 '사전독해'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중고등학교 내신·모의고사 및 각종 문제집에서 빈출된 '고전시가' 작품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고 있을거라고 출제자가 여기는 상식적인 부분은 수험생 본인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해법문학] [EBS] 등으로 문학작품 공부를 미리 많이 해둬서, '사전독해'영역에 대한 대비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수험생활 12년간의 성실한 공부를 통해 쌓아둔 '사전독해'실력과, 좋은 독해 습관이 체화된 '현장독해'실력이 두루 갖춰져야만 국어 고득점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2. ㉡에는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모습에 대한 화자의 평가가 담겨있다 : 참

- '그 기색'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농민들의 보리타작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읽었다면, 즉 '그'라고 하는 지시관형사의 구체적 의미도 사소하게 여겨 대충 넘어가지 않고 겸손하게 습관적으로 동어반복했다면 쉽게 맞혔을 것입니다. 지문-지문 사소한 동어반복이라는 좋은 독해 습관이 실수를 줄이고, 정답률을 높이며, 정답의 확신성을 높이고, 막힘없이 정확하게 자신있게 시험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 사소한 동어반복도 겸손하게 잘 합시다. 화자의 평가(선택지)는 '즐겁기 짝이 없다,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지문)겠네요.
[좋은 풀이 습관 : 선택지-지문 동어반복]

3. ㉢에는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 참

- 설의적 표현을 평서형으로 바꾸어 그 의도를 파악해봤다면 쉽게 풀었을 것입니다.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겠는가' 즉 '벼슬길에 헤매 필요가 없었다, 낙원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막걸리 만들고 보리밥 먹고 보리타작하며 노동요 부르는 여기 농촌에도 있었다.'라고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고 있습니다. 좋은 독해 습관이 실수를 줄이고, 정답률을 높이며, 정답의 확신성을 높이고, 막힘없이 정확하게 자신있게 시험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좋은 독해 습관 : 설의적 표현은 평서형으로 바꾸어 의도파악]

4. 이 시는 연쇄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거짓

- 이 시는 '연쇄법'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농촌 사람들의 일하는 모습을 연속적으로 열거했다 정도가 맞을 듯 합니다. + 밥 먹고 마당 나서서 보리 털고 노래가락 점점 높아지고 일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니까 '연쇄법' 맞지 않느냐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연쇄법은 '앞 구절의 끝 어구를 다음 구절의 앞 구절에 이어받아 이미지나 심상을 강조하는 수사법'입니다. 연쇄법이 흥미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점층적으로 강조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해서, '연속적'이면 무조건 연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 절의 끝에 한 말의 일부분을 고쳐 다음 절에 되풀이 하는 표현 방식이 나타나야 연쇄법입니다. 연쇄법에 대해 추가로 훈련하고 싶으시다면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가는 국어 #50 문학'도 풀어보세요.

#99 문법

[보기]

하나의 단어가 수사로 쓰이기도 하고 수 관형사로도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 관형사로만 쓰이는 단어도 있습니다.

[지문]

1. 나는 필통에서 연필 하나를 꺼냈다.
2. 그 마트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쉰다.
3. 이번 학기에 책 세 권을 읽는 게 내 목표야.
4. 여섯 명이나 이 일에 자원해서 정말 기쁘다.

[문제] 밑줄 단어들 중 수관형사로만 쓰이는 단어 모두 고르기
정답 : ()

※ 2022년 고1 3월 14번 문법 지문 참조

#99 정답 및 해설

[정답] 세

[해설]

- '하나'는 관형사로 쓰이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둘째'와 '여섯'은 수관형사로 쓰이지만 수사로도 쓰일 수 있는 단어이고, 따라서 수 관형사로만 쓰이는 단어는 '세'입니다.(다수론, 이상적 풀이)

- 위 해설처럼 풀어내셨으면 좋겠지만, 시험 현장에서 위와 같이 깔끔하게 이상적으로 풀이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밑줄 친 단어가 주어진 문장에서 어떤 품사로 쓰였는지 파악해본 후, 수관형사가 아닌 다른 품사로 활용되는 예문을 떠올려보는 것이 현실적 풀이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1. 나는 필통에서 연필 하나를 꺼냈다.

- 여기서는 '양수사'로 쓰였네요. 그럼 수관형사로만 쓰인 단어는 아니니 정답은 아니네요.

2. 그 마트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쉰다.

- 일단 단위성 의존명사 '주' 앞에서 체언을 수식해주고 수를 나타내니 '수관형사'네요. 문제는 수관형사로만 쓰였냐는 건데요. 이때 '여기 앉아 있는 애가 자식들 중 둘째(명사, 자식들 중 2번째 자식)입니다.' '첫째, 부모와 형들의 말을 잘 들어라. 둘째(수사, 순서가 두 번째가 되는 차례), 공부를 열심히 해라.' '새치를 벌써 둘째(명사, 맨 앞에서부터 세어 모두 두 개가 됨) 뽑는다.' 중 하나라도 떠올랐다면 수관형사로만 쓰이지는 않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도 안 떠올랐다고요? 앞에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75문법'도 참고해 보시면서 문법 공부를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3. 이번 학기에 책 세 권을 읽는 게 내 목표야.

- 일단 단위성 의존명사 '권' 앞에서 체언을 수식해주고 수를 나타내니 '수관형사'네요. 그리고 '세'를 명사나 수사로 활용하는 예문이 있을지를 떠올려 보세요. '셋', '셋째'로는 다양한 예문이 떠오르는데 '세'로는 안 떠오르네요. 일단 '세'가 수관형사로만 쓰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 '아씨... 셋이나 셋째는 수사로 쓰이는데 세로는 힘드네.'라는 생각을 하시다가, '잠깐만... 그럼 둘째도 수사로 쓰일 수도 있는 거 아냐?'라는 센스를 발휘해냈다면 좋았을 겁니다. 항상 이런 센스를 발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선택지의 맞는 진술을 힌트로 삼아 애매해서 넘어갔던 선택지를 푸는데 활용하는 좋은 풀이 습관을 갖습니다

4. 여섯 명이나 이 일에 자원해서 정말 기쁘다.

- 일단 단위성 의존명사 '명' 앞에서 체언을 수식해주고 수를 나타내니 '수관형사'네요. '여섯'을 수사나 명사로 활용한 예문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 집은 아들만 여섯(수사, 다섯에 하나를 더한 수)이다.' 이렇게 수사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관형사로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 네 번째 문장의 '여섯'과 첫 번째 문장의 '하나'가 유사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를 바탕으로 '나는 필통에 가지고 다니는 연필만 여섯이야' 등이 좀 어색할 수는 있어도 어쨌든 '여섯'이 수사로 쓰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센스를 발휘해내서라도 맞히셨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런 센스를 발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선택지의 맞는 진술을 힌트로 삼아 애매해서 넘어갔던 선택지를 푸는데 활용하는 좋은 풀이 습관을 갖추신다면, 이렇게 오답률 75%에 달하는 문제를 운으로라도 맞힐 수 있을 겁니다. 완전히 운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행운을 불러오는 습관이랄까요.

+ 이 문제의 정답을 고민 좀 해 보시다가, '둘째'나 '여섯' 때문에 계속 고민이 되신다면 일단 다른 문제를 풀러 넘어가셨기를 바랍니다. 잘 안 풀리는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집착하다가 시간도 멘탈도 페이스도 날려서 심신미약 상태가 되면 뒤에 시험을 다 그르치게 됩니다. 풀어봤자 틀릴 것 같은 문제는 과감히 버리고, 안 풀고 그냥 틀리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더 낫습니다. 심지어 오답률 75%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 틀린다고 등급 날아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74 비문학 참조.

#100 비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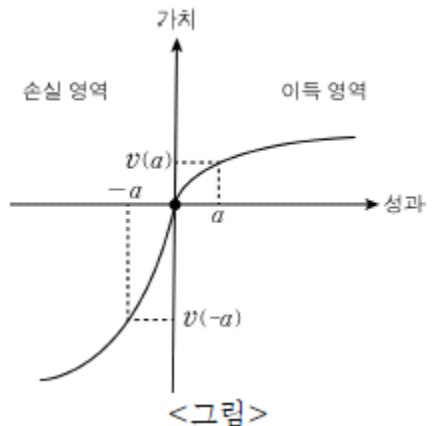
[지문]

심리학자인 카너먼은 인간이 논리적 사고 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직감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영어 단어 중 R로 시작하는 단어와 R이 세 번째에 있는 단어 중 어느 것이 더 많은가?”라는 질문에, 실제로는 후자의 단어가 더 많지만 전자의 단어가 더 쉽게 떠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R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다고 대답한다. 그는 이를 해당 사례를 자주 접하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으면, 발생 빈도수가 높다고 판단하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그는 실제인간의 행동에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을 연구하여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전통 경제학의 전제에 반기를 들고, 심리학적 연구 성과를 경제학에 접목시킨 새로운 이론을 제안했다.

전통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합리적 선택을 하는 존재로 가정하고, 시장에서의 재화와 용역의 생산, 분배, 소비 활동을 연구한다. 전통 경제학의 대표적 이론인 기대 효용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대안이 여러 개일 때 각 대안의 효용을 계산하여 자신에게 최대 이득을 주는 대안을 선택한다. 이때 ‘효용’이란 재화를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이다. 어떤 대안의 기댓값인 기대 효용은, 대안을 선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사건의 효용에, 각 사건의 발생 확률을 곱해 모두 더한 값이다. 예컨대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20,000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10,000원을 잃는 게임 A, 앞면이 나오면 10,000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5,000원을 잃는 게임B가 있다고 해 보자. 화폐 효용은 그것의 액면가와 같다고 할 때, 동전의 앞면, 뒷면이 나올 확률은 각각 0.5이므로, 게임 A의 기대 효용은 $(20,000원 \times 0.5) - (10,000원 \times 0.5) = 5,000원$, 게임B의 기대 효용은 $(10,000원 \times 0.5) - (5,000원 \times 0.5) = 2,500원$ 이다. 기대 효용 이론에 따라 합리적 판단을 한다면 기대 효용이 더 큰 게임A를 선택해야 하지만, 실제 선택 상황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게임B를 선택한다.

카너먼은 이러한 선택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전망 이론을 제시하였다. 전망 이론은 이득보다 손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간의 심리가 선택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여기서 ‘전망’은 이득과 손실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 전망은 대안을 선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개별성과의 가치에, 각각의 결정 가중치*를 곱해 모두 더한 값이다.

<그림>은 전망 이론에서 이득과 손실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설명하는 그래프다. 여기서 x축은 성과를, y축은 성과에 대해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v)를 나타낸다. 그리고 두 축이 교차하는 지점은 현재 ‘나’의 상황을 의미하는 준거점으로, 이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이득 영역이고, 왼쪽은 손실 영역이다.



이 그래프에서 이득 영역의 $v(a)$ 와 손실 영역의 $v(-a)$ 의 절댓값을 비교하면 후자의 값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같은 크기의 이득과 손실이 있을 때 이득감보다 손실감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결정 가중치 : 어떤 성과에 대해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발생 확률.

[문제]

1. 기대 효용 이론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준거로 하여 나타나는 선택 행동의 다양한 양상을 분석하였다.

정답 : (참 / 거짓)

2. 기대 효용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여러 대안이 있을 때 자신에게 가장 큰 이득을 주는 대안을 선택한다.

정답 : (참 / 거짓)

3. <그림>의 이득 영역에서는 성과가 동일 크기로 증가할 때마다 성과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의 크기가 증가하는 폭이 커진다.

정답 : (참 / 거짓)

#100 정답 및 해설

[지문]

심리학자인 카너먼은 인간이 논리적 사고 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직감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영어 단어 중 R로 시작하는 단어와 R이 세 번째에 있는 단어 중 어느 것이 더 많은가?”라는 질문에, 실제로는 후자의 단어가 더 많지만 전자의 단어가 더 쉽게 떠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R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다고 대답한다. 그는 이를 해당 사례를 자주 접하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으면, 발생 빈도수가 높다고 판단하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그는 실제인간의 행동에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을 연구하여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전통 경제학의 전제에 반기를 들고, 심리학적 연구 성과를 경제학에 접목시킨 새로운 이론을 제안했다.

전통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합리적 선택을 하는 존재로 가정하고, 시장에서의 재화와 용역의 생산, 분배, 소비 활동을 연구한다. 전통 경제학의 대표적 이론인 기대 효용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대안이 여러 개일 때 각 대안의 효용을 계산하여 자신에게 최대 이득을 주는 대안을 선택한다. 이때 ‘효용’이란 재화를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이다. 어떤 대안의 기댓값인 기대 효용은, 대안을 선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사건의 효용에, 각 사건의 발생 확률을 곱해 모두 더한 값이다. 예컨대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20,000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10,000원을 잃는 게임 A, 앞면이 나오면 10,000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5,000원을 잃는 게임B가 있다고 해 보자. 화폐 효용은 그것의 액면가와 같다고 할 때, 동전의 앞면, 뒷면이 나올 확률은 각각 0.5이므로, 게임 A의 기대 효용은 $(20,000원 \times 0.5) - (10,000원 \times 0.5) = 5,000원$, 게임B의 기대 효용은 $(10,000원 \times 0.5) - (5,000원 \times 0.5) = 2,500원$ 이다. 기대 효용 이론에 따라 합리적 판단을 한다면 기대 효용이 더 큰 게임A를 선택해야 하지만, 실제 선택 상황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게임B를 선택한다.

카너먼은 이러한 선택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전망 이론을 제시하였다. 전망 이론은 이득보다 손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간의 심리가 선택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여기서 ‘전망’은 이득과 손실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 전망은 대안을 선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개별성과의 가치에, 각각의 결정 가중치*를 곱해 모두 더한 값이다.

[현장독해]

- 합리적 vs 직감

[좋은 독해 습관 : 차이가 있는 집단 구분하기]

- 전자 = R로 시작하는 단어 = 쉽게 떠오르기 때문 = 직감

[좋은 독해 습관 : 지문-지문 동어반복]

- 자주 접하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 발생 빈도수가 높은

[좋은 독해 습관 : 비례 관계 주의]

- 합리적 선택 = 전통 경제학

- 심리학적 연구 성과 = 직감

[좋은 독해 습관 : 지문-지문 동어반복]

- 전통 경제학 = 합리적 선택

- 기대 효용 이론 = 전통 경제학, 합리적 선택

[좋은 독해 습관 : 지문-지문 동어반복]

- 기대 효용 = \sum 개별 사건 효용 X 각 사건 발생 확률

[좋은 독해 습관 : 수식 주의, 지문의 글 설명을 스스로 수식화]

- 친절하기도 하셔라. 수식 예시까지 보여주네.

[좋은 독해 습관 : 예시를 활용해 지문 앞 내용 이해도 높이기]

- 기대 효용 이론 = A. But 대다수 사람들이 B선택. 상식 뒤집기 지문이네.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유형 및 작문 의도 파악]

- ‘전망 이론’이 키워드. 기대효용이론에서 키워드 바뀜.

[좋은 독해 습관 : 키워드 변경되는 흐름 파악]

- 이득보다 손실에 민감

- 전망은 심리 상태

[좋은 독해 습관 : 지문-지문 동어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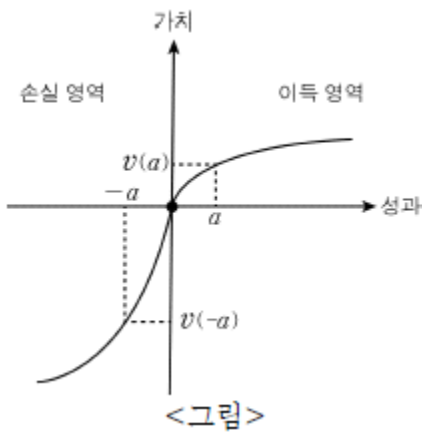
- 위에 기대효용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결정 가중치란 어떤 성과에 대해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발생 확률이라는 게 다르네. 주관적인 건 직감, 심리 쪽이네.

[좋은 독해 습관 : *표시 반드시 읽어 출제자 의도 파악]

- ‘전망이론’이 카너먼, 심리 쪽이고 vs ‘기대효용이론’이 전통 경제학, 합리 쪽이네.

[좋은 독해 습관 : 비슷한 표현 같은 집단으로 묶기]

<그림>은 전망 이론에서 이득과 손실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설명하는 그래프다. 여기서 x축은 성과를, y축은 성과에 대해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v)를 나타낸다. 그리고 두 축이 교차하는 지점은 현재 '나'의 상황을 의미하는 준거점으로, 이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이득 영역이고, 왼쪽은 손실 영역이다. 이 그래프에서 이득 영역의 $v(a)$ 와 손실 영역의 $v(-a)$ 의 절댓값을 비교하면 후자의 값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같은 크기의 이득과 손실이 있을 때 이득감보다 손실감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결정 가중치 : 어떤 성과에 대해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발생 확률.

[현장독해]

- <그림> 나왔네. 글 내용과 그림 내용 계속 연결해가며 읽자.
[좋은 독해 습관 : <그림>-지문 연결해가며 읽기]

- x축 성과, y축 가치v 그림 확인.
- (0,0)이 현재 나의 상황. 준거점. 그림 확인.

- 오른쪽 이득 영역, 왼쪽 손실 영역 그림 확인.
- 후자 = 손실 영역 $v(-a)$ 의 절댓값이 더 크네. 그림 보니까 $v(-a)$ 세로 길이 혹은 높이가, $v(a)$ 세로 길이 혹은 높이보다 기네.

[좋은 독해 습관 : <그림>-지문 연결해가며 읽기]
- 이득감보다 손실감이 더 크다 = 이득보다 손실에 민감(4문단)
[좋은 독해 습관 : 지문뒤-지문앞 연결해가며 읽기]

[정답 및 해설] 1.거짓, 2.참, 3.거짓

1. 기대 효용 이론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준거로 하여 나타나는 선택 행동의 다양한 양상을 분석하였다. : 거짓

- 현재 상황을 준거로 하여 선택 행동한다는 선택지 표현은 '전망이론'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거짓.
+ 이 쉬운 진술을 거짓이라고 답한 학생의 비율, 즉 정답률이 42%밖에 안 됩니다. 아마도 지문 길이가 길고(원문 길이는 여기 나온 지문의 1.5배 정도로 더 깁니다), 어렵고 생소한 경제·심리 관련 지문이라, 학생들이 지문을 읽다가 페이스를 잃고 심신 미약 상태가 된 듯합니다. 대처법은 이런 긴 호흡의 지문과 문제를 많이 경험해 봐서 적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관련 배경지식을 많이 쌓아 두는 것입니다. [상위 1등급 비문학 독해 배경지식] 1권 2권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기대 효용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여러 대안이 있을 때 자신에게 가장 큰 이득을 주는 대안을 선택한다. : 참

- 인간은 여러 대안이 있을 때(선택지) = 인간은 대안이 여러 개일 때(지문 2문단)
- 자신에게 가장 큰 이득을 주는 대안 선택(선택지) = 각 대안의 효용을 계산하여 자신에게 최대 이득을 주는 대안을 선택(지문)
- 이걸 뭐 그냥 ctrl+c ctrl+v 수준으로 똑같은데 이걸 18%의 학생들이 틀리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걸 틀리다고 생각할 정도로 학생들이 심신 미약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긴 지문, 생소하고 어려운 과학·경제·기술·법 등을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현우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공부의 70%는 자기가 모르고 약점이라 자주 틀리는 걸 공부하는데 쓰셔야 성적이 오릅니다. 쉬운 지문, 쉬운 모의고사 풀면서 정신승리하지 마시고, 어려운 지문 어려운 문제에 계속 도전하여 계속 두들겨 맞아가며 실력을 쌓아 나가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막막하기만 한 수준의 문제들도, 5번 10번 틀려가면서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다보면 마치 언제 틀렸었냐는 듯이 쉽게 느껴질 때가 올 겁니다. 그때까지 하루하루 파이팅.

3. <그림>의 이득영역에서는 성과가 동일 크기로 증가할 때마다 성과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의 크기가 증가하는 폭이 같아진다. : 거짓

- <그림>에 제시된 그래프를 보면,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y의 값도 증가하는 증가함수이다. 그런데 이득 영역에서는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그래프의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득 영역에서 성과가 동일한 크기로 증가할 때마다 성과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치의 크기가 증가하는 폭이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위 해설은 해설지 원문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문에는 증가함수, 기울기 완만 등의 표현이 아예 없습니다. 사실상 <그림> 그래프 보고 푸는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볼 줄 아는 기초적인 수학적 지식과 사고는 필요합니다. 국어 잘하고 싶으시면 수학도 잘 하셔야 합니다.

#101 문학

[지문]

이때에 심봉사는 홀로 앉아 심청을 기다릴 제, 배고파 등에 붙고 방은 추워 턱이 떨어질 지경인데, 잘 새는 날아들고 먼 절에서 쇠북 소리 들리니 날 저문 줄 짐작하고 혼자 하는 말이,

㉠ '내 딸 심청이는 무슨 일에 빠져서 날이 저문 줄 모르시고, 주인에게 잡히어 못 오는가, 저물게 오는 길에 동무에게 붙잡혀 있는가?'

눈바람에 길 가는 사람 보고 짓는 개소리에,
"심청이 오느냐?"

하면서 반기기도 하고, 괜히 눈보라가 떨어진 창가에 부딪치기만 해도 행여 심청이 오는 소리인가 하여 반겨 나서면서,
"심청이 너 오느냐?"

하고 나가봐도 적막한 빈 뜰에 인적이 없으니 공연히 속았구나.

㉡ 지팡막대 찾아 짚고 사립 밖에 나가다가 한 길 넘은 개천에 밀친 듯이 떨어지니, 얼굴에 흠뻑이요 의복에 얼음이라. 뒤뚱거리다 도로 더 빠지며 나오자니 미끄러져 하릴없이 죽게 되어, 아무리 소리친들 해는 저물고 행인은 끊겼으니 뉘라서 건져주리.

그래도 죽을 사람 구해 주는 부처님은 곳곳마다 있는 법인지라, 마침 이때 몽운사 화주승이 절을 새로 지으려고 시주 책을 둘러메고 내려왔다가, 청산은 어둑어둑하고 눈 덮인 들판에 달이 돌아올 제, 돌발 비탈길로 절을 찾아가는데 바람결에 애처로운 소리가 들렸다.

"사람 살려!"

화주승은 자비한 마음에 소리 나는 곳을 찾아가니, 어떤 사람이 개천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되었다. 급한 마음에 구절죽장과 바랑을 바위 위에 획 던져 두고, 굴갓과 먹물장삼 실띠 달린 채로 벗어놓고, 육날 미투리 행전 대님 버선도 훅훅 벗어놓고, 고두 누비 바지 저고리 거듬거듬 훨씬 추켜올려, 급히 뛰어들어 심봉사 고추상투를 덩벙 잡아 들어 올려 건져 놓으니, 전에 보던 심봉사였다. 심봉사가 정신 차려 묻기를,

"게 뉘시오?"

화주승이 대답하기를,

"몽운사 화주승이오."

"그렇지, 사람을 살리는 부처로군요. 죽을 사람을 살려 주시니 은혜 백골난망이오.

- 작자미상, [심청전]

[보기]

그때의 심봉사는 딸의 덕에 몇 해를 가만히 앉아 먹어 노니 도랑 출입이 서툴구나. 지팡이 흠어 짚고 이리 더듬 저리 더듬 더듬 더듬 더듬이 나가다가 길 넘은 개천 물에 한발 자칫 미끄러져 꺼꾸로 물에 가 풍 빠져 노니 아이고 도화동 심학규 죽네. 나오려면 미끄러져 풍 빠져 들어가고 나오려면 미끄러져 풍 빠져 들어가고 나오려면 미끄러져 풍 빠져 들어가고 그저 점점 들어가니 아이고 정신도 말끔하고 숨도 잘 쉬고 아픈 데 없이 잘 죽는다. 한참 이리할 제.

-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

[문제] 진위판단

1. ㉠은 <보기>와 달리 대구를 활용하여 개천에 빠진 심봉사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2. ㉡과 <보기>는 모두 심봉사가 처한 상황과 관련된 서술자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3. 심봉사를 구해 준 화주승은 심봉사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정답 : (참 / 거짓)

4. ㉠에 담겨 있는 '심봉사'의 심리를 나타낼 수 있을만한 사자성어는 수구초심(首丘初心)이다.

정답 : (참 / 거짓)

#101 정답 및 해설

[지문]

이때에 심봉사는 홀로 앉아 심청을 기다릴 제, 배고파 등에 붙고 방은 추워 턱이 떨어질 지경인데, 잘 새는 날아들고 먼 절에서 쇠북 소리 들리니 날 저문 줄 짐작하고 혼자 하는 말이,

㉠'내 딸 심청이는 무슨 일에 빠져서 날이 저문 줄 모르시고, 주인에게 잡히어 못 오는가, 저물게 오는 길에 동무에게 붙잡혀 있는가?'

눈바람에 길 가는 사람 보고 짓는 개소리에,
"심청이 오느냐?"

하면서 반기기도 하고, 괜히 눈보라가 떨어진 창가에 부딪치기만 해도 행여 심청이 오는 소리인가 하여 반겨 나서면서,
"심청이 너 오느냐?"

하고 나가봐도 적막한 빈 뜰에 인적이 없으니 공연히 속았구나.

㉡지팡막대 찾아 잡고 사립 밖에 나가다가 한 길 넘은 개천에 밀친 듯이 떨어지니, 얼굴에 흠뻑이요 의복에 얼음이라. 뒤뚱거리다 도로 더 빠지며 나오자니 미끄러져 하릴없이 죽게 되어, 아무리 소리친들 해는 저물고 행인은 끊겼으니 뉘라서 건져주리.

그래도 죽을 사람 구해 주는 부처님은 곳곳마다 있는 법인지라, 마침 이때 몽운사 화주승이 절을 새로 지으려고 시주 책을 둘러메고 내려왔다가, 청산은 어둑어둑하고 눈 덮인 들판에 달이 돌아올 제, 돌발 비탈길로 절을 찾아가는데 바람결에 애처로운 소리가 들렸다.

"사람 살려!"

화주승은 자비한 마음에 소리 나는 곳을 찾아가니, 어떤 사람이 개천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되었다. 급한 마음에 구절죽장과 바랑을 바위 위에 획 던져 두고, 굴갓과 먹물장삼 실띠 달린 채로 벗어놓고, 육날 미투리 행전 대님 버선도 훌훌 벗어놓고, 고두 누비 바지 저고리 거듬거듬 훌쩍 추켜올려, 급히 뛰어들어 심봉사 고추상투를 덩벙 잡아 들어 올려 건져 놓으니, 전에 보던 심봉사였다. 심봉사가 정신 차려 묻기를,

"게 뉘시오?"

화주승이 대답하기를,

"몽운사 화주승이오."

"그렇지, 사람을 살리는 부처로군요. 죽을 사람을 살려 주시니 은혜 백골난망이오.

- 작자미상, [심청전]

[현장독해]

- 심청전 잘 알지만, 그래도 겸손하게 읽자
[좋은 독해 습관 : 출제자가 적어 놓은 건 겸손하게 다 읽는다]

- 심청이가 안 오니까 걱정하면서 못 오는 이유 추측하네.
[좋은 독해 습관 : 밑줄의 의미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기]

- 심청인 줄 알고 나가봤지만 심청이 아니었고.

- 심청이 찾아 나왔다가 조난당했네.
[좋은 독해 습관 : 밑줄의 의미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기]

- 뉘라서 건져주리. 설의적 표현이네. 아무리 소리쳐도 누가 건져주겠느냐 건져줄 사람 하나도 없다. 편집자적 논평이구만.

[좋은 독해 습관 : 설의적 표현은 평서형으로 바꾸어 의도 파악]

[좋은 독해 습관 : 고전소설에서는 편집자적 논평 나올 거라고 주의하며 서술자 생각 찾아보려고 의식하기]

- 조력자 몽운사 화주승 어서오고.

- 자기 것도 내팽개쳐두고 심봉사 도와주네. 화주승 좋은 사람.

- ~~네~~ 뭘 잡아...?

- 몽운사 화주승 = 사람(심봉사) 살리는 부처.

[좋은 독해 습관 : 사소한 동어반복 습관적으로 하기]

- '백골난망' 뼈에 새겨 잊기 어렵다. 은혜 안 잊겠다는 말.

[기초 독해 지식 : 사자성어]

[보기]

그때의 심봉사는 딸의 덕에 몇 해를 가만히 앉아 먹어 노니 도랑 출입이 서툴구나. 지팡이 흠어 짚고 이리 더듬 저리 더듬 더듬 더듬 더듬이 나가다가 길 넘은 개천 물에 한발 자칫 미끄러져 꺼꾸로 물에 가 풍 빠져 노니 아이고 도화동 심학규 죽네. 나오려면 미끄러져 풍 빠져 들어가고 나오려면 미끄러져 풍 빠져 들어가고 나오려면 미끄러져 풍 빠져 들어가고 그저 점점 들어가니 아이고 정신도 말끔하고 숨도 잘 쉬고 아픈 데 없이 잘 죽는다. 한참 이리할 제.

-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

[현장독해]

- 도랑 출입이 서툰 이유를 서술자가 말해주는 것, 서술자가 심봉사 평가하는거네. [좋은 독해 습관 : 고전소설에서는 편집자적 논평 나올 거라고 주의하며 서술자 생각 찾아보려고 의식하기]
- 더듬 더듬 더듬 반복법. 눈 멀었으니까.
- 밑줄 ㉠의 판소리 버전이네. 죽을 위기에 처한 심봉사. [좋은 독해 습관 : 상황 파악, <보기> 의도 파악]
- 미끄러져 풍 미끄러져 풍 반복 서술해서 강조
- 객사

[정답 및 해설] 1.참 2.참 3.거짓 4.거짓

1. ㉠은 <보기>와 달리 대구를 활용하여 개천에 빠진 심봉사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 참

- ㉠부터 판단해보기. '얼굴에 흑빛이요 의복에 얼음이라' 대구법 맞네요. 개천에 빠진 심봉사 외양(선택지) = 흑빛, 얼음(지문)이구요.
- <보기>(... 와... 저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을 다사 봤는데요) 판소리인데, 심지어 반복법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대구법은 없네요. ㉠은 맞고, <보기>는 틀리니, '달리'가 맞네요. 참.

★ 반복법 vs 대구법 ★

- 반복법 : 한 문장이나 문단 안에서 같거나 비슷한 어구를 되풀이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수사법. 같은 말을 반복하는 동어(同語) 반복,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유어(類語) 반복, 연속되는 문장의 결구(結句)에 동어·유어를 반복해서 쓰는 결구 반복 등이 있다. (예)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 대구법 :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진 어구를 짝 지어 표현의 효과를 나타내는 수사법. 조사, 어미 등이 같거나 비슷하여 전체적으로 비슷한 구절로 읽혀야 대구법. (예) A는 B이므로 C이고, D는 E이므로 F이다. / A는 B요, C는 D로다. / A에 B가 있고, C에 D가 있다.

★ '~와' 달리 문제 푸는 법 : 해체 ★

- '달리' 선택지를 ①②③번 3개 진술로 해체하여 순서대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①번 진술 : ㉠은 (<보기>와 달리) 대구를 활용하여 ~ 묘사하고 있다 : 참

-> ①번 진술이 참이므로,

②번 진술 : <보기>는 대구를 활용하여 ~ 묘사하고 있다 :

-> ①번 진술이 참이고, ②번 진술이 거짓이면, ③번 진술 '달리'가 맞으므로 선택지 진술은 전체적으로 참

-> ①번 진술이 참이고, ②번 진술도 참이면, ③번 진술 '달리'가 틀리므로 선택지는 거짓

*만약 ①번 진술부터 틀린 진술이면, 전체 진술도 틀린 진술이므로, 이후 ②③번 진술은 판단하지도 않고 넘어가서 시간 아끼기

*'달리' 문제 푸는 법을 연습해보고 싶다면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11 비문학'도 풀어보세요.

2. ㉡과 <보기>는 모두 심봉사가 처한 상황과 관련된 서술자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 참

- 고전소설을 읽으실 때는 항상 편집자적 논평, 즉 등장인물이 아닌 서술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이 드러난 표현은 없는지를 계속 의식하면서 찾아보려고 하는 좋은 독해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풀이는 위에 [지문, 보기] 현장독해에서 처럼 편집자적 논평이 나왔을 때 그게 바로바로 보여서 생각해두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실상 저는 지문과 보기를 읽으면서 이미 ②번 문제는 푼거나 다름 없어진 것이죠. 이렇게 편집자적 논평이 나오면 바로바로 파악이 될 때까지 고전소설을 많이 읽어보면서 좋은 독해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읽으면서 편집자적 논평을 파악하는 것이 습관이 안 되면 결국, 문제로 맞닥뜨리고 난 후 그제서야 허둥지둥 지문과 보기를 다시 읽어 보며, 아까운 시간을 다 버려가면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찾는다고 찾자면 운 좋게 문제 맞는 것이고, 안 찾자면 일단 넘어가서 다른 선택지와 문제 풀러 가야 합니다. 수능 날 현장에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루하루 한지문 한지문 꼼꼼히 공부하면서 좋은 독해 습관 잡아나가기 바랍니다.

3. 심봉사를 구해 준 화주승은 심봉사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 거짓

- [지문] 뒷부분에 '전에 보던 심봉사였다.'고 나옵니다. 단순사실판단으로 지문내용과 완전 반대되어 있으므로 거짓입니다.
- + 너무 급하게 빠르게 지문을 읽으면 이런 걸 놓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줄이 바뀌는 귀퉁이에 있기 때문에 놓치기 쉽습니다. 분명 독해할 때는 읽고 지나갔을 지라도, 막상 문제 풀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나서 답답하실 겁니다. **만약 이 진술을 봤을 때 바로 관련된 지문 내용이 기억나질 않아서 지문으로 다시 돌아갔든지, 돌아가서 찾는다고 찾았는데도 못 찾아서 틀렸든지 한다면, 일단 '독해 속도를 더 느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읽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이런 지문 내용 기억 안 나서 지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찾으려고 하는 순간, 천천히 차분히 지문 읽는 것보다 시간이 더 낭비됩니다. 일단 정확도를 높여 놓고, 점차 점차 속도를 빠르게 해가야 정확도와 속도를 둘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정확도를 높인 후에 속도를 높여 나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속도를 높인 후에 정확도를 높여 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4. ㉠에 담겨 있는 '심봉사'의 심리를 나타낼 수 있을만한 사자성어는 '수구초심(首丘初心)'이다. : 거짓

- 수구초심(首丘初心) :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
- 심청이가 오기를 심봉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구초심(首丘初心)이 아니라, '학수고대(鶴首苦待)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림'이 적절한 사자성어겠죠.
- + 이제 수능에는 사자성어 묻는 문제 안 나온다고요? 지문에 '백골난망'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발 사자성어 공부, 한자 공부 하세요. 따로 하시지 마시고, 이런 문제 틀릴 때마다 해설지 읽어보고 모르는 한자 사전 찾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적 공부를 도저히 못 하겠다면 사후적 공부라도 하셔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사자성어, 한자도 잘해야 국어 시험 잘 볼 수 있습니다.

★ 국어 과목 하나 잘 보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것들도 다 잘해야 하냐고요 ㅅㅅㅅㅅㅅㅅㅅㅅ

- 수학적 사고와 연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한자도 알고 있어야 하고, 과학·기술·법·경제·행정 배경지식도 풍부해야 되고, EBS 연계지식도 잘 알아둬야 하고, 좋은 독해 습관도 들여야 하고, 좋은 풀이 습관도 해내야 하고, 대한민국 남녀노소 70%가 할 수 있는 현실적 사고도 해야 하고, 겸손하게 지문 문제 다 읽어야 하고, 아유.... 수능 국어 잘 보기 위한 조건들이 참 많죠? 이래서 최상위권들도 수능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까다로워하는 게 국어공부입니다. **하루하루 국어공부 꾸준히, 그리고 많이 하지 않으면 현행 수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다 같이 파이팅!**

#102 문법 2023 고3 4모 39번

[보기]

[중세 국어] 부텃 덩바깃뼈 노프샤 뽀머리 ㄱ특실씨

[현대어 풀이] 부처님의 정수리뼈가 높으시어 튼 머리 같으시므로

[중세 국어] 大臣이 이 藥 밍그라 大王의 받즈뵤대 ㅍ이 좌시고

[현대어 풀이] 대신이 이 약을 만들어 대왕께 바치니 왕이 드시고

[문제] <보기>의 자료에 나타나는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텃'을 보니, 높임의 대상에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하였음을 알 수 있군.
- ② '노프샤'를 보니, 대상의 신체 일부를 높이는 간접 높임이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ㄱ특실씨'를 보니, 현대 국어와 같은 형태의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쓰였음을 알 수 있군.
- ④ '받즈뵤대'를 보니,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쓰였음을 알 수 있군.
- ⑤ '좌시고'를 보니, 높임의 의미를 갖는 특수 어휘를 통해 주체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2023년 고3 4월 39번 문법 문제 참조

#102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해설]

① '부텃'을 보니, 높임의 대상에 관형격 조사 '시'이 결합하였음을 알 수 있군. : 참

- 부텃 : 부터 + 시(관형격 조사)

[좋은 풀이 습관 : 쪼개서 원형파악]

② '노프샤'를 보니, 대상의 신체 일부를 높이는 간접 높임이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군. : 참

- '노프샤', 즉 높으신 것은 '덩바깃뼈', 정수리뼈입니다. 정수리뼈는 높이고자 하는 대상인 '부처님'의 신체 일부니 간접 높임.

[좋은 풀이 습관 : 나무('노프샤'와 같은 표현)와 숲('부처님의 정수리뼈'와 같은 주변 맥락) 둘 다 잘 보기]

③ '꺄퓌실씨'를 보니, 현대 국어와 같은 형태의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쓰였음을 알 수 있군. : 참

- 꺄퓌실씨 : 현대어 풀이 '같으시므로'와 비교해 '쪼개서 원형파악'해보면 '꺄 + 시 + 르씨'입니다. '시'로 같은 형태네요.

[좋은 풀이 습관 : 쪼개서 원형파악]

④ '받즈뵤대'를 보니,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쓰였음을 알 수 있군 : 거짓

- '뵤'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나무), 현대어풀이를 보면 '약을 대왕께 바치니'니까 '약을'이 목적어고, '대왕께'가 부사어입니다.(숲)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약'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대왕'을 높이는 것이므로, 틀린 진술입니다.

[좋은 풀이 습관 : 나무와 숲 둘 다 잘 보기]

+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는 뒤 진술이 맞다고 전체 선지가 다 맞겠거니 생각하시는 수험생들, 즉 선택지 진술을 제대로 쪼개서 보지 않고 대충보는 학생들 별주기 위한 문제였습니다. ④번 선택지는 3가지를 다 판단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건지', 두 번째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쓴건지', 마지막으로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쓴 건지' 이렇게 하나의 선택지도 쪼개서 디테일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출제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좋은 풀이 습관 : 쪼개서 원형파악]

+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 = 주어',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 = 목적어',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 부사어'입니다. 2달 전에 본 '2023년 고3 3월 모의고사 37번',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59문법'의 내용이죠. 이전에 틀린 걸 제대로 공부했는지 다시 점검하는 문제였습니다. 3월에도 틀렸는데,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에서도 틀렸는데, 이번에 또 틀렸다면 많이 반성하시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공부 습관 : 한번 틀린 것은 제대로 오답해서 다시는 안 틀리기]

[좋은 공부 습관 : 틀릴 뻔한 거나 운 좋게 맞힌 건 제대로 푸는 법 알아두기]

⑤ '좌시고'를 보니, 높임의 의미를 갖는 특수 어휘를 통해 주체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참

- ④번에서 정답이 나왔으므로 ⑤번은 보지 않고 넘어가서 시간을 아끼시다.

[좋은 풀이 습관 : 정답의 확실성이 높은 답이 나왔으면 다음 선택지는 보지 않고 넘어가서 시간 아끼기]

- '좌시고'라는 표현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만, 현대어 풀이에 '드시다'라고 하는 높임의 의미를 갖는 특수 어휘가 나왔네요. '먹다' 대신에 '드시다'라는 특수어휘를 써서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왕이'를 높이는 주체높임입니다. 맞는 진술.

#103 문학 2023 고3 4모 32번

[보기]

「평지」는 1960년대 근대화로 인한 농민의 애환을 다루고 있다. 주인공은 정부 정책을 명분으로 삼는 자본가로부터 생활 터전을 빼앗기게 되고 이로 인해 고초를 겪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인공은 농민이 사회 제도에서 상대적 약자이며 역사적으로 반복된 억압의 대상이었음을 깨닫고 농민의 입장이 배제된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 분노를 표출한다.

[지문]

술이 알맞게 되었을 때, 청년 신사는 노래를 중지시키고, 예의 청산유수식 구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농촌 경제가 어떠니, 구태의연한 영농방법을 버리고 근대화를 해야 되느니,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들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느니, 또 도시에 주택단지 공업단지가 서듯이 농촌에는 식량단지, 채소단지, 심지어 돼지단지까지 있어야 하느니 등, 그야말로 먼 앞날을 내다보는 유익한 얘기들이 꼬리를 물 듯 계속되었다.

옛날에는 권업계 서기요 지금은 산업계 서기들이 하는 말을 수타 들어왔기 때문에, 허 생원도 대강 짐작은 갔었지만, 결국 귀에 남는 것은 무슨 단지 단지 하는 새로운 말뿐이고, 청년이 말하는 <먼 앞날>보다 우선 코앞에 다가 있는 <사는 문제>가 더 절박했다.

“허 선생님은 이 고장 출신이시고, 또 누구보다 이곳 사정을 잘 아실 뿐 아니라 이해도 깊으실 터인 만큼 -.”

드디어 청년 신사는 화제를 슬쩍 딴 데로 돌리려 하였다.

“야?”

허 생원은 난생 처음 듣는 <선생>칭호와 말공대에 잠깐 어리둥절하였지만, 경계심이 갑자기 얼굴에까지 나타났다.

“㉠예, 직 누구보다도 이해가 많으실 줄 알기 때문에…….”

청년은 약간 의외인 듯한, 그래서 다소 거북한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러니 우짜란 말입니까?”

허 생원은 그 부리부리한 눈으로 청년 신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직, 이곳 하천부지 꺾인데 이번 정부 시책에 따라서…….”

청년은 <직>이란 말을 곧잘 썼다. <직>하고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그곳에 새로운 농업단지를 조성키 위하여, 그 방면에 연구가 깊으신 서울 모 유력자가 그 일대의 <휴면법인토지>를 도통 쓰게 되었다는 이야기-라기보다 바로 통고 비슷한 말을 했다. 그리고 능글맞게 덧붙여서, -워낙 이 지방 연고자들의 사정을 잘 짐작하시는 분이 돼서, 섭섭지 않을 정도의 위자료랄까 동정금이랄까를 내게끔 돼 있다는 말까지 했다. 말하자면 안 내도 될 걸 그런 선심까지 쓴다는 말투였다.

“머 동정금을 내? 누가 그런 거 달라 캐던강? 그래 이곳 사정을 잘 안다는 양반이 멀쩡한 남의 땅을 맘대로 뺏아?”

허 생원은 참다못해 분통을 터뜨렸다. 말하는 턱이 덜덜 떨 정도였다.

“㉡글쎄요, 휴면 법인 재산이라 안깝니까. 그러니까 실지는 국유지였지요!”

청년은 내쳐 능글능글한 태도를 고치지 않았다.

- 김경한, [평지]

[문제] 진위판단

1. ㉠에는 허 생원의 반응을 뜻밖이라고 여기며 불편해 하는 청년의 태도가 나타난다.

정답 : (참 / 거짓)

2. ㉡에는 허 생원의 반박에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청년의 모습이 나타난다.

정답 : (참 / 거짓)

#103 정답 및 해설

[보기]

「평지」는 1960년대 근대화로 인한 농민의 애환을 다루고 있다. 주인공은 정부 정책을 명분으로 삼는 자본가로부터 생활 터전을 빼앗기게 되고 이로 인해 고초를 겪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인공은 농민이 사회 제도에서 상대적 약자이며 역사적으로 반복된 억압의 대상이었음을 깨닫고 농민의 입장이 배제된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 분노를 표출한다.

[지문]

술이 알맞게 되었을 때, 청년 신사는 노래를 중지시키고, 예의 청산유수식 구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농촌 경제가 어떠니, 구태의연한 영농방법을 버리고 근대화를 해야 되느니,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들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느니, 또 도시에 주택단지 공업단지가 서듯이 농촌에는 식량단지, 채소단지, 심지어 돼지단지까지 있어야 하느니 등, 그야말로 먼 앞날을 내다보는 유익한 얘기들이 꼬리를 물 듯 계속되었다.

옛날에는 권업계 서기요 지금은 산업계 서기들이 하는 말을 수타 들어왔기 때문에, 허 생원도 대강 짐작은 갔었지만, 결국 귀에 남는 것은 무슨 단지 단지 하는 새로운 말뿐이고, 청년이 말하는 <먼 앞날>보다 우선 코앞에 다가 있는 <사는 문제>가 더 절박했다.

“허 선생님은 이 고장 출신이시고, 또 누구보다 이곳 사정을 잘 아실 뿐 아니라 이해도 깊으실 터인 만큼 -.”

드디어 청년 신사는 화제를 슬쩍 딴 데로 돌리려 하였다.

“야?”

허 생원은 난생 처음 듣는 <선생>칭호와 말공대에 잠깐 어리둥절하였지만, 경계심이 갑자기 얼굴에까지 나타났다.

“㉠예, 직 누구보다도 이해가 많으실 줄 알기 때문에…….”

청년은 약간 의외인 듯한, 그래서 다소 거북한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러니 우짜란 말입니까?”

허 생원은 그 부리부리한 눈으로 청년 신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현장독해]

- 정부 정책을 명분으로 삼는 자본가 : 반동인물일 듯

- 주인공 = 약자 = 억압의 대상

- 주인공 분노 장면 찾기

- 먼 앞날 = 근대화, 비상한 각오, 식량단지, 채소단지, 돼지단지, 유익한 얘기들 [좋은 독해 습관 : 지문-지문 동어반복]

- 사는 문제 = 위의 먼 앞날의 반대인 당장 먹고 사는 얘기겠네 [좋은 독해 습관 : 반대적 사고]

- 허 생원 띄워주다가 눈치보는 듯

[좋은 독해 습관 : 밑줄의 의미 생각해보고 넘어가기]

“직, 이곳 하천부지 건인데 이번 정부 정책에 따라서…….”

청년은 <직>이란 말을 곧잘 썼다. <직>하고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그곳에 새로운 농업단지를 조성키 위하여, 그 방면에 연구가 깊으신 서울 모 유력자가 그 일대의 <휴면법인토지>를 도통 쓰게 되었다는 이야기-라기보다 바로 통고 비슷한 말을 했다. 그리고 능글맞게 덧붙여서, -워낙 이 지방 연고자들의 사정을 잘 짐작하시는 분이 돼서, 섭섭지 않을 정도의 위자료랄까 동정금이랄까를 내게끔 돼 있다는 말까지 했다. 말하자면 안 내도 될 걸 그런 선심까지 쓴다는 말투였다.

“머 동정금을 내? 누가 그런 거 달라 했던강? 그래 이곳 사정을 잘 안다는 양반이 멀쩡한 남의 땅을 맘대로 뺏아?”

허 생원은 참다못해 분통을 터뜨렸다. 말하는 턱이 덜덜 떨 정도였다.

“㉠글쎄요, 휴면 법인 재산이라 안깝니까. 그러니까 실지는 국유지였지요!”

청년은 내쳐 능글능글한 태도를 고치지 않았다.

- 김경한, [평지]

- <보기> 정부정책이 이건가보네
- '서울 모 유력자'가 <보기> 자본가고.

[좋은 독해 습관 : <보기>-지문 동어반복]

- 주인공 허 생원 분노하네

[좋은 독해 습관 : <보기>-지문 동어반복]

- 청년은 자본가, 서울 모 유력자 편이네

[좋은 독해 습관 : <보기>-지문 동어반복]

[좋은 독해 습관 : 밑줄의 의미 생각해보고 넘어가기]

[정답] 1.참, 2.거짓

[해설]

1. ㉠에는 허 생원의 반응을 뜻밖이라고 여기며 불편해 하는 청년의 태도가 나타난다. : 참

- 밑줄(나무)만 봐서는 '불편'을 잡기 애매했을 수 있지만, 밑줄 앞뒤(숲) 즉 바로 다음 문장을 보면 '청년은 약간 의외인 듯한, 그래서 다소 거북한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까지 보셨다면 쉽게 풀렸을 겁니다. 뜻밖(선택지) = 의외(지문), 불편(선택지) = 거북(지문).

[좋은 풀이 습관 : 나무와 숲 둘 다 챙기기. 밑줄(나무)만 보지 말고, 밑줄 앞뒤(숲)도 보기]

2. ㉡에는 허 생원의 반박에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청년의 모습이 나타난다. : 거짓

- 마찬가지로입니다. 밑줄(나무) “글쎄요, 휴면 법인 재산이라 안깝니까. 그러니까 실지는 국유지였지요!”만 보면 느낌표(!)까지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듯해 보입니다. 이렇게 밑줄만 갖고 문제 푸시려고 하면 이런 진술 맞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략 20%정도의 학생이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네요. 그런데 밑줄 바로 뒤(숲)를 보시면 대놓고 '청년은 내쳐 능글능글한 태도를 고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인다(선택지)는 선택지 앞 진술에 완벽히 반대되는 표현(지문)이 나오네요. 단순사실판단으로 틀려서 거짓입니다. 이런 실수 안하시려면 항상 밑줄(나무)만큼이나 밑줄 앞뒤(숲)까지 고려해서 지문 독해하고 문제 푸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좋은 풀이 습관 : 나무와 숲 둘 다 챙기기. 밑줄(나무)만 보지 말고, 밑줄 앞뒤(숲)도 보기]

#104 문법 2023 고3 4모 38번

[보기]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었으나 독립하여 쓰이지 못하고 다른 문장의 성분으로 쓰이는 의미 단위를 절이라 한다. 문장에서 부속 성분으로 쓰인 절은 수식의 기능을 하여 생략될 수 있지만, ㉠부속 성분이면서도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으로 쓰여 생략될 수 없는 절도 있다.

[문제] <보기>의 ㉠이 사용된 문장을 모두 고르시오

1. 나는 그가 있는 가게로 저녁에 갔다.
2. 부지런한 동생은 나와는 달리 일찍 일어난다.
3. 저기 서 있는 아이가 특히 재주가 있게 생겼다.

[정답] ()

※ 2023년 고3 4월 38번 문법 문제 참조

#104 정답 및 해설

[정답] 3 *모의고사 38번 정답으로는 ㉠번

[해설]

1. 나는 그가 있는 가게로 저녁에 갔다. : X

- 20%정도의 수험생들이 이 선택지에 ㉠이 사용됐다고 답했는데요. 일단 이 문장의 서술어는 일단 2개입니다. 첫 번째는 안은문장의 서술어 '갔다'네요.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다.'의 의미를 지닌 '가다'는 '산에 가다'처럼 [...에/에게]를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거 필수적 부사어 '저녁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 사용되었다고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출제요소는 '필수적 부사어'로 기능하는지도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출제요소는 그래서 그게 '절'이냐도 있었습니다.** 굳이 표현을 만들어 보자면 '필수적 부사어'를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 부사절'을 찾아 보라는 것이 출제의도인데요. '저녁에'는 부사어이고 절이 아니니까 틀립니다.

+ 안긴문장의 서술어 '있다' 역시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의 의미로 '내가 갈 테니 너는 학교에 있어라.'처럼 [...에]를 필수적 부사어로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역시, '그가 가게에 있다'라고 하는 안긴문장의 부사어 '가게에'도 '필수적 부사절'이 아니라 '필수적 부사어'라서 틀립니다. '절'이 아니니까 ㉠에 해당 안합니다.

2. 부지런한 동생은 나와는 달리 일찍 일어난다. : X

- 10%정도의 학생들이 이 문장에 ㉠이 사용되었다고 답해서 틀렸답니다. 안은문장의 서술어 '일어나다'는 '잠에서 깨어나다.'는 의미로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다.'에서처럼 '한 자리 서술어'입니다. '동생은 일어난다.'만 써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용되지 않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나와는 달리'라는 표현을 보면서 어 이걸 "비교부사격 조사 '~와 달리'가 쓰였고, 비교부사격 조사는 생략이 불가하니까 옳거니 이게 '생략될 수 없는 절'이다"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했나 봅니다.

- 근데 이거 착각하시면 안되는 게, '다르다'라는 서술어가 '~와'라는 비교부사격조사가 쓰인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인 것이지, '일어나다'가 '나와는 달리'라는 부사절을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 '필수적 부사어'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 중 하나인 '~와'를 써서, 이걸 보고 너무 반가운 나머지 흥분한 학생들이 실수하도록 유도하려는 출제자가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심지어 정답인 다음 문장보다 앞에 배치해놓기까지 했구요. 이게 정답이라고 다음 문장 안 보고 넘어간 학생들이 10%가 아닐까 합니다.[좋은 풀이 습관 : 너무 친숙하고 쉬운 게 나오면 더 긴장하고 겸손하게 꼼꼼히 따져본다]

3. 저기 서 있는 아이가 특히 재주가 있게 생겼다. : 0

- 안은문장의 서술어는 '생겼다'이고 '사람이나 사물의 생김새가 어떠한 모양으로 되다'의 의미인 '생기다'는, '너는 동양적으로 생겼다'처럼 [...으로, -게, -히, -처럼] 등을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안은문장의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필수적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안긴문장 '재주가 있다'에 부사형 전성어미 '~게'가 붙어 부사절의 역할을 하는 '재주가 있게'이구요.** '필수적 부사절'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정답 3번. 모의고사 문제에서의 정답으로는 ㉠번입니다.

[지문]

(가)

특허 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기간 해당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특허권을 특허 출원인에게 부여한다. 특허 출원을 희망하는 자가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심사할 때 대상이 되는 문서가 특허 출원 명세서이다.

특허 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중 '특허청구범위'는 특허 출원인이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 즉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항목이다. 이 항목은 해당 발명을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방법, 기능, 구조 및 결합 관계 등이 서술된 하나 이상의 청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청구항 1] 금속,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의자
-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은 철인 의자
-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목재를 포함하여 구성된 의자

위 예시의 [청구항 1]은 발명의 범위를 단독으로 나타내는 독립항이고, [청구항 2]와 [청구항 3]은 다른 항을 인용한 종속항이다. [청구항 2]는 다른 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일부를 한정하는 경우이고, [청구항 3]은 다른 항에 기재된 발명에 새로운 특징을 추가한 경우이다. 종속항은 독립항은 물론 또 다른 종속항을 인용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기술적 특징과 한정 사항 등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기 때문에 독립항보다 좁은 보호 범위를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특허청구범위는 특허 심사를 위한 발명을 널리 알려진 선행 발명과 비교하여 특허의 성립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 요건들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과 선행 발명을 비교하여 심사할 때, 신규성은 선행 발명과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고, 진보성은 선행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신규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명의 구성 요소가 선행 발명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 완전히 일치하는 물리적 동일성뿐만 아니라, 발명의 효과 면에서 선행 발명과 유사함을 의미하는 실질적 동일성도 부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요소가 상위 개념이고 선행 발명의 구성 요소가 하위 개념인 경우에는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신규성이 부정된다.

발명이 신규성을 갖추었다면, 다음으로는 진보성을 갖추었는지 심사한다.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아는 지식 수준에서 선행 발명을 토대로 해당 발명을 쉽게 예측할 수 있거나 따라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진보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행 발명의 구성 요소를 단순히 치환하거나 선행 발명에 다른 요소를 단순히 결합시키는 경우에는, 신규성을 갖추

라도 진보성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할 수 없다.

(나)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획득한 발명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받는다. 따라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특허 제도를 통해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특허권은 일반적인 사물과 달리 형체가 없어서 모방과 도용이 쉬운 반면, 침해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허 제도에서는 직접 침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직접 침해가 예상되는 행위 역시 간접 침해로 규정하여 특허권 침해로 보고 있다.

직접 침해란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기존 특허 발명을 침해했는지 판단을 받는 '확인 대상 발명'이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특허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확인하고 해석하여 특허권자의 권리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이렇게 특허권자의 권리 범위를 해석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는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과 균등론의 원칙이 있다.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은 확인 대상 발명이 기존 특허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요소 전부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특허권자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기존 특허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요소가 「X+Y」라면, 확인 대상 발명에서 「X」나 「Y」만을 실시하거나 「X+Y」를 실시한 경우에는 침해로 인정하지 않지만, 「X+Y」를 실시하거나 「X+Y+Z」를 실시한 경우에는 침해로 인정한다. 그런데 이 원칙에는 확인 대상 발명이 기존 특허 발명의 본질적 기능은 유지한 채 부차적인 요소만 변형하거나 삭제할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이 균등론의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확인 대상 발명이 「X+Y'」로 실시될 경우, 기존 특허 발명의 구성 요소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Y와 Y'의 원리나 효과가 동일하다면 Y와 Y'를 균등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확인 대상 발명이 기존 특허 발명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한편, 간접 침해는 직접 침해는 아니지만 그대로 방치할 경우 특허권의 침해가 예상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는 '물건의 발명'에 대한 경우와 '방법의 발명'에 대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 특허 발명이 물건인 경우, 해당 물건 생산을 위해서만 필요한 다른 요소를 상업적 목적으로 실시한다면 이는 간접 침해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특허권을 지닌 완성품이 아닌 해당 물건의 구성품 일체를 판매하는 행위는, 최종적으로 해당 물건의 조립을 가능하게 하여 특허 발명의 실시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 침해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기존 특허발명이 방법인 경우, 그 방법을 실시하는 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상업적으로 실시하는 행위는 간접 침해에 해당한다.

*실시: 물건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문제] 7번.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1>과 <보기2>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1>

갑'은 아래의 특허 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발명의 특허권자이다.

특허 출원 명세서

[발명의 명칭] 목재로 만들어진 연필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목재로 만들어진 몸체

상기 몸체의 내부 중앙에 형성된 흑심을 포함하는 연필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의 형상이 육각형인 연필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의 한쪽 끝에 부착된 지우개를 포함하는 연필

<보기2>

'갑'이 목재로 만들어진 연필에 대해 특허권을 획득한 후 '을', '병', '정'이 다음과 같은 발명을 하였다.

- '을'의 발명 : 목재로 만들어지며, 육각형 형상의 몸체의 내부 중앙에 흑심을 포함하는 연필
- '병'의 발명 : 목재로 만들어지며, 다각형 형상의 몸체의 내부 중앙에 흑심을 포함하는 연필에 있어서, 몸체의 한쪽 끝에 지우개가 부착된 연필
- '정'의 발명 : 목재로 만들어지며, 육각형 형상의 몸체의 내부 중앙에 흑심을 포함하는 연필에 있어서, 몸체의 한쪽 끝에 지우개가 부착되어 있고, 반대쪽에 뚜껑을 포함하는 연필

- ① '을'이 자신의 발명을 특허 출원하였을 때, '갑'의 발명과 비교하여 구성 요소의 동일성이 있으므로 신규성을 인정받지 못하겠군.
- ② '을'이 자신의 발명을 '갑'의 허가 없이 제품으로 생산하였을 때,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에 따르면 '갑'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침해라고 할 수 없겠군.
- ③ '병'이 자신의 발명을 특허 출원하였을 때, 일부 구성 요소가 '갑'의 발명의 해당 요소보다 상위 개념에 속하므로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군.
- ④ '병'이 자신의 발명을 '갑'의 허가 없이 제품으로 생산하였을 때, 균등론의 원칙에 따르면 '갑'의 발명과 비교하여 원리나 효과가 동일할 경우에는 침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정'이 자신의 발명을 특허 출원하였을 때, 특허 심사 과정에서 신규성을 인정받더라도, '갑'의 발명에 다른 요소를 단순히 결합시킨 것으로 판단된다면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없겠군.

[문제] 8번.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사례 1] 소매업자 A는 자전거의 완성품에 특허가 등록되어 있자 자전거 완성품으로만 조립할 수 있도록 해당 자전거의 구성품 일체를 세트로 구성하여 판매하였다.

[사례 2] 일반인 B가 특정 농약을 사용하여 해충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하여 특허권을 얻은 후, 농약 회사 C가 해충 제거 용도로만 사용되는 이 농약을 판매할 상품으로 생산하였다.

- ① [사례 1]에서 A가 자전거의 완성품을 판매한 것은 아니므로 직접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사례 1]에서 A의 행위는 최종적으로 특허 발명의 실시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 ③ [사례 2]에서 C가 해당 농약을 생산은 하고 판매는 하지 못했다면 간접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사례 2]에서 C의 행위는 그대로 방치할 경우 특허권 침해가 예상되는 행위이므로 간접 침해에 해당한다.
- ⑤ [사례 2]에서 C의 행위는 해당 농약으로 B가 획득한 발명을 실시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105 정답 및 해설

[지문]

(가)

특허 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기간 해당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특허권을 특허 출원인에게 부여한다. 특허 출원을 희망하는 자가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심사할 때 대상이 되는 문서가 특허 출원 명세서이다.

특허 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중 '특허청구범위'는 특허 출원인이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 즉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항목이다. 이 항목은 해당 발명을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방법, 기능, 구조 및 결합 관계 등이 서술된 하나 이상의 청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청구항 1] 금속,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의자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은 철인 의자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목재를 포함하여 구성된 의자

위 예시의 [청구항 1]은 발명의 범위를 단독으로 나타내는 독립항이고, [청구항 2]와 [청구항 3]은 다른 항을 인용한 종속항이다. [청구항 2]는 다른 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일부를 한정하는 경우이고, [청구항 3]은 다른 항에 기재된 발명에 새로운 특징을 추가한 경우이다. 종속항은 독립항은 물론 또 다른 종속항을 인용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기술적 특징과 한정 사항 등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기 때문에 독립항보다 좁은 보호 범위를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특허청구범위는 특허 심사를 위한 발명을 널리 알려진 선행 발명과 비교하여 특허의 성립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 요건들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과 선행 발명을 비교하여 심사할 때, 신규성은 선행 발명과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고, 진보성은 선행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신규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명의 구성 요소가 선행 발명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 완전히 일치하는 물리적 동일성뿐만 아니라, 발명의 효과 면에서 선행 발명과 유사함을 의미하는 실질적 동일성도 부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요소가 상위 개념이고 선행 발명의 구성 요소가 하위 개념인 경우에는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신규성이 부정된다.

[현장독해]

- 특허 제도 개념

- 키워드는 특허 출원 명세서 [좋은 독해 습관 : 키워드 파악]

- 하나 이상이면 됨.

- 청구항1은 독립항

- 청구항2는 구성 일부, 금속 중에 철이니까.

- 청구항3은 추가, 금속에 목재 더했으니까

[좋은 독해 습관 ; 지문-예시 동어반복]

- 청구항2가 한정 사항 [좋은 독해 습관 ; 지문-예시 동어반복]

- 한정 사항이니까 좁은 보호 범위고.

- 신규성, 진보성 키워드 추가 [좋은 독해 습관 : 키워드 파악]

- 신규성은 선행 발명과의 동일성. 동일 안해야 신규겠지.

- 진보성은 선행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이 포인트인듯

- 물리적 동일성도 부정하고, 효과의 유사성 즉 실질적 동일성도 부정되어야 신규성

-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음..... 꽃이 상위 개념이고 장미가 하위 개념 이런 거였지. 선행 발명이 더 구체적이면 그걸 포함한 상위개념은 신규성이 없다고 본다는 듯.

[좋은 독해 습관 : 나만의 예시를 활용하여 지문 이해도 높이기]

발명이 신규성을 갖추었다면, 다음으로는 진보성을 갖추었는지 심사한다.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아는 지식 수준에서 선행 발명을 토대로 해당 발명을 쉽게 예측할 수 있거나 따라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진보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행 발명의 구성 요소를 단순히 치환하거나 선행 발명에 다른 요소를 단순히 결합시키는 경우에는, 신규성을 갖추더라도 진보성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할 수 없다.

(나)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획득한 발명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받는다. 따라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특허 제도를 통해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특허권은 일반적인 사물과 달리 형체가 없어서 모방과 도용이 쉬운 반면, 침해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허 제도에서는 직접 침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직접 침해가 예상되는 행위 역시 간접 침해로 규정하여 특허권 침해로 보고 있다.

직접 침해란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기존 특허 발명을 침해했는지 판단을 받는 '확인 대상 발명'이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특허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확인하고 해석하여 특허권자의 권리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이렇게 특허권자의 권리 범위를 해석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는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과 균등론의 원칙이 있다.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은 확인 대상 발명이 기존 특허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요소 전부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특허권자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기존 특허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요소가 「X+Y」라면, 확인 대상 발명에서 「X」나 「Y」만을 실시하거나 「X+Y'」를 실시한 경우에는 침해로 인정하지 않지만, 「X+Y」를 실시하거나 「X+Y+Z」를 실시한 경우에는 침해로 인정한다. 그런데 이 원칙에는 확인 대상 발명이 기존 특허 발명의 본질적 기능은 유지한 채 부차적인 요소만 변형하거나 삭제할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이 균등론의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확인 대상 발명이 「X+Y'」로 실시될 경우, 기존 특허 발명의 구성 요소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Y와 Y'의 원리나 효과가 동일하다면 Y와 Y'를 균등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확인 대상 발명이 기존 특허 발명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한편, 간접 침해는 직접 침해는 아니지만 그대로 방치할 경우 특허권의 침해가 예상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는 '물건의 발명'에 대한 경우와 '방법의 발명'에 대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 특허 발명이 물건인 경우, 해당 물건 생산을 위해서만 필요한 다른 요소를 상업적 목적으로 실시한다면 이는 간접 침해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특허권을 지닌 완제품이 아닌 해당 물건의 구성품 일체를 판매하는 행위는, 최종적으로 해당 물건의 조립을 가능하게 하여 특허 발명의 실시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 침해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기존 특허발명이 방법인 경우, 그 방법을 실시하는 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상업적으로 실시하는 행위는 간접 침해에 해당한다.

* 실시 : 물건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현장독해]

- 신규성을 갖추고 난 다음에 진보성도 갖추어야 된다는 거면, 신규성도 못갖추면 진보성은 볼 필요도 없다는 뜻

[좋은 독해 습관 : 전제 파악]

- 쉽게 예측하고 따라할 수 있으면 진보성은 아니다.

- 치환, 결합도 진보성 아니다

- 직접 침해랑, 앞으로의 직접 침해가 예상되는 간접 침해 다름

[좋은 독해 습관 : 차이점 파악]

- 실시? 생산, 판매, 사용, 방법 사용까지 다 실시로 보네. 일상어가 아니라 출제자 표현이니까 주의하자.

[좋은 독해 습관 : *어휘 풀이 반드시 읽기]

- (가)지문 청구항 따지는건가보네

[좋은 독해 습관 : 지문-지문 동어반복]

- 구성 요소 완비 원칙, 균등론 원칙 키워드.

[좋은 독해 습관 : 키워드 파악]

- 전부! 경우에'만'! 절대적인 표현이니 이거 출제하겠네.

[좋은 독해 습관 : 절대적 표현, 극단적 표현, 한정 표현 주의]

- 빠지거나 하나라도 빠지면 침해 아님.

- 있는 거 전부 포함되면 침해, 전부 포함하면서 거기에 추가해도 침해. 이거 특허권 침해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하는거 무조건 출제다.

[좋은 독해 습관 : 출제 요소 예상]

- 「X+Y'」이 부차적 요소 변형이고, 삭제하는 게 「X」네

[좋은 독해 습관 ; 지문-예시 동어반복]

- Y = Y'이면 침해. 이게 균등론.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핵심 촌철살인]

- 앞으로 침해가 예상되는 게 간접 침해. 1문단에도 나왔지.

-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구분 [좋은 독해 습관 : 차이점 파악]

- 실시. 아까 생산 판매 사용 방법 다 포함한다고 했지. 그니까 이 말이 결국... 발명품의 부품 쓰는 것도 간접 침해라는거네.

- 구성품 조립해서 완제품되면 간접 침해다.

- 방법을 실시하는 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상업적으로 실시하는 행위는 간접 침해. 한정표현 주의. 사례는 바로 안 떠오르니까 문제 풀면서 나오면 동어반복하자

[좋은 독해 습관 : 절대적 표현, 극단적 표현, 한정 표현 주의]

[문제] 7번.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1>과 <보기2>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1>

갑'은 아래의 특허 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발명의 특허권자이다.

특허 출원 명세서

[발명의 명칭] 목재로 만들어진 연필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목재로 만들어진 몸체

상기 몸체의 내부 중앙에 형성된 흑심을 포함하는 연필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의 형상이 육각형인 연필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의 한쪽 끝에 부착된 지우개를 포함하는 연필

<보기2>

'갑'이 목재로 만들어진 연필에 대해 특허권을 획득한 후 '을', '병', '정'이 다음과 같은 발명을 하였다.

- '을'의 발명 : 목재로 만들어지며, 육각형 형상의 몸체의 내부 중앙에 흑심을 포함하는 연필
- '병'의 발명 : 목재로 만들어지며, 다각형 형상의 몸체의 내부 중앙에 흑심을 포함하는 연필에 있어서, 몸체의 한쪽 끝에 지우개가 부착된 연필
- '정'의 발명 : 목재로 만들어지며, 육각형 형상의 몸체의 내부 중앙에 흑심을 포함하는 연필에 있어서, 몸체의 한쪽 끝에 지우개가 부착되어 있고, 반대쪽에 뚜껑을 포함하는 연필

- ① '을'이 자신의 발명을 특허 출원하였을 때, '갑'의 발명과 비교하여 구성 요소의 동일성이 있으므로 신규성을 인정받지 못하겠군.
- ② '을'이 자신의 발명을 '갑'의 허가 없이 제품으로 생산하였을 때,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에 따르면 '갑'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침해라고 할 수 없겠군.
- ③ '병'이 자신의 발명을 특허 출원하였을 때, 일부 구성 요소가 '갑'의 발명의 해당 요소보다 상위 개념에 속하므로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군.
- ④ '병'이 자신의 발명을 '갑'의 허가 없이 제품으로 생산하였을 때, 균등론의 원칙에 따르면 '갑'의 발명과 비교하여 원리나 효과가 동일할 경우에는 침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정'이 자신의 발명을 특허 출원하였을 때, 특허 심사 과정에서 신규성을 인정받더라도, '갑'의 발명에 다른 요소를 단순히 결합시킨 것으로 판단된다면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없겠군.

[정답] ③번

[현장독해]

- 이게 독립항. [좋은 풀이 습관 : 지문-보기 동어반복]
- 목재로 만들어진 몸체 X
[좋은 풀이 습관 : 지문의 예시를 뒤 내용 이해에 활용]
- 내부 중앙에 흑심 Y
- 몸체 육각형 한정 사항이네. 목재가 X고, 육각형이 Z. 이게 종속항 중 구성 일부고
[좋은 풀이 습관 : 지문의 예시를 뒤 내용 이해에 활용]
- 지우개가 A. 이게 종속항 중 추가
[좋은 풀이 습관 : 지문의 예시를 뒤 내용 이해에 활용]

- 을 : 목재 X, 육각형 Z, 흑심 Y. 갑 꺼 중에 지우개 A 안 베꼈으니까 구성요소 완비 원칙을 안 지킨 건 아니네. '전부 포함한 경우에만' 침해라고 했으니까 직접 침해 아님.
- 병 : 목재 X, '다각형' 이게 아까 상위 개념이네. 육각형이 하위 개념 다각형이 상위개념. 신규성 부정. 흑심 Y, 지우개 A. 육각형이나 다각형이나 Z = Z' 균등론. 침해 맞고
- 정 : 목재 X, 육각형 Z, 흑심 Y, 지우개 A, 뚜껑 B. XZYA 갑꺼 전부 포함하면서 B 추가했으니까 이걸 구성 요소 원칙 안 지킨거네. 전부 포함하고 추가해서 침해

[좋은 풀이 습관 : 앞내용을 뒷내용 분석에 활용]

[좋은 풀이 습관 : 보기 읽으며 지문과의 연관성 최대한 파악]

[해설]

- ① XZY 똑같고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물리적 동일성 부정 못해서 신규성 인정 못 받네.
- ② 지우개 A 포함 안했으니까 구성 요소 완비 원칙 어긴 건 아님.
- ③ 상위개념이면 동일성 있는 것으로 봐서 신규성 부정된다고 했었지. 읽으면서 생각한 게 나왔네. 짱팍.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읽으며 생각한 게 문제로 출제, 짱팍]
- ④ 확실한 정답이 나왔으니 넘어가서 시간 아끼자
[좋은 풀이 습관 : 확실한 정답이 나오면 넘어가서 시간 아끼기]

[문제] 8번.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사례 1] 소매업자 A는 자전거의 완성품에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 자전거 완성품으로만 조립할 수 있도록 해당 자전거의 구성품 일체를 세트로 구성하여 판매하였다.

[사례 2] 일반인 B가 특정 농약을 사용하여 해충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하여 특허권을 얻은 후, 농약 회사 C가 해충 제거 용도로만 사용되는 이 농약을 판매할 상품으로 생산하였다.

- ① [사례 1]에서 A가 자전거의 완성품을 판매한 것은 아니므로 직접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사례 1]에서 A의 행위는 최종적으로 특허 발명의 실시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 ③ [사례 2]에서 C가 해당 농약을 생산은 하고 판매는 하지 못했다면 간접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사례 2]에서 C의 행위는 그대로 방치할 경우 특허권 침해가 예상되는 행위이므로 간접 침해에 해당한다.
- ⑤ [사례 2]에서 C의 행위는 해당 농약으로 B가 획득한 발명을 실시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번

[현장독해]

- 간접 침해네. 구성품 조립해서 완성품 나오는.

- 용도로'만', 지문에 해충 제거 방법을 실시하는 데에'만' 사용하는 농약을 생산, 즉 상업적 실시하는 경우 간접 침해라고 했지. 지문 마지막 문장.

[좋은 풀이 습관 : 보기 읽으며 지문과의 연관성 최대한 파악]

[해설]

① 완성품을 팔아야 직접 침해고, 이걸 간접침해.

② 최종적으로 특허 발명의 실시 유도(선택지) = 완성품으로만 조립할 수 있도록(보기). 간접 침해지.

[좋은 풀이 습관 : 선택지-보기 동어반복]

③ 실시해도 간접 침해라고 했고. 실시에는 판매 말고도 생산도 포함되니까 간접 침해에 해당하지. 지문 읽으면서 *어휘 풀이 겸손하게 꼼꼼히 읽은 애들만 맞히라는 문제. 정답 ③번.

[좋은 독해 습관 : *어휘 풀이 반드시 읽기]

④ 생산을 방치해서 ③번처럼 판매하면 직접 침해가 예상되니까 간접 침해 맞지.

⑤ B가 획득한 발명은 '방법'이지 C는 방법을 실시하는 데에'만' 사용하는 농약을 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니까 간접 침해지. 지문 마지막 문장. 직접 침해에는 해당 안하는 거고.

[좋은 풀이 습관 : 선택지-지문 동어반복]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가는 안국어

#106 멘토링

규칙성에서 효율성이 나온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교수님께서도 매일같이 8시 전후로 학교에 오시구요.
9시까지 교수 휴게실에서 신문을 보십니다.
9시부터는 연구를 하거나, 강의를 하러 가시구요.
12시에는 항상 같은 식당에 가서 요일 추천 메뉴를 드십니다.
점심식사 후에는 커피 한잔,
그 다음엔 대학교 교정 산책,
그리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쪽 업무 보시다가 퇴근하시죠.
이런 똑같은 일상을 수십 년째 반복하고 계세요.

이런 규칙적인 일상을 못견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긋지긋한 식당 추천 메뉴가 아니라 피자도 시켜먹고 싶고 하잖아요.
날 새서 놀고 싶은 날도, 늦잠 자고 싶은 날도 있구요.
또 어떤 날은 일 안하고 낮술 한잔 하고 싶은 날도 있을 겁니다.

교수님이라고 다르시겠어요.
교수님조차도 평소 루틴을 깨고
해방감과 짜릿함을 누리고 싶은 순간들이 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참고 최대한 루틴을 지키려하시는 이유는,
루틴을 한번 깨면 대가가 매우 큰 비효율을 가져온다는 걸
평생에 걸쳐 몸소 깨달으셨기 때문일 겁니다.

밤에 늦게 잔만큼만 딱 아침에 더 자면 몸이 평소처럼 개운하던가요?
아니요. 잔 시간이 똑같아도 평소보다 더 피곤하더군요.
매일 마시던 커피를 안마시면 오후에 어떻게 되나요?
밤에 잠을 푹 잤어도 텐션이 떨어지던데요.
맛있는 피자 시켜 먹으면 좋죠.
근데 그 피자 한판 먹어 보겠다고
어디서 얼마나 시키냐, 11시 반에 시키면 12시에는 오냐,
파인애플 넣냐 피자에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 하면서 오전 11시부터 난리가 나더군요.
하러던 오전오후 계획도 다 망가지구요.

규칙적인 루틴을 만들고 그걸 잘 지키면,
그 시간대에 뭘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다지 신경 안 써도 잘만 굴러가지는 일에 쓸데없이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습니다.
몸이 거기에 맞게 최적화되구요.

마크 저커버그가 회색티만 입고,
스티브 잡스가 검은색 목폴라티에 청바지만 입는 이유가 다 돈이 없어서 일까요?
옷 살 돈이야 차고 넘치지만, 뭘 입을지를 고민하는 그 자체가 다 스트레스고 낭비라는 겁니다.
그걸 고민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서 일이나 더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는,
개인마다 편차는 있겠으나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정해진 양에서 쓸데없이 쓰이는 것들을 최대한 덜어내야만,
하고자 하는 일에 양질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많은 수험생 분들이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공부해서,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얘기해드리겠지만,
일상에서 쓸데없는 에너지와 신경을 쏟아 안 받아도 될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걸 안할 수 있는, 안 해도 되게 만드는 루틴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12시 ~ 1시 사이에는 무조건 자고, 아침에 7시 전에는 일어나고,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는 국어공부하고, 이런 고정계획표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매일같이 회색티만 입고, 돈카츠동만 일주일에 5끼를 먹으라는 건 아닙니다.
너무 기계적이고 비인간적이라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정도로 스스로를 움아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다만,
규칙성으로 아낀 에너지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은 여유를 갖게 만들고,
그 여유가 같은 시간에 같은 공부를 해도
더 효율적인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의 하루는 24시간이고,
하루 공부는 많이 해봤자 10시간 내외로 다들 비슷합니다.
제한적이고, 그렇기에 공정하고 냉정한 경쟁에서
남다른 효율을 낼 욕심이 있으시다구요?

그럼 쓸모없이 낭비하는 에너지,
나에게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최대한 없애봅시다.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입니다.
부모님이나 주변과 싸우지 마세요. 스트레스입니다.
문제 정답 고민하는 것 외에 입고 먹는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스트레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남들보다 티끌만큼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날이 몇 백일 쌓이면,
잘난 남들을 따라잡고, 압도적으로 격차를 벌릴 수 있게 될겁니다.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줄이고)
(에너지를 아껴가며)
파이팅!

#107 문학

[보기]

「신유복전」은 하늘에서 내려온 적강(謫降)의 인물인 유복의 일대기를 다룬 영웅담이다. 이 소설에는 쫓겨난 여성이 남편을 출세시키는 이야기인 ‘쫓겨난 여인 발복(發福) 설화’가 수용되어 있다. 우선 적강을 한 남성 주인공이 태어난다. 비천한 처지의 남성 주인공이 뛰어난 품성을 지닌 여성 주인공과 인연을 맺는다. 그리고 주인공들이 친지에 의해 쫓겨나 고난을 겪는다. 여성 주인공의 뜻에 따라 남성 주인공이 수학(修學)한다. 결국 남성 주인공이 시험을 통과해 입신출세한다.

[지문]

[앞부분 줄거리] 선관의 점지로 태어난 신유복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유리걸식한다. 유복의 인물됨을 알아본 상주 목사는 호장의 딸 경패를 유복과 혼인하게 한다. 그러나 유복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호장 부부, 경패의 두 언니, 그 남편 유소현, 김평의 미움을 받고 경패와 함께 쫓겨난다.

해는 서산에 걸렸다. 처녀가 저녁연기를 쫓아 밥을 빌러 다녔다. 유복이 처녀와 마을로 들어가 밥을 빌어먹고 방앗간을 찾아가 거적을 얻어다 깔고 둘이 마주 누워 팔을 베고 같이 자니 신세가 궁했다. 유복은 활달한 영웅이요, 처녀 역시 여자 중의 군자였다. 고어에 흥이 다하면 슬픔이 오고 괴로움이 다하면 즐거움이 온다고 하였는데 하늘이 어찌 어진 사람을 곤궁 속에 던져두시겠는가. 처녀도 유복의 늠름한 풍채와 잘 생긴 용모를 대하니 정이 깊이 들었다. 그러므로 고생을 어찌 한탄할 것인가. 이튿날 밥을 빌어 먹고 처녀가 유복에게 말했다.

“슬프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인데, 사람만 못한 짐승도 집이 있건만, 우리는 어째서 의지할 곳조차 없나하고 생각하면 애달픈 생각이 듭니다. 저 건너 북쪽 돌각담이 임자가 없는 것이니 돌각담을 헐고 움이나 한 칸 물어봅시다.”

동리로 재목과 이엉을 구걸하니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서로 다투어가며 주었다. 처녀가 유복과 더불어 움을 묻고 거적을 얻어 깔고 밥을 빌어다가 나눠 먹고 그 밤을 지내니, 마치 커다란 저택에서 좋은 음식을 먹은 것같이 흐뭇하였다. 그러나 깊은 정이야 어디다 비할 수 있으랴. 남의 방앗간에서 잠자던 것은 한바탕 꿈이었다. 인근 사람들이 유복의 가련한 정상과 경패의 지극한 정성을 불쌍히 여겨 음식을 아끼지 않고 주며, 호장 부부를 욕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유복이 남의 집의 물도 길어주고 방아질도 해주니 허기를 면하였다. 그러나 의복이 없어 초라하였다.

처녀가 하루는 유복에게 말했다.

“옛글에 ‘장부 세상에 나서 입신하여 세상에 이름을 드날려 문호를 빛나게 하며, 조상 향불을 빛나게 하라’ 하였으니 문필을 배우지 않으면 공명을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옛 사람도 낮이면 밭 갈고, 밤이면 글을 읽어, 성공하여 길이길이 기린각에 화상을 그린 족자가 붙어 훗날에 유전하는 것을 장부다운 일로 여겼습니다. 무식한 사람으로 영웅호걸이 되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 작자미상, [신유복전]

[문제] 진위판단

1. 서술자가 등장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2. 시대적 배경에 대한 요약적 설명을 통해 사건의 인과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3. 밑줄에서 경패는 상대방의 동정심에 호소해 자신의 결정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4. 밑줄에서 경패는 설의적 물음을 구사하여 자신의 의중을 상대방에게 드러내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5. 떠돌아다니는 처지였던 유복이 여자 중의 군자인 경패와 부부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

정답 : (참 / 거짓)

#107 정답 및 해설

[보기]

「신유복전」은 하늘에서 내려온 적강(謫降)의 인물인 유복의 일대기를 다룬 영웅담이다. 이 소설에는 쫓겨난 여성이 남편을 출세시키는 이야기인 '쫓겨난 여인 발복(發福) 설화'가 수용되어 있다. 우선 적강을 한 남성 주인공이 태어난다. 비천한 처지의 남성 주인공이 뛰어난 품성을 지닌 여성 주인공과 인연을 맺는다. 그리고 주인공들이 친지에 의해 쫓겨나 고난을 겪는다. 여성 주인공의 뜻에 따라 남성 주인공이 수학(修學)한다. 결국 남성 주인공이 시험을 통과해 입신출세한다.

[지문]

[앞부분 줄거리] 선관의 점지로 태어난 신유복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유리걸식한다. 유복의 인물됨을 알아본 상주 목사는 호장의 딸 경패를 유복과 혼인하게 한다. 그러나 유복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호장 부부, 경패의 두 언니, 그 남편 유소현, 김평의 미움을 받고 경패와 함께 쫓겨난다.

해는 서산에 걸렸다. 처녀가 저녁연기를 쫓아 밥을 빌러 다녔다. 유복이 처녀와 마을로 들어가 밥을 빌어먹고 방앗간을 찾아가 거적을 얻어다 깔고 둘이 마주 누워 팔을 베고 같이 자니 신세가 궁했다. 유복은 활달한 영웅이요, 처녀 역시 여자 중의 군자였다. 고어에 흥이 다하면 슬픔이 오고 괴로움이 다하면 즐거움이 온다고 하였는데 하늘이 어찌 어진 사람을 곤궁 속에 던져두시겠는가. 처녀도 유복의 늠름한 풍채와 잘 생긴 용모를 대하니 정이 깊이 들었다. 그러므로 고생을 어찌 한탄할 것인가. 이튿날 밥을 빌어 먹고 처녀가 유복에게 말했다.

“슬프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인데, 사람만 못한 짐승도 집이 있건만, 우리는 어째서 의지할 곳조차 없나하고 생각하면 애달픈 생각이 듭니다. 저 건너 북쪽 돌각담이 임자가 없는 것이니 돌각담을 헐고 움이나 한 간 물어봅시다.”

동리로 재목과 이엉을 구걸하니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서로 다투어가며 주었다. 처녀가 유복과 더불어 움을 묻고 거적을 얻어 깔고 밥을 빌어다가 나눠 먹고 그 밤을 지내니, 마치 커다란 저택에서 좋은 음식을 먹은 것같이 흐뭇하였다. 그러나 깊은 정이야 어디다 비할 수 있으랴. 남의 방앗간에서 잠자던 것은 한바탕 꿈이었다. 인근 사람들이 유복의 가련한 정성과 경패의 지극한 정성을 불쌍히 여겨 음식을 아끼지 않고 주며, 호장 부부를 욕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유복이 남의 집의 물도 길어주고 방아질도 해주니 허기를 면하였다. 그러나 의복이 없어 초라하였다.

처녀가 하루는 유복에게 말했다.

“옛글에 ‘장부 세상에 나서 입신하여 세상에 이름을 드날려 문호를 빛나게 하며, 조상 향불을 빛나게 하라’ 하였으니 문필을 배우지 않으면 공명을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옛 사람도 낮이면 밭 갈고, 밤이면 글을 읽어, 성공하여 길이길이 기린각에 화상을 그린 족자가 붙어 훗날에 유전하는 것을 장부다운 일로 여겼습니다. 무식한 사람으로 영웅호걸이 되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현장독해]

- 적강 인물 유복.
- 쫓겨난 여인 찾기
[좋은 독해 습관 : 보기에서 지문과 연결지를 키워드 파악]

- 이 여성이 쫓겨난 여성이려나
- 친지에 의해 쫓겨나는 부분 찾기
- 바보온달 평강공주갈네
[좋은 독해 습관 : 유사한 나만의 사례 떠올려 이해도 높이기]

- 유복이 [보기] 적강 인물이고.
- 유리걸식. [보기] 비천한 처지란 소리네.

- [좋은 독해 습관 : 지문-보기 연결지어가며 읽기]
- 이게 [보기] 주인공들이 친지에 의해 쫓겨나 고난 겪는거네.

- [좋은 독해 습관 : 지문-보기 연결지어가며 읽기]
- 처녀가 경패 [좋은 독해 습관 : 사소한 동어반복도 하기]

- [보기] 영웅담. 뛰어난 품성을 지닌 여성 주인공. 그리고 이거 편집자적 논평이네

- [좋은 독해 습관 : 지문-보기 연결지어가며 읽기]
- [좋은 독해 습관 : 고전소설에서 서술자의 생각 의식적으로 찾기]

- 하늘이 어진 사람을 곤궁 속에 던져두실 리가 없다. 고생을 한탄만 하지 않겠다.

- [좋은 독해 습관 : 설의적 표현은 평서형으로 바꾸어 의도 파악]

- 아 그니까 집 구하자는거네
[좋은 독해 습관 : 핵심 촌철살인 표현으로 정리]

- 깊은 정을 비할 수가 없다. 정이 깊다.
[좋은 독해 습관 : 설의적 표현은 평서형으로 바꾸어 의도 파악]

- 남의 방앗간에서 잠자던 건 쫓겨난 직후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앞뒤 내용 연결지어가며 읽기]

- 주인공들 쫓아낸 호장 부부 욕먹는다는 거네
[좋은 독해 습관 : 부정에 부정어구 주의]

- 문필 안 배우면 공명을 바랄 수 없다
[좋은 독해 습관 : 설의적 표현은 평서형으로 바꾸어 의도 파악]

- 이게 [보기]에 여성 주인공의 뜻에 따라 남성 주인공이 수학, 즉 공부하는 거네. [좋은 독해 습관 : 지문-보기 연결]

[정답] 1.참, 2.거짓 3.거짓 4.참 5.참

[해설]

1. 서술자가 등장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 참

- 지문에 서술자가 등장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직접 드러내는 표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 '유복은 활달한 영웅이요, 처녀 역시 여자 중의 군자였다.'
- '고어에 흥이 다하면 슬픔이 오고 괴로움이 다하면 즐거움이 온다고 하였는데 하늘이 어찌 어진 사람을 곤궁 속에 던져두시겠는가.' 하늘이 던져두실 리가 없다고 서술자가 생각하는거죠..
- + 이처럼 편집자적 논평과 설의적 표현은 고전문학 지문에서 정말 자주 나오니까 지문 읽으면서 설의적 표현 나오면 항상 평서형으로 바꿔서 그 표현의도를 해석해보는 습관을 들여놓으세요. 지문 읽으면서 '어 이거 설의적 표현이네~'하면서 스스로 그 의도를 파악해 봐야 문제 읽으면서 바로바로 기억이 나고, 그래야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답을 바로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독해 습관을 통해 사소한 곳에서 시간을 아끼고 아껴야 고난도 지문 및 문제를 읽고 풀 시간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풀이 습관 : 좋은 독해 습관을 발휘하여 지문을 읽어, 문제를 보기도 전에 이미 푼 효과를 내, 시간 아끼기]

2. 시대적 배경에 대한 요약적 설명을 통해 사건의 인과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거짓

- 그래서 어느 시대 같은데요? 아몰랑 그냥 무조건 조선? 시대적 배경을 요약적으로 설명한 표현이 없는데, 없는 것을 있다고 했으므로 틀립니다. [좋은 풀이 습관 : 없는 것을 있다고 해도 틀린 것이다]

3. 밑줄에서 경패는 상대방의 동정심에 호소해 자신의 결정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다. : 거짓

- 동정심에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패가 자신을 불쌍하게 표현하는 내용 없습니다.
- 자신의 결정을 따르도록 설득하기 위해 '옛글을 인용하였고,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설득 효과를 높였습니다.

4. 밑줄에서 경패는 설의적 물음을 구사하여 자신의 의중을 상대방에게 드러내고 있다. : 참

- 설의적 물음(선택지) = 문필을 배우지 않으면 공명을 어떻게 바라겠습니까?(지문)
[좋은 풀이 습관 : 좋은 독해 습관을 발휘하여 지문을 읽어, 문제를 보기도 전에 이미 푼 효과를 내, 시간 아끼기]

5. 떠돌아다니는 처지였던 유복이 여자 중의 군자인 경패와 부부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 참

- 떠돌아다니는 처지(선택지) = 신유복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유리걸식(지문)
- 여자 중의 군자인 경패(선택지) = 처녀 역시 여자 중의 군자(지문)
-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선택지) = 처녀가 유복과 더불어 움을 묻고 거적을 얻어 깔고 밥을 빌어다가 나눠 먹고 그 밤을 지내니, 마치 커다란 저택에서 좋은 음식을 먹은 것같이 흐뭇하였다. 그러나 깊은 정이야 어디다 비할 수 있으랴.(지문)
- + 물론, 실전에서 위처럼 꼼꼼하게 일일이 선택지와 지문을 연결해가며 문제를 풀 여유는 없을 겁니다. 하고자 하면 위처럼 할 수 있으나, 시간을 아껴야 하니 넘어가겠다는 현실적 풀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108 문법

[보기]

‘형태소’는 뜻을 가진 말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형태소는 의미의 유무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를 표시하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와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지 않고 홀로 사용될 수 있는 자립 형태소와 다른 말에 기대어 사용되는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지문]

하늘이 매우 높고 푸르다.

[문제] 주관식으로 답하기

1. 자립 형태소 개수

정답 : ()

2. 형식 형태소 개수

정답 : ()

3. 의존 형태소 개수

정답 : ()

4.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 모두 찾기

정답 : ()

5.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 모두 찾기

정답 : ()

※ 2018년 고1 6월 12번 문법 지문 참조

#108 정답 및 해설

[보기]

‘형태소’는 뜻을 가진 말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형태소는 의미의 유무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를 표시하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와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지 않고 홀로 사용될 수 있는 자립 형태소와 다른 말에 기대어 사용되는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지문]

하늘이 매우 높고 푸르다.

[현장독해]

- 워낙 잘 아는 친숙한 개념이지만, 출제자가 재정의해서 또 낚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써 놓은 글 안 읽으면 벌 줄 수도 있으니까 꼭 한번 훑어나 보자 뭐 다른 거 써놓은 거 있는지.

[좋은 독해 습관 : 친숙한 개념일수록 ‘낚시’ 없는지 긴장·겸손]

- 대상동작상태:실질 /문법:형식 /홀로:자립 /기대어:의존
- 에라아 뭐 다른 거 없었네.

- 하늘(명사) / -이(주격조사) / 매우(부사) / 높-(형용사 어간) / -고(대등적 연결어미) / 푸르-(형용사 어간) / -다(어말어미 종결어미)

[좋은 풀이 습관 : 쪼개서 원형파악]

그러면...

- 실질 : 명사 ‘하늘’, 부사 ‘매우’, 형용사 어간 ‘높-’, 형용사 어간 ‘푸르-’ 4개
- 형식 : 주격조사 ‘-이’, 연결어미 ‘-고’, 어말어미 ‘-다’ 3개
- 자립 : 명사 ‘하늘’, 부사 ‘매우’ 2개
- 의존 : 주격조사 ‘-이’, 형용사 어간 ‘높-’, 연결어미 ‘-고’, 형용사 어간 ‘푸르-’, 어말어미 ‘-다’ 5개

이거네

[좋은 풀이 습관 : 선택지로 냅다 넘어가지 말고, 보기를 보면 스스로 주관식으로 풀어본 후에 선택지 보러가기]

[정답] 1. 2개, 2. 3개 3.5개 4. 높-, 푸르- 5. -이, -고, -다

[해설] 주관식으로 답하기

1. 자립 형태소 개수 : 2개

- 명사 ‘하늘’, 부사 ‘매우’

2. 형식 형태소 개수 : 3개

- 주격조사 ‘-이’, 대등적 연결어미 ‘-고’, 어말어미 ‘-다’

3. 의존 형태소 개수 : 5개

- 주격조사 ‘-이’, 형용사 어간 ‘높-’, 연결어미 ‘-고’, 형용사 어간 ‘푸르-’, 어말어미 ‘-다’

4.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 모두 찾기 : 높-, 푸르-

- 형용사 어간 ‘높-’, 형용사 어간 ‘푸르-’

5.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 모두 찾기 : -이, -고, -다

- 주격조사 ‘-이’, 연결어미 ‘-고’, 어말어미 ‘-다’

★ 형태소 셀 때 주의 ★

- 실질 형태소 :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동사·형용사의 어간 (=어휘 형태소)
- 형식 형태소 : 접사, 조사, 어미 (=문법 형태소)
- 자립 형태소 :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 의존 형태소 : 동사·형용사의 어간, 조사, 어미, 접사

★ 디테일한 쪼개서 원형파악에 도전하자 ★

‘하늘이 매우 높고 푸르다’라는 문장에서 ‘-이’를 조사가 아니라 격조사, 나아가 ‘주격조사’라고 답하는, 그런 무섭고 훌륭한 수험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를 보면서 뭐 대충 ‘어미’이러지 마시고, ‘대등적 연결어미’가 바로 떠오를 정도로 문법 개념을 디테일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수능 ‘언매’ 영역은 어미가 아니라 ‘명사형 전성어미’, 접사가 아니라 ‘명사화 접사’를 알고 있는 학생만이 문제를 막힘없이 정확히 풀 수 있도록 출제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디테일한 쪼개서 원형파악을 해내는 것이야말로 언매 영역에서 남다른 경쟁력을 쌓는 방법입니다. 하루하루 꾸준히 훈련합시다. 파이팅

#109 비문학

[지문]

미래주의는 20세기 초 이탈리아 시인 마리네티의 '미래주의 선언'을 시작으로, 화가 발라, 조각가 보치오니, 건축가 상텔리아, 음악가 루솔로 등이 참여한 전위예술* 운동이다. 당시 산업화에 뒤처진 이탈리아는 산업화에 대한 열망과 민족적 자존감을 고양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예술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산업화의 특성인 속도와 운동에 주목하고 이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려는 미래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미래주의 화가들은 질주하는 자동차, 사람들로 북적이는 기차역, 광란의 댄스홀,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 등 활기찬 움직임 보여 주는 모습을 주요 소재로 삼아 산업 사회의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하였다. 그들은 대상의 움직임의 추이를 화폭에 담아냄으로써 대상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미래주의 화가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움직임을 하나의 화면에 표현하는 분할주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질주하고 있는 말의 다리는 4개가 아니라 20개다.'라는 미래주의 선언의 내용은, 분할주의 기법을 통해 대상의 역동성을 지향하고자 했던 미래주의 화가들의 생각을 잘 드러내고 있다.

분할주의 기법은 19세기 사진작가 머레이의 연속 사진 촬영 기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미지의 겹침, 역선(力線), 상호 침투를 통해 대상의 연속적인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먼저 이미지의 겹침은 화면에 하나의 대상을 여러 개의 이미지로 중첩시켜서 표현하는 방법이다. 마치 연속 사진처럼 화가는 움직이는 대상의 잔상을 바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움직임을 겹쳐서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힘의 선을 나타내는 역선은, 대상의 움직임의 궤적을 여러 개의 선으로 구현하는 방법이다. 미래주의 화가들은 사물이 각기 특징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다고 보고, 이를 역선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화가의 느낌을 드러내었다. 마지막으로 상호 침투는 대상과 대상이 겹쳐서 보이게 하는 방법이다. 역선을 사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나타내면 대상이 다른 대상이나 배경과 구분이 모호해지는 상호 침투가 발생해 대상이 사실적인 형태보다는 왜곡된 형태로 표현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래주의 화가들은 움직이는 대상의 속도와 운동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기존의 전통적인 서양 회화가 대상의 고정적인 모습에 주목하여 비례, 통일, 조화 등을 아름다움의 요소로 보았다면, 미래주의 회화는 움직이는 대상의 속도와 운동이라는 미적 가치에 주목하여 새로운 미의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미래주의 회화는 이후 모빌과 같이 나무나 금속으로 만들어 입체적 조형물의 운동을 보여 주는 키네틱 아트가 등장하는 데 **영감**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위예술 : 기존의 표현 예술 형식을 부정하고 새로운 표현을 추구하는 예술 경향.

[문제] 둘 중 밑줄의 구체적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통 회화 양식에서 벗어나 움직이는 대상이 주는 아름다움을 최초로 작품화하려는 생각
- ② 기존의 방식과 달리 미적 가치를 3차원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대상을 통해 구현하려는 생각

[정답] : (① / ②)

#109 정답 및 해설

[지문]

미래주의는 20세기 초 이탈리아 시인 마리네티의 '미래주의 선언'을 시작으로, 화가 발라, 조각가 보치오니, 건축가 상텔리아, 음악가 루솔로 등이 참여한 전위예술* 운동이다. 당시 산업화에 뒤처진 이탈리아는 산업화에 대한 열망과 민족적 자존감을 고양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예술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산업화의 특성인 속도와 운동에 주목하고 이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려는 미래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미래주의 화가들은 질주하는 자동차, 사람들로 북적이는 기차역, 광란의 댄스홀,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 등 활기찬 움직임을 보여 주는 모습을 주요 소재로 삼아 산업 사회의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하였다. 그들은 대상의 움직임의 추이를 화폭에 담아냄으로써 대상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미래주의 화가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움직임을 하나의 화면에 표현하는 분할주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질주하고 있는 말의 다리는 4개가 아니라 20개다.'라는 미래주의 선언의 내용은, 분할주의 기법을 통해 대상의 역동성을 지향하고자 했던 미래주의 화가들의 생각을 잘 드러내고 있다.

분할주의 기법은 19세기 사진작가 머레이의 연속 사진 촬영 기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미지의 겹침, 역선(力線), 상호 침투를 통해 대상의 연속적인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먼저 이미지의 겹침은 화면에 하나의 대상을 여러 개의 이미지로 중첩시켜서 표현하는 방법이다. 마치 연속 사진처럼 화가는 움직이는 대상의 잔상을 바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움직임을 겹쳐서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힘의 선을 나타내는 역선은, 대상의 움직임의 궤적을 여러 개의 선으로 구현하는 방법이다. 미래주의 화가들은 사물이 각기 특징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다고 보고, 이를 역선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화가의 느낌을 드러내었다. 마지막으로 상호 침투는 대상과 대상이 겹쳐서 보이게 하는 방법이다. 역선을 사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나타내면 대상이 다른 대상이나 배경과 구분이 모호해지는 상호 침투가 발생해 대상이 사실적인 형태보다는 왜곡된 형태로 표현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래주의 화가들은 움직이는 대상의 속도와 운동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기존의 전통적인 서양 회화가 대상의 고정적인 모습에 주목하여 비례, 통일, 조화 등을 아름다움의 요소로 보았다면, 미래주의 회화는 움직이는 대상의 속도와 운동이라는 미적 가치에 주목하여 새로운 미의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미래주의 회화는 이후 모빌과 같이 나무나 금속으로 만들어 입체적 조형물의 운동을 보여 주는 키네틱 아트가 등장하는 데 영감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위예술 : 기존의 표현 예술 형식을 부정하고 새로운 표현을 추구하는 예술 경향.

[현장독해]

- 기존 표현 예술 형식(A) vs 전위예술(B) = 새로운 표현 추구

[좋은 독해 습관 : *어휘 풀이 알아도 보기]

[좋은 독해 습관 : 차이점이 있는 두 대상 다른 그룹으로 나누기]

- 미래주의 예술 = 전위예술(B). 속도 운동 주목. 산업화 열망 자존감 고취 목적

[좋은 독해 습관 : 키워드 파악. 문단 핵심 정리]

- 질주, 기차, 광란의 댄스, 공장, 활기찬 움직임 이런 것들이 1문단의 속도랑 운동이네. B그룹이네.

[좋은 독해 습관 : 앞문단 내용과 비슷한 표현들 그룹짓기]

- 움직임 = 운동 -> 생동감 B그룹.

[좋은 독해 습관 : 앞문단 내용과 비슷한 표현들 그룹짓기]

- '분할주의'로 키워드 바뀌는 듯?

[좋은 독해 습관 : 키워드 변화 파악]

- 다리가 4개가 아니라 5배인 20개라는 건 한 화면 안에 말이 5번 다리를 움직인 걸 표현한다는 뜻인 듯?

[좋은 독해 습관 : 표현의 의미 스스로 생각해보고 넘어가기]

- 역동성 = 생동감 = 운동 = 움직임 다 같은 B 미래주의 그룹

[좋은 독해 습관 : 앞문단 내용과 비슷한 표현들 그룹짓기]

- '연속적인 움직임' 이걸 한 화면에 담는다는거지

- 이미지 겹침(1) = 중첩, 잔상

- 역선(2) = 궤적을 여러 개의 선으로.

- 역선으로 화가의 느낌을 드러냄

- 상호 침투도 겹침이야? 아 이미지 겹침은 한 대상의 여러 이미지를 겹치는거고, 상호 침투는 여러 대상의 이미지를 하나로 겹치는 차이가 있는 듯? [좋은 독해 습관 : 차이점 생각해보기]

- 역선 사용 -> 상호 침투 [좋은 독해 습관 : 인과관계 파악]

- 속도와 운동을 나타내는 표현기법 3가지 공통점 차이점 설명했네. 3개 비교하는거 문제 낼 듯 [좋은 독해 습관 : 출제 예상]

- 전통 서양 회화 (A) vs 미래주의 회화(B)

- 고정, 비례, 통일, 조화(A) vs 움직임, 속도, 운동(B)

[좋은 독해 습관 : 앞문단 내용과 비슷한 표현들 그룹짓기]

vs 모빌, 입체적 조형물 = 키네틱 아트(C) : 운동은 미래주의 회화(B)랑 비슷한데 입체라는게 다르네. 키네틱(kinetic)이 운동이란 뜻이었지 아냐. [좋은 독해 습관 : 차이점 생각해보기]

[좋은 기초 상식 : 영어 잘해야 국어도 잘한다]

- 그니까 미래주의 회화(B)에 영감을 받아서 모빌같은 입체적 조형물(C)이 나왔다는거네.

[좋은 독해 습관 : 밑줄 의미 읽으면서 생각]

[정답] : ②

[문제] 둘 중 밑줄의 구체적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전통 회화 양식에서 벗어나 움직이는 대상이 주는 아름다움을 최초로 작품화하려는 생각

② 기존의 방식과 달리 미적 가치를 3차원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대상을 통해 구현하려는 생각

[현장독해]

- 미래주의 예술이 영감을 줘서 키네틱 아트가 등장했다는 거네. 전통 서양 회화는 고정되어 있었는데, 미래주의 회화는 움직임을 그려냈고, 이 움직임에 영감을 받아서 나온 게 바로 키네틱 아트라는 거지.

[좋은 풀이 습관 : 선택지로 넓다 넘어가지 말고 문제의 정답을 주관식 서술형으로 스스로 생각해본 후 선택지 볼 것]

① 전통 회화 양식에서 벗어나 움직이는 대상이 주는 아름다움을 최초로 작품화하려는 생각

- 전통 회화 양식(선택지) = 전통 서양 회화 = 기존 표현 예술 형식 = 고정, 비례, 통일, 조화 다 같은 그룹(지문, A그룹)에 속한 표현들입니다.

- 전통에서 벗어나 움직이는 대상이 주는 아름다움을 최초로 작품화하려고 생각(선택지) = 미래주의 예술(지문, B그룹)

[좋은 풀이 습관 : 선택지 표현과 유사한 지문 표현 생각]

- 밑줄의 영감은 '키네틱 아트'가 등장하는 데 영감을 제공한 것을 찾으라고 한 것이지, 미래주의 예술이 등장하는 데 영감을 제공한 것을 찾는 게 아니므로 ①은 아니네요.

② 기존의 방식과 달리 미적 가치를 3차원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대상을 통해 구현하려는 생각

- 제가 이 선택지를 보기 전에 워처럼 현장독해로 생각해봤던 내용과 선택지 표현이 거의 유사하네요. 심지어 지문 읽으면서 키네틱 아트(C)와 미래주의 예술(B)에 대해 생각해본 것보다 선택지 표현이 유사하구요. 이처럼 내가 정답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투박한 표현이 출제자의 엄밀한 표현으로 비슷하게 나온다면, 이 문제를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겠죠.

- 미적 가치를 3차원에서(선택지) = 입체적(지문). 입체가 3D, 3차원이죠. 상식이자 수학입니다. 입체적이라는 표현이 3차원이라는 기초 상식조차 없으면 틀리는 문제입니다.

[좋은 기초 상식 : 입체 = 3D = 3차원]

- 3차원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대상(선택지) = 키네틱 아트(지문, C그룹)이니, 기존의 방식(선택지) = 미래주의 예술(B그룹) 혹은 전통 회화(A그룹)이겠네요.

[좋은 풀이 습관 : 선택지 표현과 유사한 지문 표현 생각]

#110 문학

[지문]

(가)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닷말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 엄마야 울 엄마,

별 받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마의 마음은 어떡했을까,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 박재삼, 「추억에서」 -

(나)

죽장의 김삿갓은 죽고
참빗으로 이 잡던 시절도 가고
대바구니 전성 시절에

새벽 서리 밟으며 어머니는 바구니 한 줄 이고 장에 가시고 고
구마로 점심 때운 뒤 기다리는 오후, 너무 심심해 아홉 살 내가
두 살 터울 동생 손 잡고 신작로를 따라 마중갔었다. 이십 리가
짱짱한 길, 버스는 하루에 두어 번 다녔지만 꼬박꼬박 걸어오셨으
므로 가다보면 도중에 만나겠지 생각하며 낯선 아줌마에게 길도
물어가면서 하염없이…… 그런데 이 고개만 넘으면 읍이라는 곳에
서 해가 덜렁 졌다. 배는 고프고 으스스 무서워져 한참 망설이다
가 되짚어 돌아오는 길은 한없이 멀고 캄캄 어둠에 동생은 울고
기진맥진 한밤중에야 호롱 들고 찾아나선 어머니를 만났다. — 어
머니는 그날 따라 버스로 오시고

아, 요즘도 장날이면
허리 굽은 어머니
플라스틱에 밀려 시세도 없는 대바구니 옆에 쭈그려앉아
멀거니 팔리기를 기다리는
담양장.

- 최두석, 「담양장」 -

[문제] (가)와 (나)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한 어미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주고 있다.
- ② 역설법을 활용하여 내면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자조적인 어조를 사용하여 시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⑤ 수미상관의 기법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가는 국어

#110 정답 및 해설

[지문]

(가)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닷말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 엄마야 울 엄마,

별 발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마의 마음은 어떡했을꼬,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 박재삼, 「추억에서」 -

(나)

죽장의 김삿갓은 죽고
참빗으로 이 잡던 시절도 가고
대바구니 전성 시절에

새벽 서리 밟으며 어머니는 바구니 한 줄 이고 장에 가시고 고구마로 점심 때운 뒤 기다리는 오후, 너무 심심해 아홉 살 내가 두 살 터울 동생 손 잡고 신작로를 따라 마중갔었다. 이십 리가 짱짱한 길, 버스는 하루에 두어 번 다녔지만 꼬박꼬박 걸어오셨으므로 가다보면 도중에 만나겠지 생각하며 낯선 아줌마에게 길도 물어가면서 하염없이…… 그런데 이 고개만 넘으면 읍이라는 곳에서 해가 덜렁 졌다. 배는 고프고 으스스 무서워져 한참 망설이다가 되짚어 돌아오는 길은 한없이 멀고 캄캄 어둠에 동생은 울고 기진맥진 한밤중에야 호롱 들고 찾아나선 어머니를 만났다. — 어머니는 그날 따라 버스로 오시고

아, 요즘도 장날이면
허리 굽은 어머니
플라스틱에 밀려 시세도 없는 대바구니 옆에 쭈그려앉아
멀거니 팔리기를 기다리는
담양장.

- 최두석, 「담양장」 -

[현장독해]

- 물고기 팔리는 시장. 구체적 지명 썼네. 저녁 장사 끝나갈 시간 인듯

[좋은 독해 습관 : 연 단위로 끊어서 상황파악]

- 엄마가 시장에서 고기 장사하고 계시나보네. 남은 고기들 눈이 빛나는 게 은 동전 같다는 거고. 눈깔들 보고 한이라고 추측하는거 보니 엄마 안쓰러워하는 듯.

[좋은 독해 습관 : 연 단위로 끊어서 상황파악]

- 엄마 장사하러 나간 동안 오누이는 방에서 추워가지고 떨고 있나보네.

[좋은 독해 습관 : 연 단위로 끊어서 상황파악]

- 엄마가 진주 남강을 새벽이나 밤에만 볼 정도로 일찍 일하고 늦게 일끝나나 보네. 엄마ㅠㅠ

[좋은 독해 습관 : 종결어미 단위로 끊어서 상황파악]

- 엄마의 마음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인다면... 슬프다?정도 2연에서 한이라고 했으니까

[좋은 독해 습관 : 앞에 나온 내용을 뒤 내용과 연결해 읽기]

- 어쨌든 옛날 옛적에

[좋은 독해 습관 : 연 단위로 끊어서 상황파악]

- [추억에서] 어머니랑 비슷하게 장사하시며 고생하시네

- 여기 화자는 방에 있지는 않고 마중나갔네

[좋은 독해 습관 : 앞 지문과 뒤 지문을 연결해가며 읽기]

- 헐. 해 져서 길 잃겠네.

- 집나가서 개고생. 어머니 안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게 했네.

[좋은 독해 습관 : 종결어미 단위로 끊어서 상황파악]

- 어머니님이 버스타서 엇갈렸나봄

- 어머니 여전히 장사하고 계시네.

- 제목 '담양장' 의미가 시장이었구나.

[좋은 독해 습관 : 제목과 지문 표현 연관지어 읽기]

[정답 및 해설] : ①번

① 동일한 어미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주고 있다.

- 일단 (나)는 1연에 1행 '~죽고', 2행 '~가고'. (가)는 '~던가' 자주 썼었죠. 동일 어미 반복 맞네요.
- 동일한 어미를 '반복'하면 리듬감은 형성되죠. 정답.

[좋은 풀이 습관 : 선택지의 표현에 해당하는 지문 표현 떠올려보기]

② 역설법을 활용하여 내면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 '역설법'은 표면적으로는 모순되거나 부조리한 것 같지만 그 표면적인 진술 너머에서 진실을 드러내는 수사법입니다. 이런 표현 없었습니다. 역설 비스무리한 표현도 없었습니다. [좋은 풀이 습관 : 없는 것을 있다고 해도 틀린 진술이다]

③ 자조적인 어조를 사용하여 시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자조'란 자기를 비웃는다는 건데요. 스스로를 비웃는 표현은 (가)(나)에 없었습니다.(다수론) 그런데 이 ③번을 실제 정답인 ①번보다 많은 30% 학생들이 정답이라고 답했습니다.
- + 과거에 고생하시며 화자를 키워주셨던 어머니의 책임감 있는 어른의 모습이 어린 화자의 모습과 대비가 되어 있죠. 특히 화자가 커서 어른이 된 후에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런 화자 입장에서는 어렸던 시절의 자신이 철없어 보이고 한 없이 모자라 보이고 했겠죠. '아 그땐 내가 참 어렸고, 어머니가 고생 참 많이 하셨었지' 정도가 화자의 생각입니다. 즉, 고생하셨던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과 감사함, 어렸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사고나 쳐서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게 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 정도의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스스로를 비웃고 있는지, 스스로를 비웃고 있는 표현이 나왔는지를 따져보면 이걸 좀 '과한' 것 같다는 느낌을 외면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 선택지를 (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무리하게 생각하면서 합리화하려다가, 스스로도 '쓰으으음..... 오반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걸 외면하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멈추셔야 합니다. 문학에서 애매한 선택지는 절대 정답은 아니니까요. 일단 △치고 넘어가서 더 확실한 정답을 찾아보려고 시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지들 다 정답이 아니거나 애매하므로 △치고 다시 ①번을 한번 더 보시면서 확실한 표현을 찾아서 정답으로 찍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풀이 습관 : 생각을 해보다가 자신이 너무 오바하고 무리하고 있다는 찝찝한 느낌이 들면, 선불리 정답으로 고르지 말고 일단 해당 선지를 세모(△)치고 다음 선지를 판단하러 넘어간다]

④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 없었다. 끝(다수론) 그런데. 정답이 ④번이라고 답한 학생들이 ①번 찍은 학생들만큼 있었습니다. (가)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 이거 '손 안 닿'으니까 '촉각'이고, '은전' 오케이 은색 '시각'이고, 촉각의 시각화다. (나)에 '멀고 캄캄 어둠에 동생은 울고', '캄캄 시각'에 '울고 청각'. (가)(나)에 다 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 공감각적 이미지 주의 ★

- 공감각적 이미지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의 감각 중 하나의 감각적 이미지에서 다른 감각적 이미지로 변해서(전이되어) 표현되어야 나타납니다. '푸른 종소리'는 어쨌든 '소리'니까 청각인데, 이 청각을 '푸른'이라는 시각으로 표현했으니 '청각의 시각화'라는 공감각적 이미지입니다.
- 돌아가서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 '한'은 애초에 감각적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 개념이라서 이게 시각이다 촉각이다 청각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감각적 이미지 자체가 틀려서 공감각적 이미지는 아닙니다. 추상적 이미지죠.
- '멀고 캄캄 어둠에 동생은 울고' 이걸 '복합감각적 이미지'이지 '공감각적 이미지'는 아닙니다. '복합감각적 이미지'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 다양한 감각이 '전이'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감각이 단순히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대상인 한 감각이 있는데, 이 감각을 다른 감각을 사용하여 표현해야 '공감각적 이미지'입니다.

⑤ 수미상관의 기법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가) (나) 둘다 첫 연과 마지막 연이 '다시 반복'되었다고 할 정도로 비슷하지 않습니다.

#111 문법

[보기]

선어말 어미 '-더-'는 시간 표현, 주어의 인칭, 용언의 품사, 문장 종결 표현 등과 다양하게 관련을 맺는다.

예컨대 '아까 달력을 보니 내일이 언니 생일이더라.'와 같이 ㉠ 새삼스럽거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비록 미래의 일이라도 그것을 안 시점이 과거이면 '-더-'가 쓰일 수 있다. 또한 '-더-'가 쓰인 문장에는 특정 인칭의 주어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가령, ㉡ 본인만이 직접 느껴 알 수 있는 감정이나 감각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서술어일 때, 평서문에는 1인칭 주어만이 '-더-'와 함께 쓰인다. ㉢이 경우, 의문문에는 2인칭 주어만이 '-더-'와 함께 쓰인다. 단, ㉣이때도 수사 의문문에는 '-더-'와 함께 1인칭 주어가 나타날 수 있다. 한편, '꿈에서 내가 하늘을 날더라.'처럼 ㉤꿈속의 일이나 무의식중에 일어난 일을 말할 때, 화자가 자신의 행동이나 상태를 타인이 관찰하듯이 진술할 경우 '-더-'가 1인칭 주어와 쓰일 수 있다.

[문제] <보기>의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아까 수첩을 보니 다음 주에 약속이 있더라.
- ② ㉡ : 나는 그의 합격이 놀랍더라.
- ③ ㉢ : 영수야, 넌 내가 그리 말했는데도 안 밉더냐?
- ④ ㉣ : 기어이 우승한 그날, 우리 어찌 아니 기쁘더냐?
- ⑤ ㉤ : 내가 어제 마신 약은 생각보다 안 쓰더라.

※ 2019학년도 2018년 고3 6월 15번 문법 지문 참조

#111 문법

[보기]

선어말 어미 '-더-'는 시간 표현, 주어의 인칭, 용언의 품사, 문장 종결 표현 등과 다양하게 관련을 맺는다.

예컨대 '아까 달력을 보니 내일이 언니 생일이더라.'와 같이 ㉠ 새삼스럽거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비록 미래의 일이라도 그것을 안 시점이 과거이면 '-더-'가 쓰일 수 있다. 또한 '-더-'가 쓰인 문장에는 특정 인칭의 주어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가령, ㉡ 본인만이 직접 느껴 알 수 있는 감정이나 감각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서술어일 때, 평서문에는 1인칭 주어만이 '-더-'와 함께 쓰인다. ㉢이 경우, 의문문에는 2인칭 주어만이 '-더-'와 함께 쓰인다. 단, ㉣이때도 수사 의문문에는 '-더-'와 함께 1인칭 주어가 나타날 수 있다. 한편, '꿈에서 내가 하늘을 날더라.'처럼 ㉤꿈속의 일이나 무의식중에 일어난 일을 말할 때, 화자가 자신의 행동이나 상태를 타인이 관찰하듯이 진술할 경우 '-더-'가 1인칭 주어와 쓰일 수 있다.

[문제] <보기>의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아까 수첩을 보니 다음 주에 약속이 있더라.
- ② ㉡ : 나는 그의 합격이 놀랍더라.
- ③ ㉢ : 영수야, 넌 내가 그리 말했는데도 안 밉더냐?
- ④ ㉣ : 기어이 우승한 그날, 우리 어찌 아니 기쁘더냐?
- ⑤ ㉤ : 내가 어제 마신 약은 생각보다 안 쓰더라.

[현장독해] [정답 및 해설] ㉤번

- ㉠ ㉠번 '아까 수첩을 보니 다음 주에 약속이 있더라.'에서 '다음 주에 약속이 있더라'(선택지)가 '미래의 일'(보기), '아까 수첩을 보니'(선택지)가 '안 시점이 과거'(보기). 그래서 '있더라'(선택지) [좋은 풀이 습관 : 보기-선택지 연결]
 - ㉡ ㉡번 '나는 그의 합격이 놀랍더라.'에서 '놀랍더라'(선택지)가 직접 느껴 알 수 있는 감정 표현 형용사 서술어(보기). 1인칭 주어(보기) 나는(선택지)
 - ㉢ '이 경우'(보기)는 '본인 감정 형용사가 서술어'(보기)고, ㉢번 '밉더냐?(선택지)'가 본인 감정 형용사 서술어에 의문문(보기)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앞 뒤 연결해가며 읽기]
 - ㉣ ㉣번 '어찌 아니 기쁘더냐?(선택지) 설의적 표현 = 수사 의문문(보기). '우리'(선택지)가 1인칭 주어 복수형(보기).
 - ㉤ ㉤번 '내가 어제 마신 약은 생각보다 안 쓰더라.' 이게 꿈속의 일이나 무의식중에 일어난 일(보기)이 아니니 틀렸네. 정답 ㉤번.
- + ㉤번은 ㉣에 속하지. '쓰더라'(선택지)가 본인 감정 형용사 서술어 평서문(보기) [좋은 풀이 습관 : 보기-선택지 연결]

* 것처럼 푸는 게 결국 눈알 굴리기 아닌가요?

- 제가 알고 눈알 굴리란 '선택지'를 먼저 보고 '지문'을 보면서 푸는 것인데요. 이렇게 풀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실까봐 제 사고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일단 [보기]의 ㉠을 먼저 읽습니다. 그 후 ㉡을 보는 게 아니라 선택지 ㉠번을 보면서 [보기]-㉠번 선택지를 비교해가며 보는 것입니다. 지문을 읽고 지문에 해당하는 선택지를 먼저 본다는 점에서 눈알 굴리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아니 선택지를 최대한 늦게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라면서요?

- [보기] 먼저 다 읽고, 스스로 [보기]의 출제요소나 출제자의 함정을 생각해보고, 주관식으로 풀이 보고, 그렇게 정답의 기준을 스스로 잡은 후, 선택지 보러 가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렇게 푸셔도 됩니다. [보기] 쪽 읽고 그다음 문제의 선택지 문장 보면서 푸셔도 되는데요.

- 보통 [보기] 읽으러 가는 도중, 아래 선택지 형태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건 ㉠이고 ㉡의 예시인 ㉠번 바로 보면서 정답 판단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나는 분들이 계실 거구요. 물론 이런 생각이 안 나셨어도 괜찮아요. 정석대로 대원칙대로 푸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센스'의 영역이니까요. 중요한 건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굳이 여기서 아 이걸 이렇게 풀까? 원칙을 지킬까? 너무 많이 고민하진 마세요. 오히려 그 고민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흐름을 끊어 놓으니까요. 두 풀이 방식 중 어느 것이 먼저 떠올랐든지 간에 떠올랐고, 괜찮아 보이면, 문제없어 보이면 그렇게 푸셔도 됩니다. 국어 시험에서 중요한 건 막힘없이 물 흐르듯 가면서 평정심을 유지하여 자신이 하루 하루 갈고 닦은 국어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겁니다. 중간에 흔들리고 말리고 멈추는 순간을 최대한 줄이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려는 순간에 호흡을 하며 하루하루 연습해왔던 좋은 습관을 지켜나가려고 스스로를 다잡아야 국어 시험을 안 망칠 수 있습니다.

#112 비문학

[지문]

마르크스는 사물의 경제적 가치를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구분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교환가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사용가치는 사물의 기능적 가치를, 교환가치는 시장 거래를 통해 부여된 가치를 의미하는데 사물 자체의 유용성은 고정적이므로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경제적 가치가 결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사물의 거래 가격은 결국 사물의 생산 비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소비를 생산에 종속된 현상으로 보고 소비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마르크스의 이러한 주장과 달리 보드리야르는 교환가치가 아닌 사용가치가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며, 자본주의 사회는 소비 우위의 사회라고 주장했다. 이때 보드리야르가 제시한 사용가치는 사물 자체의 유용성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욕망의 대상으로서 기호(sign)가 지니는 기능적 가치, 즉 기호가치를 의미한다.

기호는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상징으로서 문자나 음성같이 감각으로 지각되는 기표와 의미 내용인 기의로 구성되는데,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자의적이다. 가령 '남성'이란 문자는 필연적으로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며 '여성'이란 기호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 내용이 결정된다. 다시 말해, 어떤 기호의 의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아니라 기호들 간의 관계, 즉 기호 체계이다.

[A]보드리야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량 생산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소비자가 기호가치 때문에 사물을 소비한다고 보았다. 대량 생산 기술의 발전으로 수요를 충족하고 남은 만큼의 공급이 이루어져 사물 자체의 유용성은 더 이상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의 일원이라는 상징을 얻기 위해 명품 가방을 소비한다. 이때 사물은 소비자가 속하고 싶은 집단과 다른 집단 간의 차이를 부각하는 기호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보드리야르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의 원인은 사물이 상징하는 특정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욕구이다.

보드리야르는 현대인이 자연 발생적인 욕구에 따라 자유롭게 소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강제된 욕구에 따르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는 기호가 다른 기호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 내용이 결정되는 것과 관계된다. 특정 사물의 상징은 기호 체계, 즉 사회적 상징체계 속에서 유동적이며, 따라서 상징체계 변화에 따라 욕구도 유동적이다. 이때 대중매체는 사물의 기의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욕구를 강제할 수 있다. 현실이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될 때 현실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기호와 조합될 수 있는 기호로서 추상화되기 때문이다. 가령 텔레비전 속 유명 연예인이 소비하는 사물은 유명 연예인이라는 기호에 의해 새로운 의미 내용이 부여된다. 요컨대 특정 사물에 대한 현대인의 욕망은 대중매체를 매개로 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강제된다.

보드리야르는 기술 문명이 초래한 사물의 풍요 속에서 현대인의 일상생활이 사물의 기호가치와 이에 대한 소비에 의해 규정된다고 보고 자본주의 사회를 소비사회로 명명하였다. 그의 이론은 소비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문제] 1번. 기호 체계를 바탕으로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물은 기표로서의 추상성과 기의로서의 구체성을 갖는다.
- ② 사물과 그것이 상징하는 특정한 사회적 지위와의 관계는 자의적이다.
- ③ 사물은 사물 자체가 아닌 사물 간의 관계를 통해 의미 내용이 결정된다.
- ④ 소비는 사물이라는 기호를 통해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의 일원이라는 상징을 얻는 행위이다.
- ⑤ 기호가치는 사물의 기의와 그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와 관련될 뿐 사물의 기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2번. 윗글의 '보드리야르'의 관점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개성이란 타인과 구별되는 개인만의 고유한 특성으로, 현대 사회의 개인은 개성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고유함을 드러내려 한다. 이때 사물은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다. 찢어진 청바지를 입는 것, 타투나 피어싱을 하는 것은 사물을 통한 개성 추구의 사례이다. 이런 점에서 '당신의 삶에 차이를 만듭니다'와 같은 광고 문구는 개성에 대한 현대인의 지향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① 타인과 구별되는 개성이란 개인이 소속되길 바라는 집단의 차별화된 속성일 수 있겠군.
- ② 소비사회에서 사물을 통한 개성의 추구는 그 사물의 기호가치에 대한 욕구에서 비롯되겠군.
- ③ 찢어진 청바지는 개인만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는 수단이자 젊은 세대의 일원이라는 기호를 상징하는 것일 수 있겠군.
- ④ '당신의 삶에 차이를 만듭니다'라는 광고 문구는 그 광고의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사회적 차이를 드러내고 싶다는 욕구를 강제하는 것일 수 있겠군.
- ⑤ 타투나 피어싱을 한 유명 연예인을 텔레비전에서 보고, 이를 따라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은 대중매체를 매개로 하여 추상화된 기호를 소비하는 것일 수 있겠군.

#112 정답 및 해설

[지문]

마르크스는 사물의 경제적 가치를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구분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교환가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사용가치는 사물의 기능적 가치를, 교환가치는 시장 거래를 통해 부여된 가치를 의미하는데 사물 자체의 유용성은 고정적이므로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경제적 가치가 결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사물의 거래 가격은 결국 사물의 생산 비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소비를 생산에 종속된 현상으로 보고 소비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마르크스의 이러한 주장과 달리 보드리야르는 교환가치가 아닌 사용가치가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며, 자본주의 사회는 소비 우위의 사회라고 주장했다. 이때 보드리야르가 제시한 사용가치는 사물 자체의 유용성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욕망의 대상으로서 기호(sign)가 지니는 기능적 가치, 즉 기호가치를 의미한다.

기호는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상징으로서 문자나 음성같이 감각으로 지각되는 기표와 의미 내용인 기의로 구성되는데,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자의적이다. 가령 '남성'이란 문자는 필연적으로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며 '여성'이란 기호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 내용이 결정된다. 다시 말해, 어떤 기호의 의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아니라 기호들 간의 관계, 즉 기호 체계이다.

[현장독해]

- 사용가치 vs 교환가치. 경제적 가치는 교환가치에 의해 결정
[좋은 독해 습관 : 차이나는 집단 구분짓기]
- 기능적 가치 = 사용가치, 거래를 통해 부여된 가치 = 교환가치
- 사물 자체의 유용성 = 기능적 가치 = 사용가치 = 고정적.
-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 시장 거래를 통해 부여된 가치 = 교환가치 [좋은 독해 습관 : 비슷한 표현 연결해 같은 그룹화]
- 거래 가격은 생산 비용에 의해 결정. 그니까 생산 비용이 비싸면 가격이 비싸지니 소비 못하는 사람도 생기니까. 소비는 생산에 종속. 소비 자율성은 없다.
[좋은 독해 습관 : 표현의 의미를 스스로 떠올려 보기]
- 마르크스 vs 보드리야르 = 사용가치, 소비 우위. 마르크스랑 완전 반대. [좋은 독해 습관 : 차이나는 집단 구분짓기]
- 사용가치가 1문단처럼 유용성이 아니라 욕망의 대상인 '기호'라고 재정의했네. 기호가 선호(preference)가 아니라 'sign'이라고 굳이 적은 걸 보니 뭐 걸로 보이는 기호, 표현이 중요한 듯. [좋은 독해 습관 : 일상, 기존과 달리 재정의된 표현 주의]
- 감각으로 지각되는 기표 vs 의미 내용, 즉 감각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지각되는 기의[좋은 독해 습관 : 차이점 기준으로 구분]
- 기표와 기의 관계는 자의적. 자의적이라는게 항상 모두에게 일관되는게 아니라 제멋대로라는 건데,
- '남성'이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성'이라는 기호가 함께 있어야 '남성' '여성'이라는 기호의 의미 내용 즉 기의가 결정된다는 게 기호 체계. 관계에 주목하는.
[좋은 독해 습관 : 표현의 의미가 잘 이해 안 되면, 그 의미를 스스로 좀 더 생각해보기]

[A]보드리야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량 생산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소비자가 기호가치 때문에 사물을 소비한다고 보았다. 대량 생산 기술의 발전으로 수요를 충족하고 남은 만큼의 공급이 이루어져 사물 자체의 유용성은 더 이상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의 일원이라는 상징을 얻기 위해 명품 가방을 소비한다. 이때 사물은 소비자가 속하고 싶은 집단과 다른 집단 간의 차이를 부각하는 기호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보드리야르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의 원인은 사물이 상징하는 특정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욕구이다.

보드리야르는 현대인이 자연 발생적인 욕구에 따라 자유롭게 소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강제된 욕구에 따르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는 기호가 다른 기호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 내용이 결정되는 것과 관계된다. 특정 사물의 상징은 기호 체계, 즉 사회적 상징체계 속에서 유동적이며, 따라서 상징체계 변화에 따라 욕구도 유동적이다. 이때 대중매체는 사물의 기의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욕구를 강제할 수 있다. 현실이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될 때 현실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기호와 조합될 수 있는 기호로서 추상화되기 때문이다. 가령 텔레비전 속 유명 연예인이 소비하는 사물은 유명 연예인이라는 기호에 의해 새로운 의미 내용이 부여된다. 요컨대 특정 사물에 대한 현대인의 욕망은 대중매체를 매개로 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강제된다.

보드리야르는 기술 문명이 초래한 사물의 풍요 속에서 현대인의 일상생활이 사물의 기호가치와 이에 대한 소비에 의해 규정된다고 보고 자본주의 사회를 소비사회로 명명하였다. 그의 이론은 소비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장독해]

- 소비자는 기호가치 때문에 소비한다.
- 유용성으로서의 사용가치는 영향 못 끼침.
- 명품이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음을 상징하는 sign(2문단)
[좋은 독해 습관 : 앞 문단 표현을 뒤 문단 예시 이해에 활용]
- 사물이 상징하는 특정 사회적 지위 = sign. 나 명품 들었어. 이 명품은 내가 부자 집단이라는 걸 부각하는 sign.
- 자유 vs 강제된
- 3문단 '기호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 내용이 결정'이란 비슷한 말이고.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앞뒤 연결해 읽기]
- 특정 사물 명품의 상징은 캐나소나 대부분의 명품 차면 더 이상 명품이 부자 집단의 일원이라는 sign을 못 준다.
[좋은 독해 습관 : 앞 문단 예시를 뒤 문단 지문 이해에 활용]
- 대중매체가 강제 가능.
- 기존의 명품 말고, 연예인이 소비하는 사물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는. [좋은 독해 습관 : 앞에 예시를 뒤의 지문 이해에 활용]
- 유용성보다는 소비를 통해 주변에 sign을 보내고 싶어하는 것이 소비사회

[문제] 1번. 기호 체계를 바탕으로 밑줄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물은 기표로서의 추상성과 기의로서의 구체성을 갖는다.
- ② 사물과 그것이 상징하는 특정한 사회적 지위와의 관계는 자의적이다.
- ③ 사물은 사물 자체가 아닌 사물 간의 관계를 통해 의미 내용이 결정된다.
- ④ 소비는 사물이라는 기호를 통해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의 일원이라는 상징을 얻는 행위이다.
- ⑤ 기호가치는 사물의 기의와 그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와 관련될 뿐 사물의 기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번

[현장 풀이]

- ① 기표는 추상성이 아니라 감각 쪽이지, 기의는 의미 내용이니까 차라리 애가 추상성이지. 틀린 진술이라 정답 ①번.
- ② '그것' = '사물'이 상징하는 특정한 사회적 지위가 바로 '기의'지.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자의적이라고 했고.

- ③ 3문단에서 어떤 기호의 의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아니라 '기호들 간의 관계'라고 하니까.

+ 근데 '사물'이 '기호'인가....? 애매한데 일단 **△치고 넘어가자.**

[좋은 풀이 습관 : 애매한 것은 **△치고 넘어가기**]

- ④ 4문단 [A]에서 소비자는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의 일원이라는 상징을 얻기 위해 '명품 가방'을 소비.

+ 사물이라는 기호라고 ④번에서 얘기해줬네. ③④가 동시에 틀릴 리는 없으니까 둘 다 맞겠네. 사물=기호.

[좋은 풀이 습관 : 5지선다 문제에서 정답이 2개일 리 없으므로, 일단 같은 말 하는 선지들 말고 다른 선지에서 정답 찾기]

- ⑤ 3문단에서 어떤 기호의 의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아니라 '기호들 간의 관계'라고 하니까.

[좋은 풀이 습관 : 선택지-지문 동어반복]

[문제] 2번. 윗글의 '보드리야르'의 관점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개성이란 타인과 구별되는 개인만의 고유한 특성으로, 현대 사회의 개인은 개성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고유함을 드러내려 한다. 이때 사물은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다. 찢어진 청바지를 입는 것, 타투나 피어싱을 하는 것은 사물을 통한 개성 추구의 사례이다. 이런 점에서 '당신의 삶에 차이를 만듭니다'와 같은 광고 문구는 개성에 대한 현대인의 지향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① 타인과 구별되는 개성이란 개인이 소속되길 바라는 집단의 차별화된 속성일 수 있겠군.
- ② 소비사회에서 사물을 통한 개성의 추구는 그 사물의 기호가치에 대한 욕구에서 비롯되겠군.
- ③ 찢어진 청바지는 개인만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는 수단이자 젊은 세대의 일원이라는 기호를 상징하는 것일 수 있겠군.
- ④ '당신의 삶에 차이를 만듭니다'라는 광고 문구는 그 광고의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사회적 차이를 드러내고 싶다는 욕구를 강제하는 것일 수 있겠군.
- ⑤ 타투나 피어싱을 한 유명 연예인을 텔레비전에서 보고, 이를 따라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은 대중매체를 매개로 하여 추상화된 기호를 소비하는 것일 수 있겠군.

[정답] ③번

[현장 풀이]

- 개성은 특정 집단에 속해 있지 않고 난 고유하다는 sign을 주는 거네. 지문의 '명품'처럼.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예시와 보기 예시 연결하여 이해]

- 광고가 대중매체겠네. 어? 그러면 '보드리야르'는 '개성'도 대중매체에 의해 강제된 거라고 말하겠네.

[좋은 풀이 습관 : 보기 보면서 지문과 관련된 출제요소 생각]

- 특정 집단에 소속되기 싫다는 sign을 개인이 사회에 보낸 것 아닌가? 그럼 이게 틀린 진술 같은데... 근데 개인이 소속되길 바라는 집단이 자기 자신만 있는 1인 집단...?같은 걸 수도 있나 아 모르겠다 △치고 넘어가자. △△△

[좋은 풀이 습관 : 애매한 것은 △치고 넘어가기]

- 소비사회, 기호가치에 대한 욕구. 완전 보드리야르네.

- 젊은 세대의 일원이라는 집단에는 소속되길 바라는 걸 수 있네. 그럼 아까 헛갈렸던 ①번도 맞겠네.

- 지문 5문단 내용처럼 대중매체가 강제하는 것일 수도 있지.

[좋은 풀이 습관 : 선택지-지문-보기 연결]

- 결국 이것도 지문 5문단 내용처럼 대중매체에 의해 강제된 거라고 하는 건데, 뭐냐 왜 답 없지...?

- ①②③④⑤ 다 맞아보이는데, 일단 ④⑤번은 같은 얘기라서 둘 다 틀릴 수는 없고, ②번도 너무 맞고... ①번 선지랑 ③번 선지 뒤에 '젊은 세대의 일원이라는 기호 상징'도 같은 얘기라 둘 다 틀릴 수가 없고... 설마 ④⑤번에 개성 추구하고 고유함 드러내는게 대중매체에 의해 강제되는 거니까, 보드리야르는 ③번 앞에 '개인의 고유성 표현 수단'은 아니라고 말할테니 이게 틀린 건가. 일단 정답 ③번.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 넘어가 이러다 시험 망칠라

★★★ 좀 고민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수학처럼 쿨하게 넘기는 지혜를 국어에서도 발휘하자 ★★★

- 정답률 19.6%, 즉 5개 선택지 중 아무거나 1개 찍는 것(5분의 1, 20%)보다 못한 문제는 틀리셔도 됩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론상으로는 풀어서도 건드려서도 안 되는 문제거든요. 생각해서 푸는 것보다도, 생각 안하고 찍는 게 객관적으로 수치적으로 결과적으로 더 우월하도록 출제해버렸으니까요. 보통 국어에서는 다수가 정답이라고 하는 게 그래도 정답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그 조차도 아니었다는 거구요. 수험생들이 과하고 비현실적 사고를 해서 문제를 틀리는 게 보통인데, 이 경우는 반대로 출제자 분들께서 좀 과하셨다는 겁니다. ③번을 보면서 개성이 개인만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대중매체에 의해 강제된 거라는 생각을 해서 ③번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어려운 사고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좀 고민해보시다가 '에라 모르겠다 뭐 이게 답인가보다'하고 적당히 찍고 넘어가서 수험생 본인의 시간-멘탈-페이스를 지키는 것, 즉 그냥 풀지 않고 넘기는 게 역설적으로 현실적 풀이입니다.(풀이를 안 하는 게 풀이라니, 모순) 제가 그나마 현실적인 풀이랍시고 위에 해설을 써놨지만, 실제 이 시험에서는 이조차도 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심지어 고1... 어 저문 어 문제 풀어서 맞히려다가 저도 어 시험 작살나서...

#113 문학

<보기>

윗글은 토끼전을 고쳐 쓴 한문 소설로 재판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송사 설화의 모티프가 나타난다. 용왕과 토끼는 옥황상제가 주관하는 재판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 상황에서는 지위의 우열보다는 진술의 우위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이 판결의 내용은 지위의 높고 낮음보다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작가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지문]

각설 토끼는 만수산에 들어가 바위 구멍에 숨어 사니 신세가 태평하고 만사에 무심하여 혹은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혹은 벽에 기대어 눕기도 하는 중 용왕의 말이 귀에 들리는 듯하고 용궁의 경치가 눈앞에 삼삼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 채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 만수산의 일개 토끼로서 간사한 놈의 꼬임으로 거의 죽을 뻔하였지. 그러나 두세 치밖에 안 되는 혀로 만승의 임금을 유혹하여 용궁을 두루 구경하고 만수산으로 돌아왔으니 비록 소장*의 구변*이나 양평*의 지혜라도 이보다 낫지 못 할 거야. 이후에 다시는 동해 가를 밟지도 말고 맹세코 용궁 사람들과 말도 말고 돌베개에 팔이나 괴고 살아갈 뿐야.’

이때 홀연히 한 떼의 검은 구름이 남쪽으로부터 오더니 조금 있다가 광풍이 일어나 소나기가 쏟아진다. 또 우레 소리가 울리고 번갯불이 번쩍번쩍하더니 조용하고 컴컴해져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다. 토끼가 크게 놀라,

‘이는 필시 용왕의 조화야.’

하고, 막 피하여 숨으려 할 제 뇌공이 바위 구멍으로 쳐들어오더니 토끼를 잡아가는데 날아가듯 빨라 잠깐 사이에 남천문 밖에 이르렀다. 토끼가 혼이 나가고 기운을 잃어 땅에 엎어졌다가 다시 깨어나 머리를 들고 보니 천상의 백옥경이었다. 토끼가 영문을 몰라 섬돌 아래에 기고 있는데 문지기가 달려들어와,

“동해용왕 광연이 명을 받아 문 밖에 왔습니다.”

한다. 토끼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는 반드시 용왕이 상제에게 고하여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지난 번에는 궤변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으나 이번에는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거야.’

하고, 머리를 구부리고 턱을 고인 채 말없이 정신 나간 듯 있었더니 조금 이따가 전상에서 한 선관이 부른다.

“상제의 명이니 용왕과 토끼를 판결하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용왕은 전하에 꿇어 앉고 토끼를 바라보면서 몹시 한스러워 했다. 한 선관이 지필묵을 두 사람 앞에 놓더니,

“상제의 명이니 각자 느낀 바를 진술하고 처분을 기다리라.”

한다. - 작자미상, [토공가] -

[문제] 진위판단

1. 만수산에서 토끼는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가 옥황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두려워했다.

정답 : (참 / 거짓)

2. 토끼는 백옥경에서 용왕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잡혀 온 이유를 알지 못했다

정답 : (참 / 거짓)

- * 소장 : 중국 전국 시대의 소진과 장의를 아울러 이르는 말.
- * 구변 : 말을 잘하는 재주나 솜씨.
- * 양평 : 중국 한나라 시대의 장양과 진평을 아울러 이르는 말.

#113 정답 및 해설

[보기]

윗글은 토끼전을 고쳐 쓴 한문 소설로 재판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송사 설화의 모티프가 나타난다. 용왕과 토끼는 옥황상제가 주관하는 재판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 상황에서는 지위의 우열보다는 진술의 우위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이 판결의 내용은 지위의 높고 낮음보다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작가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지문]

각설 토끼는 만수산에 들어가 바위 구멍에 숨어 사니 신세가 태평하고 만사에 무심하여 혹은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혹은 벽에 기대어 눕기도 하는 중 용왕의 말이 귀에 들리는 듯하고 용궁의 경치가 눈앞에 삼삼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 채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 만수산의 일개 토끼로서 간사한 놈의 꼬임으로 거의 죽을 뻔하였지. 그러나 두세 치밖에 안 되는 허로 만승의 임금을 유혹하여 용궁을 두루 구경하고 만수산으로 돌아왔으니 비록 소장*의 구변*이나 양평*의 지혜라도 이보다 낫지 못 할 거야. 이후에 다시는 동해 가를 밟지도 말고 맹세코 용궁 사람들과 말도 말고 돌베개에 팔이나 괴고 살아갈 뿐야.’

이때 홀연히 한 떼의 검은 구름이 남쪽으로부터 오더니 조금 있다가 광풍이 일어나 소나기가 쏟아진다. 또 우레 소리가 울리고 번갯불이 번쩍번쩍하더니 조용하고 컴컴해져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다. 토끼가 크게 놀라,

‘이는 필시 용왕의 조화야.’

하고, 막 피하여 숨으려 할 제 뇌공이 바위 구멍으로 쳐들어오더니 토끼를 잡아가는데 날아가듯 빨라 잠깐 사이에 남천문 밖에 이르렀다. 토끼가 혼이 나가고 기운을 잃어 땅에 엎어졌다가 다시 깨어나 머리를 들고 보니 천상의 백옥경이었다. 토끼가 영문을 몰라 섬돌 아래에 기고 있는데 문지기가 달려들어와,

“동해용왕 광연이 명을 받아 문 밖에 왔습니다.”

한다. 토끼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는 반드시 용왕이 상제에게 고하여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지난 번에는 궤변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으나 이번에는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거야.’

하고, 머리를 구부리고 턱을 고인 채 말없이 정신 나간 듯 있었더니 조금 이따가 전상에서 한 선관이 부른다.

“상제의 명이니 용왕과 토끼를 판결하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용왕은 전하에 꿇어 앉고 토끼를 바라보면서 몹시 한스러워 했다. 한 선관이 지필묵을 두 사람 앞에 놓더니,

“상제의 명이니 각자 느낀 바를 진술하고 처분을 기다리라.”

한다. - 작자미상, [토공가] -

[현장독해]

- 토끼전이 용왕이 자기 병 낫겠다고 토끼 간 먹으려고 해서, 자라가 용궁으로 토끼 납치했다가 토끼가 말빨로 탈출한 그런 얘기였지 아마

[좋은 기초 상식 : 토끼전 정도는 알 정도로 고전작품 공부]

- 지위의 우열, 용왕이랑 토끼가 지위 우열이 있는데 옥황상제, 황제 앞이니까 의미 없겠네.

- 지위의 높고 낮음 = 지위의 우열 < 생명 존중 찾자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읽으며 주의할 키워드 파악]

- 용궁 이미 갔다 온거네. 용궁에서 도망친 뒤의 이야기인가보네.

[좋은 기초 상식 : 토끼전 정돈 알 정도로 고전작품 공부]

- ‘간사한 놈’이 ‘자라’였지 아마.

[좋은 기초 상식 : 토끼전 정돈 알 정도로 고전작품 공부]

- 소장의 말재주나 양평의 지혜보다 토끼인 나의 말재주나 지혜가 낫다. [좋은 독해 습관 : 어휘 풀이를 독해에 반영]

- 용궁 PTSD*

[좋은 독해 습관 : 작품 상황을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촌철살인]

- 날씨 갑자기 안 좋아지네 뭘 일 날 듯.

- 용왕 PTSD

[좋은 독해 습관 : 작품 상황을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촌철살인]

- 토끼 또 납치돼서 어리둥절

- 도망쳤던 용왕 또 보니까 놀란거지 PTSD

- 용왕이 호구도 아니고 한번 속지 두 번 안속겠지

[좋은 독해 습관 : 작품 상황을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촌철살인]

- 상제(지문) = 옥황상제(보기)

[좋은 독해 습관 : <보기>-지문 연결해 읽기]

- 용왕이 꿇어 앉아? 이게 <보기> 지위의 우열이 없다는거네.

[좋은 독해 습관 : <보기>-지문 연결해 읽기]

* PTSD : 공포스런 경험을 한 뒤에 나타나는 정신적 후유증,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답 및 해설] 1. 거짓, 2. 참

1. 만수산에서 토끼는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가 옥황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두려워했다. : 거짓

- '옥황'이라는 2글자 때문에 틀린 진술입니다. '옥황'이 아니라 '용왕'이라고 해야 맞는 진술입니다. '이는 필시 용왕의 조화야.'(지문)라는 표현을 보면 용왕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두려워하죠.(나무)
- 나머지 앞뒤 내용은 다 너무 맞습니다. **너무나도 맞아 보이는 진술들 사이에 틀린 표현 썩 집어넣는 출제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 출제 요소였습니다.** '옥황'을 놓쳐서 틀렸다면, 독해 속도 및 판단 속도를 더 늦추세요. 이런 사소한 함정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속도를 줄여서 우선 정확도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정확도부터 확보한 후에 속도를 점차 높여나가는 겁니다.** 속도부터 높여 놓고 정확도를 점차 높여나가 고득점을 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해하지 마시고 속도 늦추시기 바랍니다.

[좋은 풀이 습관 : 틀린 진술 앞뒤에 너무 맞는 진술을 붙여 함정이 안 보이게 하는 출제 노하우 늘 주의]

- 그리고 맥락상 앞부분에서 토끼는 옥황의 존재조차 모르죠. 옥황의 존재조차 모르는데 옥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숲)

[좋은 풀이 습관 : 특정 표현(나무)만큼이나 전체적인 작품 상황(숲)도 정답 판단에 활용하기]

- 용왕이나 옥황이나 같은 건줄 알아서 실수했다구요? 일단 '왕'이랑 '황제'는 고전소설이 쓰여지던 당시에 엄격히 구분되었던 개념인 만큼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합시다. 기초 상식입니다.

- + 아니 그런데, 왕과 황의 차이를 잘 몰랐더라도, <보기> '용왕과 토끼는 옥황상제가 주관하는 재판 상황에 놓이게 되고'라는 표현을 보면서 용왕과 옥황은 다르다는 것은 파악할 수 있죠. **지문 읽기 전에 <보기>를 신경써서 읽으며 중요한 키워드를 놓치지 않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좋은 풀이 습관 : 문학 영역에서는 보기를 먼저 보며 독해 방향 및 독해 시 신경 쓸 키워드 잡기]

2. 토끼는 백옥경에서 용왕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잡혀 온 이유를 알지 못했다. : 참

- '토끼가 혼이 나가고 기운을 잃어 땅에 엎어졌다가 다시 깨어나 머리를 들고 보니 천상의 백옥경이었다.'에서 백옥경에 도착한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영문을 몰라 섬돌 아래에 기고 있'다는 부분에서 자신이 잡혀 온 이유를 알지 못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다수론)

- + 위에는 해설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해설지만 놓고 보면 참인 진술처럼 보이는데요. 20%정도의 학생들이 이 진술이 거짓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만나기 전까지는'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했다고 합니다. 그니까 용왕을 만나고 나서도, 선관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용왕이 옥황상제한테 얘기해서 나 죽이려고 한다. 이제는 진짜 죽었다.'고 착각하며 정신이 나가있었다는 거죠. **옥황 만나고 나서도 잡혀 온 이유를 오해하여 잘못 알고 있고, 제대로 모르는 순간이 있었으니 거짓**이라는 겁니다.(소수론) 이런 점을 근거로 들어 거짓이라고 답했다면 정답을 맞히지 못한 것에 너무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수능에서는, 그리고 5지선다 중 선택지 1개 고르는 상황에서는 틀리지 않으실 테니까요.

#114 문법

[지문]

1. 밀어붙이다

2. 나누어떨어지다

[문제] 쪼개서 원형파악

- 위 단어들을 품사·형태소 단위, 어근·접사 등 본인의 모든 문법지식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디테일하게 쪼개서 원형파악해보시고, 단일어인지 파생어인지 통사적 합성어인지 비통사적 합성어인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2023학년도 수능국어 언어와 매체 영역의 문법 출제경향을 생각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디테일한 '쪼개서 원형파악'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제요소와 관련된 문법 용어들이 막힘없이 떠오를 정도로 암기하고, 문법 개념어를 활용한 쪼개서 원형파악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문학' '문학' '매체' 영역에서는 다를 수 있으나, '문법' 영역에서만은 사고력뿐 아니라 '암기력'까지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정확하면서도 '막힘없이' 풀 수 있습니다. 문법 영역을 다 맞추는 건 당연한 것이나, 막힘없이 다 맞추어야만 고난도 비문학 영역에서 '사고력'을 발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4 정답 및 해설

[정답]

1. 밀어-붙이다 : 통사적 합성동사

밀어

- 밀 : 동사 '밀다'의 어간
- 어 : 대등적 or 종속적 연결어미

붙이다

- 붙 : 동사 '붙다'의 어간
- 이 : 사동접미사 -이
- 다 : 어말어미 종결어미

2. 나누어-떨어지다 : 통사적 합성동사

나누어 : 본용언

- 나누 : 동사 '나누다'의 어간
- -어 : 대등적 or 종속적 연결어미 '어'

떨어지다 : 본용언(통사적 합성동사)

- 사전에서 '떨어지다'는 '나뭇섬에서 나머지가 없이 나뉘다'의 의미로 쓰였으며, 피동 접사가 결합한 피동사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단어에 피동의 의미'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떨- : 동사 '떨다' (본용언)
- -어- : 보조적 연결어미 '어'
- -지 : (동사 뒤에 '-어지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입음을 의미하는 보조동사 (보조용언)
- -다 : 어말어미 종결어미

+ 형용사 뒤에, '-어지다' 구성으로 쓰이고 앞말이 뜻하는 상태로 됨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 '지다'가 붙으면 동사가 됩니다. '떨어지다' 등은 형용사 뒤에 보조 동사 '(-어)지다'가 붙어 만들어진 '동사'입니다. 따라서 동사 '떨어지다'처럼 '아름다워지다'는 '아름다워지자'와 같이 청유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동사 '지다'가 붙어 만들어진 말 중, 두루 널리 쓰이는 단어들이 '떨어지다'처럼 표제어로, '동사'로 실린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수학 전문어 '나누어떨어지다'는 한 단어이므로, '나누어떨어지다'와 같이 모든 음절을 붙여 적습니다.'라고 표준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예외라서 암기하자고 하기는 민망하긴 하네요.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알아두고 넘어갑시다.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가는 안국어

#115 멘토링

마인드 컨트롤

중간·기말, 교육청·평가원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텡프 등
바야흐로 시험의 연속입니다.

잘 봐서 기쁠 때도 있고
못 봐서 울음마저 날 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페이커(롤) 이영호(스타) 장재호(워크) 등
게임 프로리그에서 10년 가까이 세계 정상을 지켜온
유명 프로게이머 분들의 통산 승률은
70%정도입니다.

이분들이 단 한 번도 지지 않아서 1등인 게 아니라구요.
한 번도 지지 않기는커녕,
10번 게임할 때마다 3번은 지는데도 세계 1등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올해 각종 시험을 100번은 보실 텐데요.
앞으로 보는 시험에서 절반 정도는 망치실 거구요
한 절반 이상만 잘 봐도 굉장히 잘 하시는 겁니다.
한두 번 잘 보고 못 본 것에 의미 두는 게 의미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당장의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에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시험 결과 자체는 이미 결정되어 나왔잖아요.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 결과를 **본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잘 될 때는 겸손하게

한두 번의 시험에서 남들보다 성적이 잘 나왔어도,
'이 문제는 실력이 아니라 운으로 맞힌거야.'
'더 잘 풀 수 있었는데 쓸데없이 시간 낭비한 것까지 줄이자'
'나는 여전히 부족해'
'이 성적 유지하려면 꾸준히 더 해야 해.'
'나는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 편이 아냐'
라는 겸손한 마인드로 계속 공부 하세요.
그래야 성적이 더 상승하고 안정됩니다.

특히 고3·N수생이시라면,
'이 정도 갖고는 운 나쁘면 재수할 수도 있어'
'최악의 상황에서도, 운이 아무리 나빠도,
세상 모두가 날 방해역까해도, 재수는 안하게끔 성적을 안정시키자'
는 마인드로 수능 당일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해야 '겨우겨우' 스스로 만족할 만한 성적을 얻더라고요.

남들은 자만해서 나태해질 수 있는 순간에,
가슴에서 느껴지는 찰나의 찝찝함과
이따금 스치는 불안함을 놓치지 않고,
늘 긴장하고 겸손하시면서,
당장의 성과를 더 큰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 지혜를 갖추시다.

잘 안될 때는 자신있게

보는 시험마다 족족 망치고,
하는 일이 다 안 풀리고,
기대한 것보다 한참 이하의 결과가 나왔을 때는,
스스로를 위로하세요.

'다 잘 될 거야'
'좀만 더 하면 나아질거야.'
'이번에 이런 점이 좀 부족했으니까
이것들만 고치면 나도 잘할 수 있어'
라며 스스로를 다잡으세요.

똑같은 시기에 거의 똑같은 아이디어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음에도,
한 팀은 성공하고, 다른 한 팀은 실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실패한 팀에서 본인들의 실패를 그저 억울해하고,
패배감에 젖어 침묵하며, 쓸쓸히 퇴장했을까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공한 팀 사례와 자신들의 실패를 철저히 비교하는 발표를
모두 앞에서 담담히 하더군요.
자신들의 뼈아픈 실책을 끝까지 후벼 파내던 그 모습이
전 평생 기억날 듯합니다.

실패에도 굴하지 않는 사람이 되자
실패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되자는
추상적인 말의 실질적 액션 플랜이
바로 위와 같은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어른들이 여러분께 바라는 것이 당장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간에
그로부터 무언가를 남겨서 자신을 개선해나가는 사람은
당장 시험 한 두 개 못 보더라도, 끝에는 분명 성공할 수 있습니다.
끝끝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좋은 습관을 갖추어 나가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잘 풀린 하루든, 안 풀린 하루든
꾸준히 무언가를 남기며 성장해 나갑시다.

크러니까 멘탈 터졌다고 공부 때려치고 당근으로 책 더 팔고 PC방 가고 술 퍼먹고 그러저 좀 말자

#116 비문학

[지문]

공익을 위한 적법한 행정 작용으로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개인은 자신이 입은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손실 보상 청구권'을 갖는다. 여기서 '특별한 희생'이란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이르는 말로, 이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 가령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행정 기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의 병상이나 연수원, 숙박 시설 등을 동원한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개인에게 보상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것이다.

손실 보상 청구권은 공적 부담의 평등을 위해 인정되는 헌법상 권리이다. 행정 작용으로 누군가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부담을 공공이 분담하는 것이 평등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즉 공용 침해와 이에 대한 보상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공용 침해 중 수용이란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것, 사용이란 행정 기관이 개인의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 제한이란 개인의 재산권 사용 또는 그로 인한 수익을 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제23조 제3항은 내용상 분리될 수 없는 사항은 함께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불가분 조항'이다. 따라서 공용 침해 규정과 보상 규정은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공익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토지처럼 공공성이 강한 사유 재산은 재산권 행사에 더욱 강한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다면 이로 인한 손실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할 때만 보상이 가능한 것이다.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에 대해 경계 이론과 분리 이론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다. 경계 이론에 따르면 ㉡양자는 별개가 아니라 단지 침해의 정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재산권 침해는 그 정도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면 특별한 희생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계 이론은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는 보상 규정이 없어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공용 침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불가분 조항인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헌이고, 위헌임이 밝혀진 법률에 근거한 공용 침해 행위는 위법한 행정 작용이 된다는 것이다. 경계 이론은 적법한 공용 침해 행위의 경우에 보상이 인정된다면, 위법한 공용 침해 행위의

경우에도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보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분리 이론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대한 헌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제3항의 규정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완전히 분리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입법자가 이러한 재산권 침해를 특별한 희생이 아닌 사회적 제약으로 규정한 것으로 본다.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 또는 특별한 희생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자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만약 해당 법률에 규정된 재산권 침해가 헌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권의 공익 적합성을 넘어서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이러한 법률은 헌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헌이고, 위헌임이 밝혀진 법률에 근거한 행정 작용은 위법하게 된다. 분리 이론은 이러한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정 작용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재산권을 존속시키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것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 재산권 : 재산의 소유권, 사용·수익권, 처분권 등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문제] 진위판단

- 헌법이 개인에게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은 법률로써 그 내용이 구체화된 것이다. (참 / 거짓)
- 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정 작용에 대해, 개인은 손실 보상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다. (참 / 거짓)
- 경계이론은 행정 작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항상 보상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분리 이론은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참 / 거짓)
- 분리이론은 헌법 제23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혀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 (참 / 거짓)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모두 보상 규정 없이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본다. (참 / 거짓)
- ㉠은 '헌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재산권의 한계'를 의미한다. (참 / 거짓)
- ㉡은 경계이론의 입장과 분리이론의 입장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참 / 거짓)
- ㉢은 재산권 침해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의 서로 다른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는 의미이다. (참 / 거짓)

#116 정답 및 해설

[지문]

공익을 위한 적법한 행정 작용으로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개인은 자신이 입은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손실 보상 청구권'을 갖는다. 여기서 '특별한 희생'이란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이르는 말로, 이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 가령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행정 기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의 병상이나 연수원, 숙박 시설 등을 동원한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개인에게 보상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것이다.

손실 보상 청구권은 공적 부담의 평등을 위해 인정되는 헌법상 권리이다. 행정 작용으로 누군가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부담을 공공이 부담하는 것이 평등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즉 공용 침해와 이에 대한 보상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공용 침해 중 수용이란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것, 사용이란 행정 기관이 개인의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 제한이란 개인의 재산권 사용 또는 그로 인한 수익을 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제23조 제3항은 내용상 분리될 수 없는 사항은 함께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불가분 조항'이다. 따라서 공용 침해 규정과 보상 규정은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공익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토지처럼 공공성이 강한 사유 재산은 재산권 행사에 더욱 강한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다면 이로 인한 손실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할 때만 보상이 가능한 것이다.

[현장독해]

- 소유, 사용, 수익, 처분 다 할 수 있는 권리
[좋은 독해 습관 : 어휘는 알아도 읽기]
- 손실 보상 청구권. 개인의 재산권이 공익을 위해 희생되었다면 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듯
[좋은 독해 습관 : 전문 용어가 왜 그렇게 이름 지어졌는지 파악]
- 아 이거 코로나 심할 때 채명어형아 경기대 기숙사 병상으로 썼던 그런 게 특별한 희생인가?
[좋은 독해 습관 : 나만의 예시를 들어 지문 이해도 높이기]
- 누군가 희생해서 다같이 썼으면 다같이 책임지자는 거네
[좋은 독해 습관 :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문장의 의미 촌철살인]
- '공용 침해' 이게 공익을 위해 재산권을 특별한 희생시키는거네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앞뒤 연결해가며 이해도 높이기]
- 수용은 국가가 아예 받는, 제한은 국가가 일부 사용하거나 개인이 다 못 먹게 하는
[좋은 독해 습관 :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문장의 의미 촌철살인]
-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 = 불가분 조항 = 분리될 수 없는 사항. 침해랑 보상 패키지라고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앞뒤 연결해가며 이해도 높이기]
- [좋은 독해 습관 :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문장의 의미 촌철살인]
- 그러나...? 3항이랑 1항 2항이 좀 다른가 보네. 아~ 3항은 국가가 개인 꺼 침해하고 보상하는 거고, 1항 2항은 아무리 자기꺼여도 개인이 막 쓰면 안 된다, 공익에 적합하게 써야한다는 점에서 다른 듯. 국가 침해 제한 vs 개인 재산권 제한
[좋은 독해 습관 : 차이점 중심으로 내용파악]
- 토지는 개인 재산이어도 공공성이 강해 사회적 제약이 크다.
- 아 그니까, 개인이 원래부터 막 쓰면 안 되는 거였으면 국가가 침해해도 보상안해도 된다는 거네. 특별한 희생 즉, 사회적 제약 범위 밖이라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개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만 보상한다는 것.
[좋은 독해 습관 :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문장의 의미 촌철살인]
- [좋은 독해 습관 : '만'과 같은 한정표현 주의]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에 대해 경계 이론과 분리 이론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다. 경계 이론에 따르면

㉠양자는 별개가 아니라 단지 침해의 정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재산권 침해는 그 정도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면 특별한 희생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계 이론은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는 보상 규정이 없어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공용 침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불가분 조항인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헌이고, 위헌임이 밝혀진 법률에 근거한 공용 침해 행위는 위법한 행정 작용이 된다는 것이다. 경계 이론은 적법한 공용 침해 행위의 경우에 보상이 인정된다면, 위법한 공용 침해 행위의 경우에도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보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분리 이론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대한 헌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제3항의 규정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완전히 분리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입법자가 이러한 재산권 침해를 특별한 희생이 아닌 사회적 제약으로 규정한 것으로 본다.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 또는 특별한 희생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자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만약 해당 법률에 규정된 재산권 침해가 헌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권의 공익 적합성을 넘어서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이러한 법률은 헌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헌이고, 위헌임이 밝혀진 법률에 근거한 행정 작용은 위법하게 된다. 분리 이론은 이러한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정 작용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재산권을 존속시키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것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 재산권 : 재산의 소유권, 사용·수익권, 처분권 등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 사회적 제약 범위 내에 있냐 vs 사회적 제약 범위 밖에 있어서 특별한 희생이냐가 차이가 있다는 게 지문 앞에 내용이었네.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뒷내용을 활용해서 지문 앞내용 정리]
- '양자'가 사회적 제약이랑 특별한 희생 말하는 거네. 경계 이론은 이 둘이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하는거고.
[좋은 독해 습관 : 밑줄의 의미 생각. '양자' 등 사소한 대용어구의 의미도 습관적으로 동어반복하면서 읽기]
- '범위' '정도'를 넘어서면 특별한 희생으로 본다.
- 보상 규정 없어도 국가가 선 넘어서 지나치게 희생하면 보상해줘야.
- 보상 규정 없으면 헌법에도 어긋나, 위법한 행정 작용이야, 위법해도 공용 침해로 특별한 희생했으면 보상해줘야해. 아무튼 과하게 침해하면 보상해줘야한다는 거네.
[좋은 독해 습관 :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문장의 의미 촌철살인]
- 보상이 인정된다면 = 특별한 희생이라고 인정받으면 보상 규정 없어도 보상해줘라.

- 분리라는 이름부터가 ㉠처럼 양자를 별개로 보자는 거겠네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앞뒤 연결해가며 이해도 높이기]
- 보상 규정이 없는 데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입법자 판단에 사회적 제약 범위 내에 있어서 보상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규정을 안 만든거다. 입법자가 다 생각하고 뺀거다.
[좋은 독해 습관 :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문장의 의미 촌철살인]
- 과하게 침해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네. 침해하고 보상하는 거보다 침해자체를 하지마.
[좋은 독해 습관 :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문장의 의미 촌철살인]

[정답] 1.참, 2.거짓, 3.거짓, 4.참, 5.참, 6.참, 7.거짓, 8.참

1. 헌법이 개인에게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은 법률로써 그 내용이 구체화된 것이다. **참**
2. 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정 작용에 대해, 개인은 손실 보상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다. **거짓**
3. 경계이론은 행정 작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항상 보상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분리 이론은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거짓**
4. 분리이론은 헌법 제23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혀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 **참**
5.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모두 보상 규정 없이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본다. **참**
6. ㉠은 '헌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재산권의 한계'를 의미한다. **참**
7. ㉡은 경계이론의 입장과 분리이론의 입장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거짓**
8. ㉢은 재산권 침해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의 서로 다른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는 의미이다. **참**

[해설]

1. 3문단에 '그 내용' = '헌법'의 내용이고, 이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했으니까요. 참.
2. 모든? 불편한 극단적 표현이네요. 따져보면 예외 있습니다. 사회적 제약 범위 내에 있으면 손실 보상 요구 못한다고 하니까요. 거짓. [좋은 풀이 습관 : 절대적 표현은 반례 떠올려 보기]
3. 항상? 또 절대적, 극단적, 오만방자한 표현이네요. 이것도 행정 작용이 범위 안 넘으면 보상 안 해도 된다고 했죠. 거짓
[좋은 풀이 습관 : 절대적 표현은 반례 떠올려 보기]
4. ㉠에 대놓고 완전히 분리된다고 나오네요. 참.
5. 모두? 따져 보죠. 경계 이론은 보상 규정 없으면 위헌이라고 하고, 분리 이론도 과도하게 침해한 건 위헌이라고 하네요. 반례나 예외를 떠올려봤는데 없네요. 지문에 있네요. 참.
[좋은 풀이 습관 : 절대적 표현은 반례 떠올려 보기]
6. 재산권의 한계(선택지)=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제약 범위(지문)
[좋은 풀이 습관 : 선택지-지문 연결해 읽기]
7. 여기서 '양자'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입니다. 경계 이론과 분리 이론이 아니라고요. 거짓.
8. 재산권 침해 정도는 경계 이론의 비슷한 표현이구요. ㉢을 그냥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네요. 참

#117 문학

<보기>

(가)와 (나)는 자연의 순환적 질서에 감응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가)의 화자는 밤이 깊어지면서 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있고, (나)의 화자는 절기가 바뀌면서 봄빛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의 점진적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화자는 온몸의 감각을 집중하면서, 자연을 자신과 교감을 이루는 주체로 인식한다.

[지문]

(가)

사개 틀린* 고풍(古風)의 툃마루에 없는 듯이 앉아
 아직 떠오를 기척도 없는 달을 기다린다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뜻 없이
 이제 저 감나무 그림자가
 사뿐 한 치씩 옮겨오고
 이 마루 위에 빛깔의 방석이
 보시시 깔리우면
 나는 내 하나인 외론 벗
 가냘픈 내 그림자와
 말없이 몸짓 없이 서로 맞대고 있으려니
 이 밤 옮기는 발짓이나 들려오리라

- 김영랑, 「 사개 틀린 고풍의 툃마루에 」 -

* 사개 틀린 : 사개가 틀어진. 한옥에서 못을 사용하지 않고 목재의 모서리를 깎아 요철을 끼워 맞추는 부분을 '사개'라고 한다.

(나)

우수* 날 저녁
 그 전날 저녁부터
 오늘까지 연 닷새 간을
 고향, 내 새벽 산 여울을
 찰박대며 뛰어 건너는
 이쁜 발자욱 소리 하날
 듣고 지내었더니
 그 새끼발가락 하날
 가만가만 만지작일 수도 있었더니
 나 실로 정결한 말씀만 고를 수 있었더니
 그가 왔다.
 진솔* 속곳을 갈아입고
 그가 왔다.
 이른 아침,
 난 그를 위해 닭장으로 내려가고
 따뜻한 달걀
 두 알을 집어내었다.
 경칩*이 멀지 않다 하였다.

- 정진규, 「 따뜻한 달걀 」 -

* 우수(雨水),경칩(驚蟄) : 입춘(立春)과 춘분(春分) 사이 드는 절기. 우수는 눈이 그치고 봄비가 오기 시작하는 시기, 경칩은 벌레가 깨어나고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땅 밖으로 나오는 시기
 * 진솔 : 옷이나 버선 따위가 한 번도 빨지 않은 새것 그대로인

[문제] 진위판단

1. (나)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시상을 종결하여 시적 여운을 자아내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2. (가)는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화자의 바람을 표출하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3. (가)는 원경과 근경을 대비하여 심리적 거리감을 표현하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4. (가) (나)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움직임의 정도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117 정답 및 해설

<보기>

(가)와 (나)는 자연의 순환적 질서에 감응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가)의 화자는 밤이 깊어지면서 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있고, (나)의 화자는 절기가 바뀌면서 봄빛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의 점진적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화자는 온몸의 감각을 집중하면서, 자연을 자신과 교감을 이루는 주체로 인식한다.

[지문]

(가)
 사개 틀린* 고풍(古風)의 툇마루에 없는 듯이 앉아
 아직 떠오를 기척도 없는 달을 기다린다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뜻 없이
 이제 저 감나무 그림자가
 사뿐 한 치씩 옮겨오고
 이 마루 위에 빛깔의 방석이
 보시시 깔리우면
 나는 내 하나인 외론 벗
 가냘픈 내 그림자와
 말없이 몸짓 없이 서로 맞대고 있으려니
 이 밤 옮기는 발짓이나 들려오리라
 - 김영랑, 「사개 틀린 고풍의 툇마루에」 -

(나)
 우수* 날 저녁
 그 전날 저녁부터
 오늘까지 연 닷새 간을
 고향, 내 새벽 산 여울을
 찰박대며 뛰어 건너는
 이쁜 발자국 소리 하날
 듣고 지내었더니
 그 새끼발가락 하날
 가만가만 만지작일 수도 있었더니
 나 실로 정결한 말씀만 고를 수 있었더니
 그가 왔다.
 진솔* 속곳을 갈아입고
 그가 왔다.
 이른 아침,
 난 그를 위해 닭장으로 내려가고
 따뜻한 달걀
 두 알을 집어내었다.
 경칩*이 멀지 않다 하였다.
 - 정진규, 「따뜻한 달걀」 -

[현장독해]

- 자연의 순환적 질서
- 밤 깊으면 해 지고 달 뜨는 게 순환적 질서
- 계절 바뀌면서 겨울에서 봄으로 이게 순환적 질서
- 낮에서 밤 되는, 겨울에서 봄 되는, 이런 게 다 시간의 흐름이고 자연의 점진적 변화.
- 화자가 감각으로 자연과 교감. '감각' 중요
 [좋은 독해 습관 : <보기> 안에서도
 앞내용과 뒷내용을 연결지어가며 읽는 동어반복하기]
 [좋은 독해 습관 : <보기>를 통해 작품독해 시 주목할 부분 파악]
- 한옥 목재가 틀어진.
 [좋은 독해 습관 : *어휘풀이는 알아도 습관적으로 보기]
- 밤 되는데 달 왜 안 뜨냐. 자연의 순환적 질서 나와야되는데
 [좋은 독해 습관 : <보기>내용 습관적으로 지문 표현과 연관짓기]
- 달뜨면서 그림자가 이동하는 모습. 시각이네. 이게 <보기>감각
 [좋은 독해 습관 : <보기>내용 습관적으로 지문 표현과 연관짓기]
- 달빛이 마루에 비쳐서 빛깔의 방석이라고 하는 듯?
- 달빛에 비친 내 그림자가 벗.
- 서로 맞대고 있는 게 화자랑 자연이 교감하는거네
 [좋은 독해 습관 : <보기>내용 습관적으로 지문 표현과 연관짓기]
- '발짓이 들려오는' 청각도 감각이고 이걸로 밤 지나가는 시간 흐름, 자연의 점진적 변화 표현한거네.
 [좋은 독해 습관 : <보기>내용 습관적으로 지문 표현과 연관짓기]
- 입춘과 춘분 사이라니까 초봄 지나가는 계절 변화
 [좋은 독해 습관 : <보기>내용 습관적으로 지문 표현과 연관짓기]
- 찰박, 발자국 소리 '청각; 이쁘다는 거보니 화자가 좋아하네.
- '만지작'이면 촉각? '가만가만'이면 시각? 청각일 수도 있나?
 [좋은 독해 습관 : <보기>내용 습관적으로 지문 표현과 연관짓기]
- 말씀도 정결해. 좋아해 완전 좋아해. 좋아하는 게 '그'네 <보기>로 보면 '봄'이고, 어휘풀이로 보면 '개구리'도 될 듯
 [좋은 독해 습관 : <보기>내용 습관적으로 지문 표현과 연관짓기]
- 새 옷 입고 온다는 거 보니 '봄'이네. 겨울 지나고 1년 새로 시작하면서 봄 오는 이런 느낌.
- 그한테 대접하려고 따뜻한 달걀 준비하네. 이게 제목.
 [좋은 독해 습관 : 제목과 연관된 표현 찾아 지문 이해도 높이기]
- 개구리 겨울잠 깬다. [좋은 독해 습관 : *어휘풀이 보기]

[정답 및 해설] 1. 거짓, 2. 거짓, 3. 거짓, 4. 참

1. (나)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시상을 종결하여 시적 여운을 자아내고 있다. : 거짓

- (나)는 '경칩이 멀지 않다 하였다.'고 하여 시상을 종결하죠.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거짓.

+ (가)는 '들려오리라'라는 표현으로 시상을 종결하는 것을 보니,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은 맞네요. 그리고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면 시적 여운을 자아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자에게 상상의 여지를 남기면 시적 여운을 자아내는데요, 추측이니까 상상의 여지를 남기겠죠.

2. (가)는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화자의 바람을 표출하고 있다. : 거짓

- (가)에 청자는 없거나, 적어도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시적 대상으로 화자가 기다리는 '달', 화자의 벗인 '그림자'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달'과 '그림자'를 청자로 상정하고 화자가 말을 한다기보다는, 시적 화자 자신이 혼잣말 혹은 내적 발화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네요.

- (나)에서 시적대상인 '그'는 '봄'입니다. '봄'이 청자라면 '그가 왔다'고 표현하기 보다는 '너가 왔다'고 표현했겠죠. '봄'은 청자는 아닙니다.

+ 마지막 행에 '경칩이 멀지 않다 하였다'라는 표현은 누군가에게 얘기를 전해들은 것이지, 화자가 청자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3. (가)는 원경과 근경을 대비하여 심리적 거리감을 표현하고 있다. : 거짓

- 해설지에는 원경과 근경의 대비가 아예 없다고 하는데요.(다수론)

- '저 감나무 그림자가 사뿐 한 치씩 옮겨오고' 다음에 '이 마루'라고 하는 것을 보니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의 이동은 있습니다. 물론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했다고 해서, 원경과 근경이 반드시 대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나무'랑 '마루'는 다른 거고, 먼 거랑 가까운건 어찌되었든 반대니까 아무튼 대비라고 우기는 걸 받아준다고 해도, 화자가 '심리적 거리감'을 표현하지는 않죠. '외롭고 가냘픈 내 그림자'에서 '거리감'이 나왔다고 우기는데, 내가 내 그림자를 싫어하고 거부감을 갖는 건 아닙니다.

4. (가) (나)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움직임의 정도를 드러내고 있다. : 참

- (가) 사뿐, 보시시('살포시'와 비슷한 말로 '포근하게 살며시')를 활용하여 달 그림자가 조금씩 이동하는 움직임을 표현하죠.

- (나) 가만가만, 찰박(얇은 물이나 진창을 거칠게 밟거나 치는 소리인 '찰바닥'의 준말)을 활용하여 조금씩 다가오는 봄기운을 감각적으로 느끼는 화자를 표현하네요.

+ '보시시'나 '찰박'은 떠올리기 힘들지만, '사뿐' '가만가만'정도는 음성 상징어로 볼 줄 아셨기를 바랍니다.

#118 문법

[보기]

‘동사’는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하는 양상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동사 어간에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는-’, 현재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 ‘-는’, 명령형 어미 ‘-아라 /-어라’, 청유형 어미 ‘-자’ 등이 붙지만, 형용사 어간에는 붙지 않는다.

[문제] 진위판단

1. ‘해가 떠오르며 점차 날이 밝는다.’에서 ‘밝는다’는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므로 형용사이다

정답 : (참 / 거짓)

2. ‘그 친구는 아는 게 참 많다.’에서 ‘아는’은 현재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하였으므로 동사이다.

정답 : (참 / 거짓)

3. ‘*올해도 우리 모두 건강하자.’에서 ‘건강하자’의 기본형 ‘건강하다’는 청유형 어미 ‘-자’가 결합할 수 없으므로 형용사이다.

정답 : (참 / 거짓)

*는 비문법적인 문장임을 나타냄

※ 2021년 고1 6월 14번 문법 지문 참조

#118 정답 및 해설

[보기]

‘동사’는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하는 양상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동사 어간에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는-’, 현재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 ‘-는’,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 청유형 어미 ‘-자’ 등이 붙지만, 형용사 어간에는 붙지 않는다.

[현장독해]

- [좋은 독해 습관 : 잘 알고 있는 친숙한 개념일 지라도, 출제자가 함정을 파놓았을 수 있으니 읽기는 하기]

- 음~

- 음~

- 음~

[좋은 독해 습관 : 단, 익히 알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매우 친절히 설명해주고 있는 만큼, 막힘없이 술술 읽어나가기. 아는 거 나왔다고 신나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추가적인 생각을 먼저하며 시간낭비하진 않기. 할 수 있어도 하지 않고 넘어가기]

[정답 및 해설] 1. 거짓, 2. 참, 3. 참

1. ‘해가 떠오르며 점차 날이 밝는다.’에서 ‘밝는다’는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므로 형용사이다.

- 진술 자체만 보고는 헛갈렸을 수 있습니다. ‘밝다’는 보통 형용사로 알고 있으니까요. 물론, 밤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 시간의 ‘변화’라는 동적인 움직임을 의미하는 ‘밝다’는 동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밝다’가 동사이므로 거짓!이라고 바로 답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죠.(이상적 풀이)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83 문법 참고

+ ‘밝다’가 동사인 걸 어디서 한번 틀려봐서 아는 사람은 위에처럼 이상적 풀이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잘 몰랐다고 해도 맞힐 수 있습니다. 일단 1번을 잘 모르겠으니까 △치고 넘어가든, 혹은 ‘밝다’ 형용사 맞다고 착각하고 가든, 그렇게 넘어가다가 ‘문제 3번’을 풀면서 ‘문제 1번’을 다시 풀 수 있었습니다. 문제 3번을 풀다가 *표시는 비문법적인 문장을 나타냄’다는 것을 보면서, “아니 그럼, 1번은 맞는 문장이라는 거잖아. 그럼 ‘밝는다’가 맞는 거고, 여기서 ‘는’은 현재시제 선어말 어미 ‘-는-’인데, 이게 붙는다면 ‘밝-’이 ‘동사 어간’인가보네. 1번 거짓” 이런 센스 어떠신가요? 수능 날 어떤 영역일지는 모르겠으나, 한 5번은 발휘하실 수 있도록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 두세요. [좋은 풀이 습관 : 다른 선택지의 맞는 부분을 활용하여 애매한 선택지를 풀어내는데 활용해보려고 하기]

2. ‘그 친구는 아는 게 참 많다.’에서 ‘아는’은 현재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하였으므로 동사이다.

- ‘게’는 의존 명사 ‘것’에 주격 조사나 보격 조사 ‘이’가 붙어서 준 말입니다. ‘게’를 보면서 ‘것이’로 쪼개서 원형파악 하셨다면 풀기 편하셨을 겁니다. ‘아는’이 의존명사 ‘것’ 앞에서 체언을 꾸며주고 있으므로 동사 ‘알다’는 현재시제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과 결합하여 관형어 역할을 하겠죠. [좋은 풀이 습관 : 쪼개서 원형파악] [좋은 풀이 습관 : 나무(단어)도 보고, 숲(맥락)도 보고]

+ ‘아는’은 동사 ‘알다’의 어간 ‘알-’에 현재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되면서, ㄹ불규칙 활용이 쓰였죠. ㄹ불규칙 활용은 ‘어간의 끝소리인 ‘ㄹ’이 ‘ㄴ’, ‘ㅂ’, ‘ㅅ’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어미 ‘-오’ 앞에서 예외 없이 탈락하며, 이 경우 표기에서도 ‘ㄹ’을 쓰지 않습니다. ‘길다’가 ‘기니’, ‘깁니다’, ‘기오’로 바뀌는 예가 있네요.

3. ‘*올해도 우리 모두 건강하자.’에서 ‘건강하자’의 기본형 ‘건강하다’는 청유형 어미 ‘-자’가 결합할 수 없으므로 형용사이다.

- ‘건강하다’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하다는 의미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고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에 청유형 어미 ‘-자’가 붙었으니 비문법적인 문장이네요.(나무) 다 맞는 진술. 참.

- ‘건강하자’라는 표현 때문에 이 문장이 비문법적인 문장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올해도, 우리, 모두’에서 틀릴만한 부분은 없어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건강하다’는 형용사에 청유형 어미 ‘~자’가 붙어서 비문법적인 문장이라는 거겠죠.(숲)

+ *는 비문법적인 문장임을 나타냄’ 반드시 읽으셨어야 합니다. *표시 보면 습관적으로 읽으려 가세요. 아는 단어여도 읽으려 가세요. 여기에 출제자의 의도 및 함정이 담겨서 문제를 맞고 틀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3번 문제를 풀면서, 1번 문제를 몰라서 △치고 넘어갔든, 실수로 ‘참’으로 선택했든지 간에 다시 돌아가서 ‘거짓’으로 풀었어야 합니다. 1번 문제 해설 + 참고해보세요. [좋은 풀이 습관 : 실수를 돌이키는 매커니즘, 뒷선지 풀면서 앞선지 풀이 중 실수한 부분 수정]

#119 비문학

[지문]

(가)

플라톤은 초월 세계인 이데아계와 감각 세계인 현상계를 구분했다. 영원불변의 이데아계는 현상계에 나타난 모든 사물의 근본이 되는 보편자, 즉 형상(form)이 존재하는 곳으로 이성으로만 인식될 수 있는 관념의 세계이다. 반면 현상계는 이데아계의 형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세계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물이 감각에 의해 지각된다. 플라톤에 따르면 ㉠ 현상계의 모든 사물은 형상을 본뜬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플라톤은 예술을 감각 가능한 현상의 모방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목수는 이성을 통해 침대의 형상을 인식하고 그것을 모방하여 침대를 만든다. 그리고 화가는 감각을 통해서 침대를 보고 그림을 그린다. 결국 침대 그림은 보편자에서 두 단계 떨어져 있는 열등한 것이며, 형상에 대한 참된 인식을 방해하는 허구의 허구에 불과하다. 이데아계의 형상을 모방하여 생겨난 것이 현상인데, 예술은 현상을 다시 모방한 것이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시가 회화와 다르다고 보았다. 고대 그리스에서 음유시인은 허구의 허구인 서사시나 비극을 창작하고, 이를 작품 속 등장인물의 성격에 어울리는 말투, 몸짓 같은 감각 가능한 현상으로 연기함으로써 다시 허구를 만들어 냈다. 이 과정에서 음유시인의 연기는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데, 이는 감각 가능한 외적 특성을 모방해 감각으로 파악될 수 없는 내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플라톤은 음유시인이 용기나 절제 같은 덕성을 갖춘 인간이 아닌 저급한 인간의 면모를 모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가령 화를 잘 내는 인물은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안색이 붉어지는 등 다양한 감각 가능한 현상들을 모방함으로써 쉽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용기나 절제력이 있는 인물에 수반되는 감각 가능한 현상은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라톤은 음유시인의 연기를 보는 관객들이 이성이 아닌 감정이나 욕구와 같은 비이성적인 것들에 지배되어 타락하게 된다고 보았다.

(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계가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다. 예컨대 사람은 나이가 들며 늙는데, 만약 이데아계의 변하지 않는 어린아이의 형상과 성인의 형상을 바탕으로 각각 현상계의 어린아이와 성인이 생겨났다면, 현상계에서 어린아이가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이 항상 사물의 생성과 변화의 바탕이 되는 질료에 내재한다고 보고, 이를 가능태와 현실태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 가능태란 형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의 힘이 자 질료를 의미하며, 현실태란 가능태에 형상이 실현된 어떤 상태이다. 가령 도토리는 떡갈나무가 되기 위한 가능태라면, 도토리가

떡갈나무가 된 상태가 현실태이다. 이처럼 생성·변화하는 모든 것은 목적을 향해 움직이므로 가능태에 있는 것은 형상이 완전히 실현된 상태인 '완전 현실태'를 향해 나아가는데, 이 이행 과정이 운동이다. 즉 운동의 원인은 외부가 아닌 가능태 자체에 내재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예술의 목적은 개개의 사물에 내재하고 있는 보편자, 즉 형상을 표현해 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는 시가 역사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역사는 개별적 사건들의 기록일 뿐이지만 시는 개별적 사건에 깃들여 있는 보편자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예술을 통해 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비극시는 파멸하는 주인공을 통해 인간의 근본적 한계를 다루기 때문에, 시를 창작하면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는 앎의 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비극시 속 이야기는 음유시인이 경험 세계의 개별자들 속에서 보편자를 인식해 내어, 그것을 다시 허구의 개별자로 표현한 결과물인 것이다. 또한 관객은 음유시인의 연기를 통해 앎의 쾌감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와 다른 종류의 쾌감도 경험할 수 있다. 관객은 고통을 받는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그에 대한 연민과 함께, 자신도 유사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낀다. 이러한 과정에서 감정이 고조됐다가 해소되면서 얻게 되는 쾌감, 즉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문제] 아래 <보기>를 읽고 1 ~ 3번 진위판단

<보기>

고대 그리스의 비극시 「 오이디푸스 왕 」의 주인공 오이디푸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에 의해 파멸당하는 인물이다. 비극시를 공연하는 음유시인은 목소리, 몸짓으로 작품 속 오이디푸스를 관객 앞에서 연기한다. 음유시인의 연기에 몰입한 관객은 덕성을 갖춘 주인공이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불행해지는 모습을 보고 연민과 공포를 느낀다.

1. '플라톤'은 음유시인은 오이디푸스의 덕성을 연기하는 데 주력하겠지만, 관객은 이를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과 욕구에 지배되어 타락하게 된다고 본다. (참 / 거짓)
2. '플라톤'은 음유시인의 목소리와 몸짓을 통해 오이디푸스의 성격이 드러난다면, 감각 가능한 외적 특성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감각되지 않는 내적 특성이 표현된 거라고 본다.(참 / 거짓)
3.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유시인이 현상 속 인간의 개별적 모습들에서 보편자를 인식해 내어, 이를 다시 오이디푸스라는 허구의 개별자로 표현한 거라고 본다. (참 / 거짓)

[문제] 4번 ~ 7번 진위판단

4. '플라톤'은 형상은 감각이 아닌 이성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참 / 거짓)
5. '플라톤'은 예술의 표현 대상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 안에 존재하는 형상이라고 보았다. (참 / 거짓)
6. '아리스토텔레스' 형상과 질료 사이의 관계는 현실태와 가능태 사이의 관계와 같다고 보았다. (참 / 거짓)
7.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이 질료에 실현되는 원인은 가능태 자체에 내재한다고 보았다. (참 / 거짓)

※ 2022년 고1 3월 21 ~ 25번 비문학 지문 참조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119 정답 및 해설

[지문]

(가)

플라톤은 초월 세계인 이데아계(A)와 감각 세계(B)인 현상계(B)를 구분했다. 영원불변(A)의 이데아계(A)는 현상계(B)에 나타난 모든 사물(B)의 근본(A)이 되는 보편자(A), 즉 형상(form)(A)이 존재하는 곳으로 이성(A)으로만 인식될 수 있는 관념(A)의 세계이다. 반면 현상계(B)는 이데아계의 형상(A)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세계로 끊임없이 변화(B)하는 사물이 감각(B)에 의해 지각된다. 플라톤에 따르면 현상계(B)의 모든 사물은 형상(A)을 본뜬 그림자(B)에 불과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플라톤은 예술(B')을 감각 가능한 현상(B)의 모방(B')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목수는 이성(A)을 통해 침대의 형상을 인식(A)하고 그것을 모방하여 침대를(B) 만든다. 그리고 화가는 감각(B)을 통해 이 침대를 보고 그림을 그린다(B'). 결국 침대 그림은 보편자(A)에서 두 단계 떨어져 있는 열등한 것(B')이며, 형상(A)에 대한 참된 인식을 방해하는 허구(B)의 허구(B')에 불과하다. 이데아계의 형상(A)을 모방하여 생겨난 것이 현상(B)인데, 예술은 현상을 다시 모방(B')한 것이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시가 회화와 다르다고 보았다. 고대 그리스에서 음유시인은 허구(B)의 허구(B')인 서사시나 비극(B')을 창작하고, 이를 작품 속 등장인물의 성격(~B)에 어울리는 말투, 몸짓 같은 감각 가능한 현상으로 연기함으로써 다시 허구를 만들어(B'') 냈다. 이 과정에서 음유시인의 연기(B'')는 인물의 성격(~B)을 드러내는데, 이는 감각 가능한 외적 특성(B)을 모방(B'')해 감각으로 파악될 수 없는 내적 특성(~B)을 드러내는 것(B'')이다.

플라톤은 음유시인이 용기나 절제 같은 덕성(~B)을 갖춘 인간이 아닌 저급한 인간의 면모(~B)를 모방(B'')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가령 화를 잘 내는 인물(~B)은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안색이 붉어지는 등 다양한 감각 가능한 현상들(B)을 모방함으로써 쉽게 표현(B'')할 수 있지만, 용기나 절제력이 있는 인물(~B)에 수반되는 감각 가능한 현상(B)은 표현(B'')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라톤은 음유시인의 연기(B'')를 보는 관객들이 이성(A)이 아닌 감정이나 욕구(~B)와 같은 비이성적인 것(~B인데 그렇다고 A는 또 아닌)들에 지배되어 타락하게 된다고 보았다.

[현장독해]

- 초월 세계 = 이데아계 = 영원불변 = 근본 = 보편자 = 형상 = 이성으로만 인식 = 관념 (A)

vs 감각 세계 = 현상계 = 끊임없이 변화 = 형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사물 = 감각에 의해 지각 = 형상을 본뜬 그림자(B)

[좋은 독해 습관 : 차이점을 중심으로 그룹지어 이해하기 비슷한 표현끼리 같은 그룹으로 묶기]

- 예술 = 감각 = 모방 = 현상계 = B

[좋은 독해 습관 : 뒷문단 내용에 앞문단 내용 쌓아나가기]

- 침대의 형상 = 이데아계(A) vs 모방하여 만든 침대(B)

- 그림 = B이긴한데.... A를 모방한 B를 보고 그린 거니까... B' 정도? = 보편자(A)에서 두 단계 떨어진 열등한 것

- 허구(B)의 허구(B')

- 이데아계 형상(A) vs 형상(A)을 모방한 현상(B) vs 현상(B)을 다시 모방(B')

- 회화(B'). 서사시나 비극 역시 허구의 허구이므로 B'과 공통점은 있는데,

- 감각 가능한 외적 특성(B)을 모방(B'')하여 인물의 성격은 감각으로 파악될 수 없는 내적 특성(~B)을 드러냈으므로 그냥 B'과 완전 똑같지는 않으니 B'', 즉 허구(B)의 허구(B') 속 성격(~B)의 표현(B'')이다.

[좋은 독해 습관 : 차이점을 중심으로 그룹지어 이해하기 비슷한 표현끼리 같은 그룹으로 묶기]

- B''중에서도 저급한 인간인 화를 잘 내는 인물은 쉽게 표현(B'') 가능하지만, 용기나 절제같은 덕성을 갖춘 인간은 표현하기 힘들어. 그러다보니 음유시인의 관객들은 이성(A)이 아닌 감정이나 욕구같은 비이성적인 것(~B인데 또 A는 아닌)를 더 많이 본다.

(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계(A)**가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다. 예컨대 사람은 나이가 들며 늙는데, 만약 **이데아계의 변하지 않는 어린아이의 형상과 성인의 형상(A)**을 바탕으로 각각 **현상계의 어린아이와 성인(B)**이 생겨났다면, 현상계에서 어린아이가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A)**이 항상 사물의 생성과 변화의 바탕이 되는 질료(C)에 내재한다고 보고, 이를 가능태(C)와 현실태(D)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 가능태(C)란 **형상(A)**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 힘이자 질료(C)를 의미하며, 현실태(D)란 가능태(C)에 **형상(A)**이 실현된 어떤 상태(D)이다. 가령 도토리(C)는 떡갈나무(D)가 되기 위한 가능태라면, 도토리(C)가 떡갈나무(D)가 된 상태가 현실태(D)이다. 이처럼 생성·변화하는 모든 것은 목적을 향해 움직이므로 가능태(C)에 있는 것은 형상이 완전히 실현된 상태인 '완전 현실태(D)'를 향해 나아가는데, 이 이행 과정이 운동이다. 즉 운동의 원인은 외부가 아닌 가능태(C) 자체에 내재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예술의 목적은 **개개의 사물에 내재하고 있는 보편자, 즉 형상(A)**을 표현해 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는 시가 역사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역사는 **개별적 사건(B)**들의 기록일 뿐이지만 시는 **개별적 사건(B)에 깃들어 있는 보편자(A)**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예술을 통해 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비극시는 파멸하는 주인공을 통해 인간의 근본적 한계를 다루기 때문에, 시를 창작하면 **인간 존재의 본질(A)**을 인식하는 앎의 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비극시 속 이야기는 음유시인이 **경험 세계의 개별자들(B)** 속에서 **보편자(A)**를 인식해 내어, 그것을 다시 허구의 개별자로 표현한 결과물인 것이다. 또한 관객은 음유시인의 연기를 통해 앎의 쾌감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와 다른 종류의 쾌감도 경험할 수 있다. 관객은 고통을 받는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그에 대한 연민과 함께, 자신도 유사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낀다. 이러한 과정에서 감정이 고조됐다가 해소되면서 얻게 되는 쾌감, 즉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현장독해]

- 아리스토텔레스는 A가 아예 없다고 봄. 플라톤은 A가 있다고 보고 이쪽을 더 지향하는 것 같은데, 아리스토텔레스랑 플라톤은 A그룹의 존재성 유무에 대해 차이가 있네.

- 사람은 나이가 들며 늙는다는 건 **끊임없이 변화하는 B쪽. 어린아이의 형상, 즉 A그룹이 있고 그게 영원불변하다면, 어린아이가 성인으로 바뀌는 건 변한다**는 거니까 A라고 보는 게 말이 안 되는 모순이라는 것.

[좋은 독해 습관 : 앞지문 내용에 뒷지문 내용 쌓아나가기]

- 가능태(C)는 형상(A)를 실현 = 가능성 힘 = 질료 vs 현실태(D)는 형상(A)가 실현된 어떤 상태
- 도토리 = 가능태(C) vs 떡갈나무 = 현실태(D)
- 그럼 앞에 어린아이 = 가능태(C) vs 어른 = 현실태(D)

[좋은 독해 습관 : 추가 정보 활용해서 앞내용 이해도 높이기]

- 가능태에 있는 것(C)은 D 중에서도 형상이 완전히 실현된 상태인 완전 현실태(D')로 나아가는 것.
- 이런 운동 가능하게 하는 힘은 가능태(C)안에 내재

- 보편자(A)를 표현해내는 것이 예술.
vs (가) 아까 예술은 보편자(A)를 모방한 현상(B)를 다시 모방해서 더 열등한 것(B')이라고 본 플라톤과는 차이가 있네.

[좋은 독해 습관 : 앞지문 내용과 뒷지문 내용 차이점 비교]

- 시가 역사보다 우월 = 시가 보편자를 표현한 것이므로.
vs (가) 플라톤은 시가 열등하다고 봤는데.

[좋은 독해 습관 : 앞지문 내용과 뒷지문 내용 차이점 비교]

- 시를 창작하면 인간 존재의 본질(A)를 인식하는 앎의 쾌감
- 경험 세계의 개별자들 속 보편자 인식 = 앞문단 개별적 사건에 깃들어 있는 보편자를 표현

[좋은 독해 습관 : 뒷문단 내용에 앞문단 내용 쌓아나가기]

- 관객은 연민, 공포, 감정의 고조 및 해소로 카타르시스.
- 창작자의 쾌감 vs 관객의 쾌감이 다르네. E랑 F 어우 토 나와

★★★ 비슷한 표현끼리 연결지어가며, 같은 그룹으로 묶어가며, 지문을 쌓아나가며 읽기 ★★★

이게 도대체 뭐가 싶죠. 의미는 비슷한데 표현이 다른 것들끼리 A, B, B', B'', C, D, C->D 등의 집단으로 묶어나가며 글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흔히들 동어반복이라고도 하구요. 지문을 읽어나가면서 지문 앞에 있었던 표현과 의미가 비슷한 표현을 같은 그룹으로 묶어나가면, 제 표현으로는 **지문을 쌓아나가면서 읽으면 지문 이해도가 높아지고 단기 기억력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연결해 나가면서 읽으니까 이해도 잘 되고, 기억도 잘 나는 거죠. 저 그렇게 머리 좋지 않습니다. 읽자마자 막 이해하고 읽은 거 싹 다 기억나고 그런 사람 아니라구요 저도. 그러나 **비슷한 표현을 묶어가며 읽는 좋은 독해 습관으로 기억이 잘 나게 만드는 거고 이해가 잘 되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해설의 표시는 이렇게 현장 독해하면서 묶으며 읽어간 걸 사후적으로 표시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도 첫페이지에 있는 지문에 한번 비슷한 표현들을 묶어서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아래 <보기>를 읽고 진위판단

<보기>

고대 그리스의 비극시 「 오이디푸스 왕 」의 주인공 오이디푸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에 의해 파멸당하는 인물이다. 비극시를 공연하는 음유시인은 목소리, 몸짓으로 작품 속 오이디푸스를 관객 앞에서 연기한다. 음유시인의 연기에 몰입한 관객은 덕성을 갖춘 주인공이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불행해지는 모습을 보고 연민과 공포를 느낀다.

1. '플라톤'은 음유시인은 오이디푸스의 덕성을 연기하는 데 주력하겠지만, 관객은 이를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과 욕구에 지배되어 타락하게 된다고 본다. **거짓**
2. '플라톤'은 음유시인의 목소리와 몸짓을 통해 오이디푸스의 성격이 드러난다면, 감각 가능한 외적 특성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감각되지 않는 내적 특성이 표현된 거라고 본다. **참**
3.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유시인이 **현상 속 인간의 개별적 모습들**에서 **보편자**를 인식해 내어, 이를 다시 오이디푸스라는 허구의 개별자로 표현한 거라고 본다. **참**
4. '플라톤'은 **형상은 감각이 아닌 이성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참**
5. '플라톤'은 예술의 표현 대상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 안에 존재하는 형상**이라고 보았다. **거짓**
6.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과 질료** 사이의 관계는 **현실태와 가능태** 사이의 관계와 같다고 보았다. **거짓**
7.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이 질료에 실현되는** 원인은 **가능태 자체에 내재**한다고 보았다. **참**

[정답 및 해설] 1.거짓, 2.참, 3.참, 4.참, 5.거짓, 6.거짓, 7. 참

[현장독해]

- (나) 마지막 문단 비극시
 - 목소리, 몸짓으로 연기하는 음유시인은 (가) 3문단 4문단
 - 덕성을 갖춘 오이디푸스(주인공)은 (가)에 따르면 잘 표현하기 힘들거고.
 -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불행해지는 모습을 보고 연민과 공포 = (나) 마지막 문단 관객 카타르시스.
1. (가) 마지막 4문단 보면, 덕성 연기는 표현하기 어렵다고 했으므로 주력할 수가 없지. 거짓.
+ 음유시인이 이를(오이디푸스의 덕성을) 표현할 수 없으므로 관객 역시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건 맞지.
++ 관객이 감정과 욕구에 지배되어 타락하는 것은 맞지만, 이견단지 좋은 것(덕성)을 못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좋은 것보다 나쁜 것(저급한 것)을 더 쉽게 접했기 때문이라고 표현해야 더 정확.
 2. (가) 3문단 마지막에, 감각 가능한 외적 특성을 모방해 감각으로 파악될 수 없는 내적 특성을 드러낸다고 했지. 덕성이 아니라 성격이라고 했으므로 앞에도 맞고. 참.
 3. 현상 속 인간의 개별적 모습들에서 보편자를 인식(선택지) = 경험 세계의 개별자들 속 보편자 인식(나 지문 3문단) = 개별적 사건에 깃들여 있는 보편자를 표현(나 지문 4문단). 참.
 4. 이성을 통해서'만'? 절대적 표현, 오만방자한 표현 불편하니까 예외 혹시 있나 (가) 1문단 보면 이데아계,형상 등 A그룹은 이성으로만 인식할 수 있다고 했네. 참
 5. 플라톤에 따르면 예술은 형상을 모방한 현상인 사물을 다시 모방한 것이므로, 예술의 표현 대상은 사물 안에 존재하는 현상을 모방한 사물. 거짓.
 6. 가능태가 운동해서 (완전) 현실태로 나아가는 건데, 질료가 운동해서 현상으로 가는거라기 보다는, (나)의 2문단에 형상이 항상 사물의 생성과 변화의 바탕이 되는 질료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니까, 결국 형상은 가능태라는 질료 안에 있는 것이지. 관계가 다르네. 거짓
 7. (나) 2문단 처음에 형상이 항상 사물의 생성과 변화의 바탕이 되는 질료에 내재해 있다고 했네. 질료는 가능태고. 참

#120 문학

[지문]

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一葉扁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랴

굽어보면 천심녹수(千尋綠水) 돌아보니 만첩청산(萬疊靑山)
십장(十丈) 홍진(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장안(長安)을 돌아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없으랴

-이현보, 「어부단가(漁父短歌)」-

*홍진: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북궐: 임금이 계신 경복궁의 다른 이름.

*제세현: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선비.

[문제] 진위판단

1. 서로 다른 성격을 띤 공간을 대비하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2.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3. 화자는 '만첩청산'을 돌아보며 무력감을 느낀다.
정답 : (참 / 거짓)
4. 화자는 '월백'한 풍경에서 인생무상을 깨닫는다.
정답 : (참 / 거짓)
5. 화자는 '제세현'을 떠올려 근심에서 벗어나려 한다.
정답 : (참 / 거짓)

※ 2014년 고1 6월 38 ~ 39번 문학 지문 참조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가는 국어

#120 정답 및 해설

[지문]

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一葉扁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라
 굽어보면 천심녹수(千尋綠水) 돌아보니 만첩청산(萬疊靑山)
 십장(十丈) 홍진(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장안(長安)을 돌아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없으랴

-이현보, 「어부단가(漁父短歌)」-

- *홍진: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북궐: 임금이 계신 경복궁의 다른 이름.
- *제세현: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선비.

[문제] 진위판단

1. 서로 다른 성격을 띤 공간을 대비하고 있다. : 참
2.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 거짓
3. 화자는 '만첩청산'을 돌아보며 무력감을 느낀다. : 거짓
4. 화자는 '월백'한 풍경에서 인생무상을 깨닫는다. : 거짓
5. 화자는 '제세현'을 떠올려 근심에서 벗어나려 한다. : 참

[현장독해]

- <보기>도 없네. 오로지 현장독해 실력으로 풀라는 것.
- 어부로 살고 있고, 시름 즉 근심 없다
- 배 하나를 물 위에 띄워 두고
- 인간 세상, 즉 속세를 다 잊었으니 날 가는 줄 알 수 있겠는가. 즉, 날이 가는 줄도 모르겠다.
- [좋은 독해 습관 : 설의적 표현은 평서형으로 바꾸어 의도 파악]**
- 깊은 물, 겹겹의 산에
- 번거롭게 속된 세상이 얼마나 가려졌는가. 엄청 가려졌겠지. 깊고 겹겹이 쌓인 산인데
- 강과 호수, 즉 자연에 달이 희게 떠 있으니 더욱 욕심이 없어진다.
- [좋은 독해 습관 : 현대어 풀이할 때 *어휘 풀이 반영해서 해석]**
- 장안을 돌아보니 임금이 계신 경복궁은 천리나 떨어져 있다
- 배 위에, 아까 1수에 일엽편주려나. 누워 있어도 잊은 적이 있겠는가. 즉 잊은 적이 없다.
- 내비 두자. 나의 시름이 아니라 세상을 구제할 선비가 없을까. 즉, 있을 것이다
- [좋은 독해 습관 : 설의적 표현은 평서형으로 바꾸어 의도 파악]**

★★★ 지문의 한자어 및 표현을 보며 위처럼 현대어 풀이가 막힘없이 나올 정도로 고전시가 공부하기.

[정답 및 해설] 1. 참, 2. 거짓, 3. 거짓, 4. 거짓, 5. 참

1. 자연과 속세라는 공간의 대비가 있죠. '만경파', '천심녹수', '만첩청산', '어주' 등이 자연 쪽이고, '인세', '십장홍진', '장안', '북궐'이 속세 쪽이겠죠. 참
2.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거짓
3. 화자는 '만첩청산'을 돌아보며 오히려 만족감을 느낍니다. 멀리 하려는 속세를 가려주니까요. 무력감은 허탈하고 맥 빠진 듯한 느낌입니다. 거짓
4. 화자는 '월백'한 풍경에서 인생무상을 깨닫는다. 인생무상은 인생이 덧없음인데, 그건 아니죠. 속세에 관심이 없는 무심한 경지고, 인생의 덧없음이 아니라서 거짓.
5. 화자는 자신의 근심을 대신 해결해 줄 제세현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근심에서 벗어나려 하죠. 참

#121 문법

[문제] 주어진 세 문장의 '문장의 짜임' 및 '문장 성분'을 본인의 모든 문법지식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디테일하게 분석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의 진위판단도 해보세요.

1. 그가 소리도 없이 밖으로 나갔다.

문장의 짜임

()

문장성분

()

문제

안긴문장은 용언을 수식하고 있다. (참 / 거짓)

2. 나는 그가 이 사건의 범인임을 깨달았다.

문장의 짜임

()

문장성분

()

문제

안긴문장에는 목적어가 있다. (참 / 거짓)

3.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산 수박은 매우 달았다.

문장의 짜임

()

문장성분

()

문제

안긴문장에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있다. (참 / 거짓)

안긴문장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참 / 거짓)

※ 2022년 고1 6월 14번 문법 지문 참조

※ 2023학년도 수능 언어와 매체 영역의 문법 출제경향을 생각해보는다면, 다음과 같은 디테일한 '쪼개서 원형파악'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제요소 관련 문법 용어들이 막힘없이 떠오를 정도로 암기하고, 문법 개념어를 활용한 쪼개서 원형파악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문학' '문학' '매체' 영역에서는 다를 수 있으나, '문법' 영역에서만은 사고력뿐 아니라 '암기력'과 '분해력'까지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정확하면서도 '막힘없이' 풀 수 있습니다. 문법 영역을 다 맞히는 건 당연한 것이나, 막힘없이 다 맞혀야만 고난도 비문학 영역에서 '사고력'을 발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121 정답 및 해설

[정답 및 해설] 1. 참, 2. 거짓, 3. 거짓, 3. 참

1. 그가 소리도 없이 밖으로 나갔다.

문장의 짜임

- 안은문장 : '그가 어떻게 밖으로 나갔다.'
- 안긴문장 : '소리도 없다.'라는 안긴문장에, 부사파생접미사 '-이'가 붙어 형용사 '없다'를 부사 '없이'로 파생시키고, '소리도 없이'라는 부사절이 안은문장의 부사어 역할을 하여, 안은문장의 서술어 '나갔다'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문장성분

- 그가 : '안은문장'의 주어 / - 소리도 : '안긴문장'의 주어 / - 없이 : '안긴문장'의 서술어, '안은문장'의 부사어
- 밖으로 : '안은문장'의 부사어 / - 나갔다 : '안은문장'의 서술어

문제 - 안긴문장은 용언을 수식하고 있다. : 안긴문장 '소리도 없이'가 안은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 용언 '나갔다'를 수식하는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

2. 나는 그가 이 사건의 범인임을 깨달았다.

문장의 짜임

- 안은문장 : '나는 무엇을 깨달았다.'
- 안긴문장 : '그가 이 사건의 범인이다'라는 안긴문장에, 명사형 전성어미 '-고'이 붙어, '그가 이 사건의 범인임'이라는 명사절이 목적격조사 '을'과 만나 안은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하여, 안은문장의 서술어 '깨달았다'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장성분

- 나는 : '안은문장'의 주어 / - 그가 : '안긴문장'의 주어
- 이 : '안긴문장'의 관형어('사건'이라는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며주고 있으므로 관형어)
- 사건의 : '안긴문장'의 관형어('범인'이라는 체언 앞에서 체언의 꾸며주고 있으므로 관형어 + 관형격조사 '의')
- 범인임을 : '안긴문장'의 서술어, '안은문장'의 목적어
- 깨달았다 : '안은문장'의 서술어

문제 - 안긴문장에는 목적어가 있다. : 안긴문장 '그가 이 사건의 범인이다'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거짓

3.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산 수박은 매우 달았다.

문장의 짜임

- 안은문장 : '어떤 수박은 매우 달았다'
- 안긴문장 :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수박을 샀다'라는 안긴문장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고'이 붙어,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수박을) 산'이라는 관형절이 안은문장의 관형어 역할을 하여, 안은문장의 주어이자 체언인 '수박' 앞에서 체언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 안긴문장의 목적어 '수박을'과 안긴문장의 수식을 받는 주어 '수박은'이 동일하므로 안긴문장의 '수박을'이 생략됐네요.

문장 성분

- 어머니께서 : '안긴문장'의 주어 / - 시장에서 : '안긴문장'의 부사어
- 산 : '안긴문장'의 서술어, '안은문장'의 관형어
- 수박은 : '안은문장'의 주어 / - 매우 : '안은문장'의 부사어 / - 달았다 : '안은문장'의 서술어

문제 - 안긴문장에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있다. : 안긴문장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수박을 샀다'의 문장성분을 분석해보면, '어머니께서' 주어, '시장에서' 부사어, '수박을' 목적어, '샀다' 서술어입니다. 안긴문장에 관형어는 없습니다. 거짓.

문제 - 안긴문장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 안긴문장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수박을 샀다'의 목적어 '수박을'이 안은문장의 주어이자 안은문장의 수식을 받는 체언 '수박(은)'과 동일하므로 생략되었습니다. 참.

#122 비문학

[지문]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자기 회사의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기업들은 소비자의 구매 행동이 소비자가 각 상품에 대해 취하는 태도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소비자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긴다. 소비자의 태도는 경제성, 내구성 등 개별 상품의 속성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소비자의 평가가 어떻게 태도를 형성하는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모델이 '속성 만족도-중요도 모델'이다.

만족도란 상품의 어떤 속성이 얼마나 만족스러운가에 대해서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도이다. 중요도는 소비자가 상품의 특정 속성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를 의미한다. 한 소비자가 동일 종류의 다른 제품을 동시에 평가할 때, 중요도는 제품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리고 개별 상품에 대한 어떤 소비자의 태도는 각 속성에 대한 만족도와 각 속성에 대한 중요도를 곱한 후, 이 곱한 값들을 합한 점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ext{태도 점수}[A] = (B_1 \times I_1) + (B_2 \times I_2) + \dots + (B_n \times I_n)$$

[B: 속성 만족도, I: 속성 중요도]

이 때 만족도는 만족하는 경우는 (+)로, 불만족하는 경우는 (-)로 표시하고, 그 정도는 숫자의 크기로 표현한다. 즉 ..., +2, +1, 0, -1, -2, ...와 같은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다. 중요도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그 속성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도

를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경우부터 매우 중요한 경우까지 0, +1, +2, +3, ...과 같은 숫자의 크기로 표현할 수 있다. 속성이 여러 가지일 경우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속성을 더 큰 값으로 표현하면 된다. 속성 만족도-중요도 모델에서는 소비자는 여러 상품들을 평가한 후 가장 높은 태도 점수가 나오는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본다.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소비자는 안전성과 경제성만을 고려한다고 가정하자. 소비자는 '갑' 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만족하여 +1점을 주고, 경제성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하여 +2점을 줄 수 있다. 반면에 '을' 자동차는 안전성은 매우 만족하여 +2점을 주고, 경제성에 대해서는 불만족하여 -1점을 줄 수 있다. 이 때, 이 소비자가 안전성을 경제성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안전성의 중요도는 +2로 주고, 경제성의 중요도는 +1로 줄 수 있다. 속성 만족도-중요도 모델에 의하면 '갑' 자동차의 태도 점수는 $4(1 \times 2 + 2 \times 1 = 4)$ 이고, '을' 자동차의 태도 점수는 $3(2 \times 2 + (-1) \times 1 = 3)$ 이 된다. 따라서 속성 만족도-중요도 모델에 의하면 소비자는 '갑' 자동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문제] 진위판단

1. 제품의 어떤 속성은 소비자의 태도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참 / 거짓)
2. 같은 종류의 다른 두 제품을 평가할 때 소비자는 속성의 중요도를 제품별로 달리 부여할 수 있다. (참 / 거짓)

#122 정답 및 해설

[지문]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자기 회사의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기업들은 소비자의 구매 행동이 소비자가 각 상품에 대해 취하는 태도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소비자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긴다. 소비자의 태도는 경제성, 내구성 등 개별 상품의 속성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소비자의 평가가 어떻게 태도를 형성하는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모델이 '속성 만족도-중요도 모델'이다.

만족도란 상품의 어떤 속성이 얼마나 만족스러운가에 대해서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도이다. 중요도는 소비자가 상품의 특정 속성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를 의미한다. 한 소비자가 동일 종류의 다른 제품을 동시에 평가할 때, 중요도는 제품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리고 개별 상품에 대한 어떤 소비자의 태도는 각 속성에 대한 만족도와 각 속성에 대한 중요도를 곱한 후, 이 곱한 값들을 합한 점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ext{태도 점수}[A] = (B_1 \times I_1) + (B_2 \times I_2) + \dots + (B_n \times I_n)$$

[B: 속성 만족도, I: 속성 중요도]

이 때 만족도는 만족하는 경우는 (+)로, 불만족하는 경우는 (-)로 표시하고, 그 정도는 숫자의 크기로 표현한다. 즉 ..., +2, +1, 0, -1, -2, ...와 같은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다. 중요도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그 속성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경우부터 매우 중요한 경우까지 0, +1, +2, +3, ...과 같은 숫자의 크기로 표현할 수 있다. 속성이 여러 가지일 경우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속성을 더 큰 값으로 표현하면 된다. 속성 만족도-중요도 모델에서는 소비자는 여러 상품들을 평가한 후 가장 높은 태도 점수가 나오는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본다.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소비자는 안전성과 경제성만을 고려한다고 가정하자. 소비자는 '갑' 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만족하여 +1점을 주고, 경제성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하여 +2점을 줄 수 있다. 반면에 '을' 자동차는 안전성은 매우 만족하여 +2점을 주고, 경제성에 대해서는 불만족하여 -1점을 줄 수 있다. 이 때, 이 소비자가 안전성을 경제성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안전성의 중요도는 +2로 주고, 경제성의 중요도는 +1로 줄 수 있다. 속성 만족도-중요도 모델에 의하면 '갑' 자동차의 태도 점수는 $4(1 \times 2 + 2 \times 1 = 4)$ 이고, '을' 자동차의 태도 점수는 $3(2 \times 2 + (-1) \times 1 = 3)$ 이 된다. 따라서 속성 만족도-중요도 모델에 의하면 소비자는 '갑' 자동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현장독해]

- 소비자의 '태도'가 중요하다.

- '만족도-중요도'가 키워드인 듯.

[좋은 독해 습관 : 키워드 잡기]

- 중요도는 제품별로 동일하게 적용..... **왜지?** 아 뭐 국어 모의고사는 평가원 기출과 유사해야 된다는 속성은 어떤 모의고사든 다 중요하게 볼테고, 내가 이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사도들이 모의고사가 얼마나 만족시켰는지를 평가하는거라서?

[좋은 독해 습관 : 막힘없이 술술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는 멈춰서 생각해보기]

[좋은 독해 습관 : 나만의 예시를 들어 지문 이해도 높이기]

- 아 그니까 속성이 n개 있을 때, 속성별 중요도에 만족도를 곱해서 다 더하는 게 소비자 태도다.

[좋은 독해 습관 : 수식·그림·도표의 의미 지문과 연결지어 파악]

- 중요도는 0에서 양수만 vs 만족도는 +- 다 가능하고.

[좋은 독해 습관 : 차이점 있는 대상들 구분]

- 태도가 높을수록 구매 가능성 크다. 비례 관계.

[좋은 독해 습관 : 비례·반비례 관계 주의]

- 안정성 경제성이 '속성'이네.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앞내용과 예시 연결]

- 갑은 안정성에 중요도 +2줬는데, 만족도 +1했으니까 1×2 , 경제성 중요도 +1, 만족도 +2니까 2×1 . 2개 더하면 4. 위에 수식이랑도 맞고 오케이. 을이 경제성 중요도 +1, 만족도 -1이니까 $(-1) \times 1$ 이구나.

- 갑은 4점, 을은 3점이니까 갑이 구매 가능성 더 큼

[정답 및 해설] 1. 참, 2. 거짓

1. 제품의 어떤 속성은 소비자의 태도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참.

- 중요도나 만족도에서 0점 주면 영향 안 미칠 수 있겠네요. 중요도에 0점 주면, 만족도가 +100만 점 곱해도 0이고, 중요도가 +100만 이어도, 만족도가 0 곱하면 0이니깐요. 출제자가 '만약 소비자가 속성별 중요도나 만족도에서 0점을 준다면, 해당 속성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는 0점이므로, 소비자의 태도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친절하게 표현해줄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어줘야 '국어'라고 불만 갖는 분들도 계신데요. 곱셈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기초 상식입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공부했다고 해서, 지금은 국어 공부 중이라고 해서 과거에 배운 수학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국어 시험 잘 보고 싶으시면 수학 잘하셔야 합니다. 저만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어의 기술'로 유명한 오르비 '이해황 선생님'께서도 수학과 논리학을 지문 독해에 활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고 말씀하세요. <https://orbi.kr/00062967994> '수학 잘하면 독해도 잘한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초 상식 : 수학 잘해야 국어도 잘한다]

2. 같은 종류의 다른 두 제품을 평가할 때 소비자는 속성의 중요도를 제품별로 달리 부여할 수 있다. 거짓.

- 2문단에 중요도는 제품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했으니깐요. 지문 읽다가 이해가 잘 안돼서 멈춘 후에, 저만의 예시를 들어서 이해도를 높이고 넘어간 내용이 그대로 문제로 나왔네요. 잭팟입니다. 출제자께서 더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 문제 출제하려고 일부러 '중요도는 제품별로 동일하게 적용해~'라고 한마디 특 던지고 그냥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불친절하게 한마디 특 던지고 넘어가는 표현은 상위권이든 하위권이든 한번에 이해가 안 됩니다. 상위권과 하위권의 진정한 차이는, '안다 모른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출제자가 작성하면 아무도 이해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모를 때 멈춰서 생각해보는 것이 상위권이고, 모르면서 이해도 못했으면서 아몰랑~ 넘어가~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하위권'입니다. 앞으로 모르는 것이 나오면 멈춰서 생각하는 좋은 습관을 들이세요.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읽다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일단 독해를 멈추고 그 의미와 이유에 대해 생각해본다]

#123 문학

[지문]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학 작품을 내용*과 형식*으로 구분해서 이해한다. 이 때문에 문학 작품에 대해 그것의 내용은 좋는데 형식이 나쁘다든가, 형식은 좋는데 내용이 나쁘다는 식의 말을 한다. 그것이 더 발전하면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가, 무엇을 쓰느냐가 중요한가 하는 문제로 탈바꿈한다.

문학은 말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한 쪽에서 어떻게 쓰느냐는 것이 문학의 생명이라고 말하면, 다른 쪽에서는 문학은 인간의 진실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형식보다 내용이 훨씬 중요하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내용은 형식과, 형식은 내용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문학 작품이란 '내용+형식'이 아니라 '내용형식'이다. 문학은 그럴듯한 내용에다가 그럴듯한 형식의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침전된 내용이라는 형식을 갖고 있을 따름이다. 예를 들면, 맛있는 밥은 좋은 쌀을 좋은 솥에 넣고 끓여야 얻어지는 게 아니고, 쌀에 알맞은 물을 붓고 알맞은 열기를 가하는 행위에 의해 얻어진다.

좋은 작품은 좋은 내용을 좋은 형식 속에 가둔 것이 아니라, 형식 자체가 내용이 되고, 내용이 형식이 되는 관계 속에 있다. 아주 흔한 말로, 우리는 그건 소설이 되겠는 걸, 그건 시가 되겠는 걸 하는 소리를 듣는다. 어떤 내용이 작가에게 인지되는 순간 내용으로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화된 형식으로 인지되는 것이다. 이 주장을 절충론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어떤 내용, 형식이든 그 자체로 좋고 나쁜 것은 없다. 구름의 변화나 인간의 죽음은 그것 자체로 어느 편이 더 문학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소설의 형식이 시의 형식보다, 시의 형식 중에서 자유시가 정형시보다 더 좋은 것은 아니다. 문제는 하나의 작품이 통일적으로 체계 있게 구성되어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 김현, 「문학이란 무엇인가」 -

* (문학의) 내용 : 작품에 구현된 정서, 사상, 사건, 주제 등

* (문학의) 형식 : 작품의 갈래, 운율, 서술 방식, 수사법 등의 표현 양식

[문제] 진위판단

1. 내용과 형식이 잘 절충된 작품이 좋은 문학 작품이다.

정답 : (참 / 거짓)

2. 글을 쓸 때는 무엇을 쓰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정답 : (참 / 거짓)

3. 작가는 어떤 내용을 접했을 때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까지 생각한다.

정답 : (참 / 거짓)

※ 2015년 고1 6월 44 ~ 45번 문학 지문 참조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123 정답 및 해설

[지문]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학 작품을 **내용***과 **형식***으로 구분해서 이해한다. 이 때문에 문학 작품에 대해 그것의 **내용**은 좋는데 **형식**이 나쁘다든가, **형식**은 좋는데 **내용**이 나쁘다는 식의 말을 한다. 그것이 더 발전하면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가, **무엇을 쓰느냐**가 중요한가 하는 문제로 탈바꿈한다.

문학은 **말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한 쪽에서 어떻게 쓰느냐는 것이 문학의 생명**이라고 말하면, 다른 쪽에서는 **문학은 인간의 진실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형식보다 내용이 훨씬 중요하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내용은 형식과, 형식은 내용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문학 작품이란 **'내용+형식'**이 아니라 **'내용형식'**이다. 문학은 그럴듯한 **내용에다가 그럴듯한 형식의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침전된 내용이라는 형식을 갖고 있을 따름이다.** 예를 들면, 맛있는 밥은 **좋은 쌀을 좋은 솥에 넣고 끓여야** 얻어지는 게 아니고, **쌀에 알맞은 물을 붓고 알맞은 열기를 가하는 행위**에 의해 얻어진다.

좋은 작품은 **좋은 내용을 좋은 형식 속에 가둔 것이 아니라, 형식 자체가 내용이 되고, 내용이 형식이 되는 관계** 속에 있다. 아주 흔한 말로, 우리는 **그건 소설이 되겠는 걸, 그건 시가 되겠는 걸** 하는 소리를 듣는다. 어떤 내용이 작가에게 인지되는 순간 **내용**으로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화된 형식**으로 인지되는 것이다. 이 주장을 절충론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어떤 내용, 형식이든 그 자체로 좋고 나쁜 것은 없다. 구름의 변화나 인간의 죽음은 그것 자체로 어느 편이 더 문학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소설의 형식이 시의 형식보다, 시의 형식 중에서 자유시가 정형시보다 더 좋은 것은 아니다. 문제는 **하나의 작품이 통일적으로 체계 있게 구성되어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 김현, 「문학이란 무엇인가」 -

[문제] 진위판단

1. 내용과 형식이 잘 절충된 작품이 좋은 문학 작품이다.
2. 글을 쓸 때는 무엇을 쓰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3. 작가는 어떤 내용을 접했을 때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까지 생각한다.

[현장독해]

[좋은 독해 습관 : 차이점을 중심으로 구분지어 이해하기]

[좋은 독해 습관 : 비슷한 표현끼리 같은 그룹으로 묶기]

- 정서·사상·사건·주제(A) vs 갈래·운율·서술방식·수사법 등 표현양식(B)
- 어떻게 쓰느냐 = 형식(B) vs 무엇을 쓰느냐 = 내용(A)
- 말을 다루는 것, 형식이 문학의 생명이다(B) vs 인간의 진실, 내용이 중요하다(A)

- 내용+형식 : 구분한 다음에 더한다(A+B)는 뜻 vs 내용형식 : 구분 자체를 안 한다는거네(AB)

[좋은 독해 습관 : 나만의 표현으로 출제자의 표현의도 촌철살인]

- 내용에 형식의 옷을 입힌다 = 내용+형식(A+B) vs 침전된 내용이라는 형식을 갖고 있는 = 내용형식(AB)
- 좋은 쌀 = 좋은 내용, 좋은 솥 = 좋은 형식 = 내용+형식(A+B) vs 쌀에 알맞은 물을 붓고 알맞은 열기를 가하는 = 내용형식(AB)
- 좋은 내용을 좋은 형식 속에 가둔 것 = 내용+형식(A+B) vs 형식 자체가 내용이 되고 내용이 형식이 되는 = 내용형식(AB)

[좋은 독해 습관 : 차이점을 중심으로 구분지어 이해하기]

- 내용화된 형식으로 인지되는 = 내용형식(AB)
- 절충론은 아니다
- 하나의 작품이 통일적으로 체계 있게 구성 = 내용형식(AB)

[정답 및 해설] 1. 거짓, 2. 거짓, 3. 참

1. 3문단에 절충론 아니랍니다. 이것만으로도 거짓으로 해설 끝인데요. 굳이 지문에 '절충론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표현이 이번처럼 내놓고 없더라도 이는 거짓진술입니다. 절충된 작품이 좋은 문학 작품이라는 진술 자체도 틀렸거든요. '절충(折衷)'은 서로 다른 사물이나 의견, 관점 따위를 알맞게 조절하여 서로 잘 어울리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의견에 대한 조절이 있고, 그러면서 두 의견의 입장 일부가 들어가야 절충입니다.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67 문학도** 참고해보세요.
2. 무엇을 쓰느냐 = 내용, 어떻게 쓰느냐 = 형식. 내용보다 형식이 더 중요하다? 4문단에 그 자체로 좋고 나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거짓. [좋은 풀이 습관 : 선택지-지문 동어반복]
3.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까지 생각 = 내용화된 형식으로 인지되는 것(3문단). 참. [좋은 풀이 습관 : 선택지-지문 동어반복]

#124 문법

[문제]

1. 남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도록 하는 의미를 지닌 사동문의 예로 '선생님께서 윤호에게 책을 읽히셨다.'가 있다
정답 : (참 / 거짓)
2. 용언에 사동 접미사가 두 개 붙는 경우의 예로 '어머니께서 아기를 재우고 계신다.'가 있다.
정답 : (참 / 거짓)
3. 용언에 '-게 하다'를 붙여 사동문을 만든 예로 '영희가 태호에게 사과를 깎게 했다.'가 있다.
정답 : (참 / 거짓)
4. 의미가 중의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사동문의 예로 '할머니께서 손자에게 색동옷을 스스로 입게 하셨다.'가 있다.
정답 : (참 / 거짓)

※ 2013년 고1 9월 11번 문법 지문 참조

#124 정답 및 해설

[정답 및 해설] 1. 참, 2. 참, 3. 참, 4. 거짓

1. 남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도록 하는 의미를 지닌 사동문의 예로 '선생님께서 윤호에게 책을 읽히셨다.'가 있다

- 남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도록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이 사동문이죠. 앞 진술 참.

- 맥락상 '윤호로 하여금 책을 읽도록 하는' 의미니까 사동문이죠.

[좋은 풀이 습관 : 앞의 표현을 뒤의 풀이에 활용]

- 읽히셨다'를 쪼개서 원형파악해보면, 동사 '읽다'의 어간 '읽-' + 사동접미사 '-히-' +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 +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 + 어말어미 '-다'네요. 여기서 '-히-'는 맥락상 윤호로 하여금 책을 읽도록 한 것이니 피동이 아니라 사동접미사로 보는 게 맞겠죠. 예시 문장도 사동문이 맞으니 참.

[좋은 풀이 습관 : 쪼개서 원형파악]

2. 용언에 사동 접미사가 두 개 붙는 경우의 예로 '어머니께서 아기를 재우고 계신다.'가 있다.

- 맥락상 '아기로 하여금 잠들도록 하는' 의미니까 사동문이네요.

- '재우고'를 쪼개서 원형파악해보면, 동사 '자다'의 어간 '자-'가 있겠네요. 그럼 나머지는 사동 접미사 '-이-' + 사동 접미사 '-우-' + 보조적 연결어미 '-고'일 것이고, 그러니까 용언 '자다'에 사동 접미사 2개 맞네요. 이중사동 가능. 참.

3. 용언에 '-게 하다'를 붙여 사동문을 만든 예로 '영희가 태호에게 사과를 깎게 했다.'가 있다.

- 맥락상 '태호로 하여금 사과를 깎도록 하는'거니까 사동문 맞네요.

- 쪼개서 원형파악 해보면, 동사 '깎다'의 어간 '깎-' + 보조적 연결어미 '~게' + 보조용언의 어간 '하-' +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았-' + 어말어미 '-다'네요. 장형사동 '-게 하다' 참.

4. 의미가 중의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사동문의 예로 '할머니께서 손자에게 색동옷을 스스로 입게 하셨다.'가 있다.

- 맥락상 '손자가 색동옷을 입도록 하는' 의미니까 사동문 맞네요.

- 이 경우는 '스스로'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할머니가 손자한테 명령해서 손자 혼자 색동옷을 입는 경우 한 가지로 해석됩니다. 중의적이지 않으므로 거짓.

+ '할머니께서 손자에게 색동옷을 입히셨다.'라고 하는 문장이 의미가 중의적으로 나타납니다. 할머니께서 직접 색동옷 가지고 오셔서 손자 품에 앉고 색동옷 입혀주시는 걸 수도 있고, 손자보고 스스로 입으라고 말만 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125 문학 2024 고3 6평 33번

<33번 보기>

(가)는 부재하는 임을 기다리며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고, (나)는 봄과 같은 세계에서, 대상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려는 바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가)는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화자의 시선이 두드러짐에 비해, (나)는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들의 모습이 두드러진다는 차이를 보여요. 이 차이가 주변 존재들을 대하는 태도나 바람을 실현하는 방식에 반영되기도 해요.

<34번 보기>

(나)는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시인의 탐구를 보여준다.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대상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다시 언어에 구속된다는 필연적 한계를 갖는다. 그래서 시인은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한다. 이를 통해 언어와 대상이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지문]

(가)

만년(萬年)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야

어둠에 창백한 꽃송이마다
깨물어 피터진 입을 맞추어

마지막 한방울 피마저 불어 넣고
해돋는 아침에 죽어가리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잃고라도
흰뱀가 되는 먼 훗날까지
그 뱀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날까지

거룩한 일월(日月)의 눈부신 모습
임의 손길 앞에 나는 울어라.

마음 가난하거니 입을 위해서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라

의로운 사람들이 피흘린 곳에
솟아 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뿐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이
구천(九天)에 사모침을 임은 듣는가.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모든 것 다 잊고라도
붉은 마음이 솟이 되는 날까지
그 솟이 되살아 다시 재 될 때까지

못 잊힐 모습을 어이 하리야
거룩한 이름 부르며 나는 울어라.

- 조지훈, 「맹세」-

(나)

저기 저 담벽, 저기 저 라일락, 저기 저 별, 그리고 저기 저 우리 집 개의 똥 하나, 그래 모두 이리 와 내 언어 속에 서라. 담벽은 내 언어의 담벽이 되고, 라일락은 내 언어의 꽃이 되고, 별은 반짝이고, 개똥은 내 언어의 뜰에서 굴러라. 내가 내 언어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너희들도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굴러라. 그래 봄이다.

봄은 자유다. 자 봐라, 꽃피고 싶은 놈 꽃피고, 잎 달고 싶은 놈 잎 달고, 반짝이고 싶은 놈은 반짝이고, 아지랑이고 싶은 놈은 아지랑이가 되었다. 봄이 자유가 아니라면 꽃피는 지옥이라고 하자. 그래 봄은 지옥이다. 이름이 지옥이라고 해서 필 꽃이 안 피고, 반짝일 게 안 반짝이던가. 내 말이 옳으면 자, 자유다 마음대로 뛰어라.

- 오규원, 「봄」-

[문제 33번]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화자가 바라는 세상은 '해돋는 아침'과 같이 '어둠'을 벗어나 밝음을 회복한 세상일 거야.
- ② (나)의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에서 대상들은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구를 거야.
- ③ (가)의 화자는 '꽃송이'를 '창백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나)의 화자는 대상들 각각의 모습에 주목하여 그 개별성을 드러내고 있어.
- ④ (가)의 화자는 '피마저 불어 넣'는 희생적 태도를 보이고, (나)의 화자는 대상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게 하여 '자유'를 함께 누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 ⑤ (가)의 화자는 '붉은 마음'을 바쳐 부재하는 '임'을 기다리고, (나)의 화자는 '담벽'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를 대상들과 공유하려 하고 있어.

※ 2024학년도 2023년 고3 6평 33번 문학 문제 참조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125 정답 및 해설

<33번 보기>

(가)는 부재하는 입을 기다리며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고, (나)는 봄과 같은 세계에서, 대상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려는 바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가)는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화자의 시선이 두드러짐에 비해, (나)는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들의 모습이 두드러진다는 차이를 보여요. 이 차이가 주변 존재들을 대하는 태도나 바람을 실현하는 방식에 반영되기도 해요.

<34번 보기>

(나)는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시인의 탐구를 보여준다.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대상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다시 언어에 구속된다는 필연적 한계를 갖는다. 그래서 시인은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한다. 이를 통해 언어와 대상이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지문]

(가)

만년(萬年)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야

어둠에 창백한 꽃송이마다
깨물어 피터진 입을 맞추어

마지막 한방울 피마저 불어 넣고
해돋는 아침에 죽어가리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잃고라도
흰뱀이 되는 먼 훗날까지
그 뱀이 부활하여 다시 죽을 날까지

거룩한 일월(日月)의 눈부신 모습
임의 손길 앞에 나는 울어라.

마음 가난하거니 입을 위해서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라

외로운 사람들이 피흘린 곳에
숫아 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뽀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이
구천(九天)에 사모침을 임은 듣는가.

[현장 독해]

- (가) 부재하는 입,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
- (나) 봄과 같은 세계, 대상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는 바람. 대상들 찾자.
- (가)는 화자의 시선에 집중.
- (나)는 대상의 모습에 집중. 태도나 바람이 실현되는 방식 찾자

[좋은 독해 습관 : <보기> 먼저 보면서 지문 독해 시 연결할 키워드랑 표현 방식 생각해두기]

- 언어는 파악 but 구속

[좋은 독해 습관 : 핵심 내용 나만의 표현으로 촌철살인]

- 언어와 대상이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아간다면... 결국 비둘기인데 평화의 상징 아니고, 작가가 표현의 의미 재정의 하겠다는 거네. 작년 수능처럼 편견이나 상식 비틀기 조심해야겠다.

[좋은 독해 습관 : 한번에 이해가 안되는 표현의 의미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기]

- 만년이나?
- 바위는 싸늘한데 가슴은 뜨거워서 어찌 못하겠다. 설의적 표현.

[좋은 독해 습관 : 설의적 표현은 평서형으로 바꿔 의도 파악]

- 꽃송이 위로해주는 건가

- 자기 피 밤에 다 주고 아침에 죽겠다. 희생 정신. 죽어가리야? 이게 제목처럼 맹세하는 표현인 듯.

[좋은 독해 습관 : 제목과 연결되는 표현 찾기]

- 죽고 부활하고 또 죽어. 어우 맹세를 엄청 굳세게 하네.

- 임의 부재 끝나고 거룩한 날에 눈부신 임이 오셔서 손길 주는 게 <보기> 더 나은 세상인가보네. 울겠다는 맹세가 감격의 눈물인 듯. [좋은 독해 습관 : <보기>-지문 연결하며 읽기]

- 가난해서 자랑할 것도 선물도 없어요.

- 2연 어둠에 창백한 꽃송이랑 비슷하네.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앞-지문 뒤 연결하며 읽기]

- 그래도 선물 피리 있네. 외로운 사람들이 피흘린 곳에서도 숫아 있는 대나무라니까, 익히 아는 절개? 순수함?이런 의미인듯

- 앞 연에 외로운 사람들이 피흘린 곳에서 자란 대나무로 만든 피리니까 흐느끼고 아픈 의미가 담겨있겠지.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앞-지문 뒤 연결하며 읽기]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모든 것 다 잊고라도
 붉은 마음이 솟아 되는 날까지
 그 솟아 되살아 다시 재 될 때까지

못 잊힐 모습을 어이 하리야
 거룩한 이름 부르며 나는 울어라.

- 조지훈, 「맹세」-

(나)

저기 저 담벽, 저기 저 라일락, 저기 저 별, 그리고 저기 저 우리 집 개의 똥 하나, 그래 모두 이리 와 내 언어 속에 서라. 담벽은 내 언어의 담벽이 되고, 라일락은 내 언어의 꽃이 되고, 별은 반짝이고, 개똥은 내 언어의 뜰에서 굴러라. 내가 내 언어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너희들도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굴러라. 그래 봄이다.

봄은 자유다. 자 봐라, 꽃피고 싶은 놈 꽃피고, 잎 달고 싶은 놈 잎 달고, 반짝이고 싶은 놈은 반짝이고, 아지랑이고 싶은 놈은 아지랑이가 되었다. 봄이 자유가 아니라면 꽃피는 지옥이라고 하자. 그래 봄은 지옥이다. 이름이 지옥이라고 해서 필 꽃이 안 피고, 반짝일 게 안 반짝이던가. 내 말이 옳으면 자, 자유다 마음대로 뛰어라.

- 오규원, 「봄」-

[문제 33번]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화자가 바라는 세상은 '해돋는 아침'과 같이 '어둠'을 벗어나 밝음을 회복한 세상일 거야.
- ② (나)의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에서 대상들은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구를 거야.
- ③ (가)의 화자는 '꽃송이'를 '창백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나)의 화자는 대상들 각각의 모습에 주목하여 그 개별성을 드러내고 있어.
- ④ (가)의 화자는 '피마저 불어 넣'는 희생적 태도를 보이고, (나)의 화자는 대상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게 하여 '자유'를 함께 누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 ⑤ (가)의 화자는 '붉은 마음'을 바쳐 부재하는 '임'을 기다리고, (나)의 화자는 '담벽'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를 대상들과 공유하려 하고 있어.

- 붉은 마음, 1연에 뜨거운 가슴 이거랑 비슷한 듯.
- 이거는 4연에 사랑하는 것 잃고, 뼈 되고 부활하고 다시 죽는 이거랑 비슷하네. 희생정신, 굳센 의지 반복 강조.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앞-지문 뒤 연결하며 읽기]

- 5연에 거룩한 일월의 눈부신 모습, 임의 손길 어떻게 하겠나 잊지 못하겠다. 거룩한 임 이름 부르면서 운다. '울어라' 이것도 맹세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앞-지문 뒤 연결하며 읽기]

- 담벼락 라일락 별 개똥이 <보기> 대상들 인가보네. '언어 속에 서라' <보기 34번> 언어 파악 but 구속 대놓고 표현했네.

[좋은 독해 습관 : <보기>-지문 연결하며 읽기]

- <33번 보기> <34번 보기> 합쳐서 언어의 자유를 누리하고자 하는 바람이었던 거네. [좋은 독해 습관 : <보기>-지문 연결]
- 지금이 <보기> 봄이고.

- 꽃피고 싶은 놈 담벽. 잎 달고 싶은 놈 라일락, 반짝이고 싶은 놈 별, 아지랑이가 되는 똥? 똥 내비두면 연기 올라오는? <보기>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들의 두드러진 모습이네.

[좋은 독해 습관 : <보기>-지문 연결하며 읽기]

- 봄이 꽃피는 지옥이래. 이게 <보기 34번> 관습에서 벗어난 표현이네. 이름이 지옥이라고 해서 필 꽃이 안 피겠냐. 이게 바로 <보기 34번> 언어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거네.

[좋은 독해 습관 : <보기>-지문 연결하며 읽기]

[정답 및 해설]

- ① 어둠에 힘든 꽃송이들 살리느라 고생하고, 아침에 죽고 부활해서 임 만나려고 하니까. 아침에 죽기는 해서 찻찻해도 틀리다고는 못하겠다. 참인 듯.
- ② 봄에, 언어도 자유로운 세계에서 자유롭게 사는 대상들. <보기>-[지문]-선택지 셋 다 연결되네. 완전 참.
- ③ (가) 2연에 대놓고 '창백한 꽃송이'라고 했고, (나)의 화자는 대상들 각각의 모습에 주목하는 건 <33번 보기>에 나왔고, 담벽 라일락 별 똥이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구르는 게 개별성. 참
- ④ (가) 3연에 자기 피 다 주고 죽어가겠다니까 완전 희생적 태도고. (나) 대상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 그게 함께 자유를 누리하고자 하는 태도는 <33번 보기>에 나와 있고
- ⑤ '담벽' 안에서? '담벽'도 '라일락' '별' '똥'이랑 같이 자유로운 '봄'을 즐기는 대상인데 굳이 따로 나눈다고? 그리고 <33번 보기>는 '봄과 같은 세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봄과 같은 세계에서 대상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고 싶다고 했는데. 이것도 애매하지 않나. ⑤번 애매한 게 2개나 되고, 나머지 ①②③④ 다시 봐도 맞아 보이니까 ⑤가 거짓. ⑤번 정답

#126 문법 2023 고3 6평 37번

<학습 활동> <보기>의 조건이 실현된 예문을 만들어 보자.

<보기>

- ㉠ 현재 시제만 쓰일 것.
- ㉡ 서술어의 자릿수가 둘일 것.
- ㉢ 안긴문장이 부사어로 기능할 것.

실현 조건	예문
㉠, ㉡	㉠
㉠, ㉢	㉡
㉡, ㉢	㉢

[문제] <학습 활동>의 ㉠~㉢에 들어갈 예문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 그 집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자란다.
- ② ㉠ :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학교 근처에 사시지요?
- ③ ㉡ : 산중에 있으므로 여기는 도시보다 조용합니다.
- ④ ㉡ : 오늘부터 아침으로 과일만 먹기로 마음먹었니?
- ⑤ ㉢ : 오래전 큰아버지께 받은 책에 곰팡이가 슬었어.

※ 2023년 고3 6월 37번 문법 문제 참조

#126 정답 및 해설

<학습 활동> <보기>의 조건이 실현된 예문을 만들어 보자.

<보기>

- ㉠ 현재 시제만 쓰일 것.
- ㉡ 서술어의 자릿수가 둘일 것.
- ㉢ 안긴문장이 부사어로 기능할 것.

실현 조건	예문
㉠, ㉡	㉠
㉠, ㉢	㉡
㉡, ㉢	㉢

[현장 독해]

- 언매는 함정 주의. 언매는 함정 주의

[좋은 독해 습관 : 언어와 매체 쉬운 개념이 나왔다면 함정 무조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주의]

- 아하~ 이게 함정이네. 보아하니, ㉠실현 조건이 ㉠, ㉡만 있다는 건 동시에 ㉢는 실현 조건이 안 되어야 된다는 거겠지. 하여간 어떻게든 낚을라고 해요. 평가원 언매는 함정 무조건이야. ㉠ ㉡는 있어야 하고, ㉢는 없어야 ㉠에 해당하는 거 주의하자.

[정답 및 해설] ②번

① ㉠ : 그 집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자란다.

- '자란다'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ㄴ-' ㉠맞네.
- '자란다'는 한 자리 서술어지. '그 집 마당에는'을 생략해도 어색하지 않으니까 ㉡가 아니네. 거짓

② ㉡ :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학교 근처에 사시지요?

- '사시지요' 쪼개서 원형파악 해보면, 살다 -> 사시다 -> 사시지요 -> 사시는지요.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는-' 있으니까 ㉡맞고.
- '선생님께서는 사시지요?' '학교 근처에'를 빼면 문장이 어색해지네. 이건 두 자리 서술어일 듯 ㉡
- ㉠㉡맞다고 찍으면 낚일 수 있지. ㉢가 없어야지. 홀문장이네. 주어 '선생님께서는' 부사어 '학교 근처에' 서술어 '사시지요' 주어-서술어 관계 한 번 나왔네. ㉢없고. ②번 참 정답.

③ ㉢ : 산중에 있으므로 여기는 도시보다 조용합니다.

- ㉠ '있으므로', '조용하다' 다 현재시제.
- ㉡ 생략된 주어 '여기는', '산중에'는 필수적 부사어인 듯? 빼면 '여기는 있으므로'인데 그럼 어색하잖아. 어디에 있다는 건데? '있으므로'는 두 자리 서술어, 주어 '여기는', 비교부사격조사 '보다' 부사어 '도시보다', 근데 '도시보다'를 빼도 '여기는 조용합니다.'로 말이 되니까, '조용합니다.'는 한 자리 서술어. 근데 어차피 '있으므로'가 두 자리 서술어니까 ㉡는 실현됐네. ㉠처럼 '만' 쓰이라는 건 아니잖아. 그럼 ㉢에 들어가는 게 틀리지.
- '여기는 산중에 있다.' '여기는 도시보다 조용합니다.' 두 문장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지. 까닭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미 '-므로'. 어차피 ㉢도 틀려서 ③은 정답은 아니네.

④ ㉣ : 오늘부터 아침으로 과일만 먹기로 마음먹었니?

- ㉠ '먹었니?'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 현재시제만 쓰라는 ㉠부터 틀렸지. 거짓.

⑤ ㉤ : 오래전 큰아버지께 받은 책에 곰팡이가 슬었어.

- ㉠ '받은' '-은'이 과거시제, 완료상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틀렸고
- ㉡ '슬었어' 서술어에 걸리는 주어 '곰팡이가', '곰팡이가 슬다'라고만 하면 어색하네. 어디에가 핵심인데. '책' 생략하면 이 문장 표현의도 망가져. 두 자리 서술어일 듯. + 슬다02 「2」 곰팡이나 곤충의 알 따위가 생기다. ¶식빵에 곰팡이가 {슬다}, 장마 때 비가 새어 벽에 곰팡이가 {슬었다}.
- 근데 '받은'이 대표적인 세 자리 서술어지. 주어 '나는' 필수적 부사어 '큰아버지께' 목적어 '책을' 3가지를 필요로 하니까 ㉡도 틀림.
- ㉢ '나는 오래전 큰아버지께 책을 받았다.'라는 안긴문장이 관형어 역할로 기능하네. ㉢도 틀렸고.

[지문]

(가)

심리 철학에서 동일론은 의식이 뇌의 물질적 상태와 동일하다고 본다. 이와 달리 기능주의는 의식은 기능이며,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 기능이란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출력을 내놓는 함수적 역할로 정의되며, 함수적 역할의 일치는 입력과 출력의 쌍이 일치함을 의미한다. 실리콘 칩으로 구성된 로봇이 짚림이라는 입력에 대해 고통을 출력으로 내놓는 기능을 가진다면, 로봇과 우리는 같은 의식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능주의는 의식을 구현하는 물질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설(Searle)은 기능주의를 반박하는 사고 실험을 제시한다. ‘중국어방’ 안에 중국어를 모르는 한 사람만 있다고 하자. 그는 중국어로 된 입력이 들어오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중국어로 된 출력을 내놓는다. 설에 의하면 방 안의 사람은 중국어 사용자와 함수적 역할이 같지만 중국어를 아는 것은 아니다. 기능이 같으면서 의식은 다른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동일론, 기능주의, 설은 모두 의식에 대한 논의를 의식을 구현하는 몸의 내부로만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식의 하나인 ‘인지’ 즉 ‘무언가를 알게 됨’은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과 맞물려 벌어진다. 기억나지 않는 정보를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열람하여 확인하는 것이 한 예이다. 로랜즈의 확장 인지 이론은 이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에 따르면 인지 과정은 주체에게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기억이나 믿음이 심적 상태의 예이다. 심적 상태는 어떤 것에도 의존함이 없이 주체에게 의미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기의 기억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아무것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와 달리 ‘파생적 상태’는 주체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또는 사회적 합의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상태로 정의된다. 앞의 예에서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는 전자적 신호가 나열된 상태로서 파생적 상태이다. 주체에 의해 열람된 후에도 노트북의 정보는 여전히 파생적 상태이다. 하지만 열람 후 주체에게는 기억이 생겨난다. 로랜즈에게 인지 과정은 파생적 상태가 심적 상태로 변환되는 과정이 아니라,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심적 상태가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인지 과정이 확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다시 말해 환경의 변화를 탐지하고 그에 맞춰 행위를 조절하는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 즉 로랜즈에게 주체 없는 인지란 있을 수 없다. 확장 인지 이론은 의식의 문제를 몸 안으로 한정하지 않고 바깥으로까지 넓혀 설명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나)

일반적으로 ‘지각’이란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 사물에 대해 아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각을 분석할 때 두 가지 사실에 직면한다. 첫째, 그 사물과 내 몸은 물질세계에 있다. 둘째, 그 사물에 대한 나의 의식은 물질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있다. 즉 몸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같은 세계에 속하는 동시에 의식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다른 세계에 속한다.

이에 대한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은 두 가지로 나뉜다. 의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하여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거나, 의식을 물질과 구분되는 독자적 실체로 규정함으로써 의식과 물질의 본질적 차이를 주장한다. 전자에 의하면 지각은 사물로부터의 감각 자극에 따른 주체의 물질적 반응으로 이해되며, 후자에 의하면 지각은 감각된 사물에 대한 주체 즉 의식의 판단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양자 모두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하고 지각을 이해한다. 주체와 대상은 지각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각각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손이 맞닿을 때 내가 누군가의 손을 만지는 동시에 나의 손 역시 누군가에 의해 만져진다.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것이 되는 얽힘의 순간에, 나는 나와 대상을 확연히 구분한다. 지각이라는 얽힘의 작용이 있어야 주체와 대상이 분리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체와 대상은 지각이 일어난 이후 비로소 확정된다. 따라서 지각과 감각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지각은 물질적 반응이나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 내 몸의 체험이다. 지각은 나의 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모두 나의 몸이다.

[문제] (나)의 필자의 관점에서 ㉠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확장된 인지 과정이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각 이전에 확정된 주체를 전제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 ② 확장된 인지 과정이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의식이 세계를 구성하는 독자적 실체라고 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
- ③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확장된 인지 과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므로 타당하다.
- ④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확장된 인지 과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 ⑤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확장된 인지 과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통해서만 지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므로 타당하다.

#127 정답 및 해설

[지문]

(가)

심리 철학에서 동일론은 의식이 뇌의 물질적 상태와 동일하다고 본다. 이와 달리 기능주의는 의식은 기능이며,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 기능이란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출력을 내놓는 함수적 역할로 정의되며, 함수적 역할의 일치는 입력과 출력의 쌍이 일치함을 의미한다. 실리콘 칩으로 구성된 로봇이 짚림이라는 입력에 대해 고통을 출력으로 내놓는 기능을 가진다면, 로봇과 우리는 같은 의식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능주의는 의식을 구현하는 물질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설(Searle)은 기능주의를 반박하는 사고 실험을 제시한다. ‘중국어방’ 안에 중국어를 모르는 한 사람만 있다고 하자. 그는 중국어로 된 입력이 들어오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중국어로 된 출력을 내놓는다. 설에 의하면 방 안의 사람은 중국어 사용자와 함수적 역할이 같지만 중국어를 아는 것은 아니다. 기능이 같으면서 의식은 다른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동일론, 기능주의, 설은 모두 의식에 대한 논의를 의식을 구현하는 몸의 내부로만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식의 하나인 ‘인지’ 즉 ‘무언가를 알게 됨’은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과 맞물려 벌어진다. 기억나지 않는 정보를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열람하여 확인하는 것이 한 예이다. 로랜즈의 확장 인지 이론은 이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에 따르면 인지 과정은 주체에게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기억이나 믿음이 심적 상태의 예이다. 심적 상태는 어떤 것에도 의존함이 없이 주체에게 의미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기의 기억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아무것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와 달리 ‘파생적 상태’는 주체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또는 사회적 합의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상태로 정의된다. 앞의 예에서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는 전자적 신호가 나열된 상태로서 파생적 상태이다. 주체에 의해 열람된 후에도 노트북의 정보는 여전히 파생적 상태이다. 하지만 열람 후 주체에게는 기억이 생겨난다. 로랜즈에게 인지 과정은 파생적 상태가 심적 상태로 변환되는 과정이 아니라,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심적 상태가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인지 과정이 확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①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다시 말해 환경의 변화를 탐지하고 그에 맞춰 행위를 조절하는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 즉 로랜즈에게 주체 없는 인지란 있을 수 없다. 확장 인지 이론은 의식의 문제를 몸 안으로 한정하지 않고 바깥으로까지 넓혀 설명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현장독해]

- 동일론 : 의식 = 뇌의 물질적 상태
vs 기능주의 : 의식 = 기능 + 다른 물질 같은 기능=동일론 반례
[좋은 독해 습관 : 차이점 구분]

- 기능 = 입력->출력
- 짚림=입력 -> 고통=출력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앞 내용과 뒤 사례 연결]
- 아~ 로봇이랑 사람이랑 다른 물질인데, 입력 출력이 같은 기능 이니까 같은 의식으로 보는 게 기능주의구나.
[좋은 독해 습관 : 핵심을 나만의 표현으로 촌철살인]

- 정해진 규칙 = 1문단 함수적 역할

- 설 : 기능 같은데 의식 다른 거 있네?
vs 기능주의 : 다른 물질인데 같은 기능
[좋은 독해 습관 : 차이점 구분]

- 애네 셋은 ‘내부’라는 공통점 [좋은 독해 습관 : 공통점 정리]
- 바깥도 중요해 [좋은 독해 습관 : 차이점 구분]
-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 = 몸 바깥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앞 내용과 뒤 사례 연결]

- 아 그러니까, ‘심적 상태’는 의존 아예 안하는 것, ‘파생적 상태’는 주체의 해석, 사회적 합의에만 의존하는 것.

[좋은 독해 습관 : 핵심을 나만의 표현으로 촌철살인]
- 조작 = 열람. 기억이 생겨나는 =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앞 내용과 뒤 사례 연결]

- 생겨나는 게 인지 과정이 확장되는 것 = 확장 인지 이론
[좋은 독해 습관 : 용어가 그렇게 이름지어진 원인 추론]

- 아 그러니까, 노트북에 파일을 저장해 놓 게 주체고, 기억이 안 나는 걸 아는 게 환경 변화 탐지고, 노트북 열람하는 게 행위 조절이고, 이 모든 행동을 하는 사람이 동일인이어야 확장 인지가 가능하다 이 말이네.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네.
[좋은 독해 습관 : 핵심을 나만의 표현으로 촌철살인]

(나)

일반적으로 '지각'이란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 사물에 대해 아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각을 분석할 때 두 가지 사실에 직면한다. 첫째, 그 사물과 내 몸은 물질세계에 있다. 둘째, 그 사물에 대한 나의 의식은 물질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있다. 즉 몸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같은 세계에 속하는 동시에 의식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다른 세계에 속한다.

이에 대한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은 두 가지로 나뉜다. 의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하여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거나, 의식을 물질과 구분되는 독자적 실체로 규정함으로써 의식과 물질의 본질적 차이를 주장한다. 전자에 의하면 지각은 사물로부터의 감각 자극에 따른 주체의 물질적 반응으로 이해되며, 후자에 의하면 지각은 감각된 사물에 대한 주체 즉 의식의 판단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양자 모두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하고 지각을 이해한다. 주체와 대상은 지각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각각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손이 맞닿을 때 내가 누군가의 손을 만지는 동시에 나의 손 역시 누군가에 의해 만져진다.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것이 되는 얽힘의 순간에, 나는 나와 대상을 확연히 구분한다. 지각이라는 얽힘의 작용이 있어야 주체와 대상이 분리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체와 대상은 지각이 일어난 이후 비로소 확정된다. 따라서 지각과 감각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지각은 물질적 반응이나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 내 몸의 체험이다. 지각은 나의 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모두 나의 몸이다.

[문제] (나)의 필자의 관점에서 ㉠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확장된 인지 과정이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각 이전에 확정된 주체를 전제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 ② 확장된 인지 과정이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의식이 세계를 구성하는 독자적 실체라고 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
- ③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확장된 인지 과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므로 타당하다.
- ④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확장된 인지 과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 ⑤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확장된 인지 과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통해서만 지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므로 타당하다.

- 몸은 사물과 같은 세계 vs 의식은 사물과 다른 세계
[좋은 독해 습관 : 차이점 구분]

- 의식 = 물질 vs 의식 ≠ 물질.
[좋은 독해 습관 : 차이점 구분]

- 아 그러니까, 물질이 자극해서 의식이 반응하는 거니까 의식이 나 물질이나 같다 vs 감각한 것을 의식이 한번 더 판단하는 거니까 의식아랑 물질은 다르다, 대상=물질 주체=의식인데 각각 존재한다.[좋은 독해 습관 : 핵심을 나만의 표현으로 촌철살인]

- 김춘수의 [꽃]이네. 서로 별 상관없다가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이거네.

[좋은 독해 습관 : 나만의 예시를 들어 지문 이해도 높이기]
- 지각이 있는 후에야 주체와 물질이 구분 혹은 분리된다.
- 지각이나 감각이나 같다

- 이게 약간 ㉠이랑 비슷한 말이네. '나의 몸'이 (가) '주체'아냐?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앞 내용과 뒤 내용 연결]

- 그니까... (나)의 필자는 '지각'을 해야 주체랑 물질이 분리된다는 거고. ㉠은 주체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거잖아.

[좋은 풀이 습관 : 주관식으로 풀기]
- 앞 진술은 ㉠ 내용이랑 똑같지. '주체의 것' 이게 동일인이지. 지각 이전에 확정된 주체를 전제한 거고. 근데 이러면, 지각 이후에야 주체랑 물질이 분리된다는 (나)는 싫어하겠네 = 타당하지 않다. 참. ①번 정답.

- 의식이 세계를 구성하는 독자적 실체라는 게 (나) 2문단 후자인데, (나)의 필자는 이거 3문단에서 아니라고 하잖아.

- 의식이 물질이 불과하다고 보는 게 (나) 2문단 전자인데, (나)의 필자는 3문단에서 아니라고 하잖아.

- 지각 후에 주체와 물질이 구분된다는데 지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지는 않겠지. 거짓.

- 지각 후에 분리가 이루어진다고잖아. 분리를 통해서 지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거짓.

#128 문학 2024 고3 6평 24번

<보기 24번>

권호문의 「한거십팔곡」은 지향하는 삶을 실천하는 태도의 변화 과정을 형상화한 연시조로, <제1수>부터 <제19수>까지의 내용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보기 25번>

(가)와 (나)에는 작가가 유학자로서의 신념을 바탕으로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나타난다. (가)에는 출사와 은거 사이의 고민과 그 해소 과정이, (나)에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곤란을 겪은 상황에 대한 성찰이 나타난다. 한편 (나)는 세속적 가치를 떨치지 못해 과오를 저질렀던 상황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가)와 차이를 보인다.

[지문] (가)

평생에 원하느니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나 다르리야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재 황황(十載惶惶)*하노라

<제1수>

비록 못 이뤄도 임천(林泉)이 좋으니라
무심 어조(魚鳥)는 절로 한가하였나니
조만간 세상일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제3수>

출(出)하면 치군택민* 처(處)하면 조월경운*
명철 군자는 이것을 즐기나니
하물며 부귀 위기라 가난하게 살리로다

<제8수>

날이 저물거늘 도무지 할 일 없어
소나무 문을 닫고 달 아래 누웠으니
세상에 티끌 마음이 일호말(一毫末)도없다

<제13수>

성현의 가신 길이 만고(萬古)에 한가지라
은(隱)커나 현(見)커나 도(道)가어찌다르리
한가지 길이오 다르지 않으니 아무 덴들 어떠리

<제17수>

강가에 누워서 강물 보는 뜻은
세월이 빠르니 백세(百歲)인들 길겠느뇨
십 년 전 진세(塵世) 일념이 얼음 녹듯 한다

<제19수>

- 권호문, 「한거십팔곡」-

- * 십재 황황 : 십 년을 허둥지둥함.
- * 치군택민 : 임금에게 충성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베풀.
- * 조월경운 : 달 아래 고기 낚고 구름 속에서 밭을 갈.

[문제 24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3수>의 ‘임천이 좋으니라’에는<제1수>의 ‘마음에 하고자 하여’에 담긴 태도와는 다른 태도가 나타난다.
- ② <제3수>의 ‘너를 좇으려’ 했던 태도는 <제8수>에서 ‘출’하는 모습으로 실현되어 나타난다.
- ③ <제8수>의 ‘이것을 즐기나니’에는 <제1수>의 ‘이 두 일’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다.
- ④ <제13수>의 ‘달 아래 누’운 모습에는 <제3수>에서 ‘절로 한가 하였’던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 ⑤ <제17수>에서 ‘아무덴들’ 상관없다고 하는 화자의 생각은 <제19수>에서 ‘일념’으로 바뀌어 나타난다.

#128 정답 및 해설

<보기 24번>

권호문의 「한거십팔곡」은 지향하는 삶을 실천하는 태도의 변화 과정을 형상화한 연시조로, <제1수>부터 <제19수>까지의 내용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보기 25번>

(가)와 (나)에는 작가가 유학자로서의 신념을 바탕으로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나타난다. (가)에는 출사와 은거 사이의 고민과 그 해소 과정이, (나)에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곤란을 겪은 상황에 대한 성찰이 나타난다. 한편 (나)는 세속적 가치를 떨치지 못해 과오를 저질렀던 상황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가)와 차이를 보인다.

[지문] (가)

평생에 원하느니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나 다르리야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재 황황(十載惶惶)*하노라

<제1수>

비록 못 이뤄도 임천(林泉)이 좋으니라
무심 어조(魚鳥)는 절로 한가하였나니
조만간 세상일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제3수>

출(出)하면 치군택민* 처(處)하면 조월경운*
명철 군자는 이것을 즐기나니
하물며 부귀 위기라 가난하게 살리로다

<제8수>

날이 저물거늘 도무지 할 일 없어
소나무 문을 닫고 달 아래 누웠으니
세상에 티끌 마음이 일호말(一毫末)도 없다

<제13수>

성현의 가신 길이 만고(萬古)에 한가지라
은(隱)커나 현(見)커나 도(道)가 어찌 다르리
한가지 길시오 다르지 않으니 아무 덴들 어떠리

<제17수>

강가에 누워서 강물 보는 뜻은
세월이 빠르니 백세(百歲)인들 길겠느냐
십 년 전 진세(塵世) 일념이 얼음 녹듯 한다

<제19수>

[현장독해]

- 태도 변화가 중요.

[좋은 독해 습관 : <보기> 먼저 보며 지문에서 집중할 내용 파악]

- (가) '출사'쪽이랑 '은거'쪽 구분지어서 그룹지어야겠네.

[좋은 독해 습관 : 차이점 중심으로 그룹짓기]

- (나) 경제적 문제 찾자. 세속적 가치, 과오를 (나)에서 찾고. (가)에는 이런 건 없다는 차이 확인.

[좋은 독해 습관 : <보기> 먼저 보며 지문에서 집중할 내용 파악]

- 첫 번째 지향하는 삶은 '충효'뿐. '충'은 <보기> 출사쪽.

[좋은 독해 습관 : <보기>-지문 연결해가며 읽기]

- 충효 안하면 짐승(금수)과 다르지 않다.

[좋은 독해 습관 : 설의적 표현 평서형으로 바꾸어 의도 파악]

- 충효 하고자 하다가 십 년을 허둥지둥했다..... 충효를 하다보니 다른 걸 못했다? 마음에만 두고 실천은 못해서 허둥지둥? 일단 완전히 긍정하는 태도는 아닐 수도?

[좋은 독해 습관 : 바로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의 의미 생각해보기]

- '자연친화' 두 번째 지향 어서오고.

- 물고기 새 욕심없고 한가하고

- 세상일 = 속세, <보기>출사

vs 너 = 어조, 임천 등 자연물, <보기> 은거. '좃으려' = 실천

[좋은 독해 습관 : <보기>-지문 연결해가며 읽기+차이점 구분]

- '출사'하면 임금 충성 백성 혜택. '은거'하면 달 아래 고기 낚고 구름 속에서 받을 같고. 워라밸 둘다 잘하자 이거네.

- 아 '부귀'는 위기고 가난하게 살겠다고 하니 달 아래 고기 낚고 구름 속에서 받가는 게 자연 휴식이라기보다는 검소한 삶' 한 삶이었나보네. 세 번째 지향 '부귀를 멀리하는 검소한 삶'

[좋은 독해 습관 : 뒷내용을 읽으며 앞에 잘못된 해석 바로잡기]

- 세상에 티끌 마음 = 속세를 지향하는 마음 없다. 욕심 안 부린다. 네 번째 지향 '욕심 없는, 집착 안하는 삶?'정도?

- '성현의 가신 길' 이거 보통 '학문'이었는데

- 은거하든 출사하든 도가 다르지 않다.

- 어느 길로 가든 학문의 길이니 상관없다.

[좋은 독해 습관 : 설의적 표현 평서형으로 바꾸어 의도 파악]

- <보기>은거, 자연쪽

- 백세도 길지가 않다.

- 진세일념. 이거 '진'이 '홍진'에서처럼 먼저, 티끌이라 이거 속세 쪽이라고 했지. 즉 속세에 대한 집착, 출사쪽 이제 사라졌다.

[정답 및 해설] ①번

① <제3수>의 '임천이 좋으니라'에는 <제1수>의 '마음에 하고자 하여'에 담긴 태도와는 다른 태도가 나타난다.

- <제1수>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건 '충효'고 <제3수> 임천이 좋으니라는 건 '자연친화'고 다르네.(다수론) 정답 ①번.

+ '충효'와 '자연친화'는 다릅니다. 둘 다 좋은 거라고 같다고 하면 안 됩니다.

+ 정답이 나왔으니 다른 선택지는 보지 않고 넘어가서 시간을 아끼시다.

[좋은 풀이 습관 : 정답의 확신성이 높은 선택지가 나오면, 다음 선택지는 보지 않고 넘어가서 시간을 아낀다]

★ "아니 근데, 여기서 말하는 '태도'가 충효나 자연친화 그 자체가 아니라, '충효에 대한 태도' '자연친화에 대한 태도' 물어본 거 아닌가? 그럼 좋다고 하는거나 하고자 하는거나 뭐 다 지향하는 거니까 '같은 태도'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지 않나?"(소수론)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태도'가 틀렸다고 하거나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때는 나머지 4개 선지가 틀렸다는 걸 잘 판단하셔서 소거법으로 다시 ①번을 선택하셔서 어떻게든 맞히셨기를 바랍니다.

[좋은 풀이 습관 : 실수를 돌이킬 수 있는 매커니즘, 애매하면 일단 넘어가서 다른 선택지들의 참거짓을 판단한 후 다시 돌아와서 판단해본다]

② <제3수>의 '너를 좇으려' 했던 태도는 <제8수>에서 '출'하는 모습으로 실현되어 나타난다.

- <제3수>의 '너'는 자연이고, <제8수>의 '출'은 <보기> 출가 즉 속세 쪽입니다. 완전 반대그룹이라서 거짓.

[좋은 풀이 습관 : <보기> 키워드-지문 표현-선택지 표현 3가지를 연결지어가면 생각해본다]

③ <제8수>의 '이것을 즐기나니'에는 <제1수>의 '이 두 일'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다.

- <제8수>의 '이것'은 임금께 충성하고 백성한테 혜택을 베풀면서도 달 아래 고기 낚고 구름 속에서 밭을 가는 등 출사해서 일도 잘하고 은거해서 자연 속에서 청렴하게 사는 것 둘 다를 의미하고, <제1수>의 '이 두 일'은 '충'과 '효'입니다. '충'은 겹치고, '청렴하게 사는 것'과 '효'는 다르네요. <제1수>에서는 충을 추구하고, <제8수>에서도 충을 추구하는데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하니 틀렸습니다.

- 또한 '치군택민 조월경운은 즐긴다고 해서', 충효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는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A가 좋다는 사실이 B가 싫다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처럼요.

④ <제13수>의 '달 아래 누운 모습'에는 <제3수>에서 '절로 한가하였던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 물론 <제13수>의 '달 아래 누운' 욕심 없는 삶의 모습이나, <제3수> 자연친화로 한가한 삶이 비슷한 면이 있기는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게 맞는지 따져봐야 할 듯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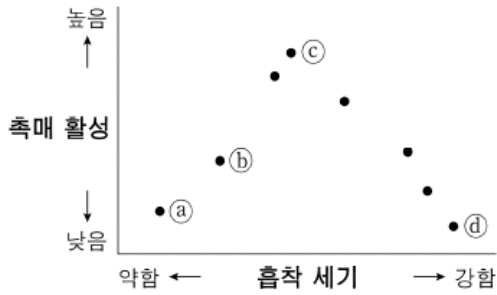
- '한가하였던 삶'을 살았던 건 물고기와 새였구요. 화자가 과거에 '한가하였던 삶'을 살았었다는 것도 확인이 힘들고, 그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힘들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태도를 확인하기도 힘듭니다. '조만간 세상일을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는 현재의 세상일에 대한 생각과, 미래의 지향은 드러내는데, 이게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은 건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틀리다 혹은 적어도 애매하다고 볼 수 있네요. 거짓

⑤ <제17수>에서 '아무덴들' 상관없다고 하는 화자의 생각은 <제19수>에서 '일념'으로 바뀌어 나타난다.

- <제17수> 아무덴들 상관없다는 표현은 '은거'하든 '출사'하든 상관없다는 것이고, <제19수> '일념'은 '진세일념' 즉 속세를 향한 마음, 다시 말해 '출사'쪽입니다. 그리고 <제19수>에서 '일념'이 '녹았다'고 했으니 '출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것이지, '출사'쪽으로 나타나는 것은 완전 반대로 설명했으므로 거짓.

[보기 11번]

다음은 여러 가지 금속에 물질 ㉠이 흡착될 때의 흡착 세기와 ㉠의 화학 반응에서 각 금속의 촉매 활성을 나타낸다. (단, 흡착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음.)



[지문]

분자들이 만나 화학 반응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 한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은,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아 반응이 빠르게 진행된다.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여 반응 속도에 변화를 주는 물질을 촉매라고 하며,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능력을 촉매 활성이라 한다. 촉매는 촉매가 없을 때와는 활성화 에너지가 다른, 새로운 반응 경로를 제공한다. 화학 산업에서는 주로 고체 촉매가 이용되는데, 액체나 기체인 생성물을 촉매로부터 분리하는 별도의 공정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고체 촉매는 대부분 활성 성분, 지지체, 증진제로 구성된다.

활성 성분은 그 표면에 반응물을 흡착시켜 촉매 활성을 제공하는 물질이다. 고체 촉매의 촉매 작용에서는 반응물이 먼저 활성 성분의 표면에 화학 흡착되고, 흡착된 반응물이 표면에서 반응하여 생성물로 변환된 후, 생성물이 표면에서 탈착되는 과정을 거쳐 반응이 완결된다. 금속은 다양한 물질들이 표면에 흡착될 수 있어 여러 반응에서 활성 성분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철을 활성 성분으로 사용하는데, 이때 반응물인 수소와 질소가 철의 표면에 흡착되어 각각 원자 상태로 분리된다. 흡착된 반응물은 전자를 금속 표면의 원자와 공유하여 안정화된다. 반응물의 흡착 세기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이때 흡착 세기가 적절해야 한다. 흡착이 약하면 흡착량이 적어 촉매 활성이 낮으며, 흡착이 너무 강하면 흡착된 반응물이 지나치게 안정화되어 표면에서의 반응이 느려지므로 촉매 활성이 낮다. 일반적으로 고체 촉매에서는 반응에 관여하는 표면의 활성 성분 원자가 많을수록 반응물의 흡착이 많아 촉매 활성이 높아진다.

금속은 열적 안정성이 낮아,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고온에서 금속 원자들로 이루어진 작은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어 큰 입자를 이루게 되는데 이를 소결이라 한다. 입자가 소결되면 금속 활성 성분의 전체 표면적은 줄어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지체이다. 작은 금속 입자들을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은 지지체의 표면에 분산하면 소결로 인한 촉매 활성 저하가 억제된다. 따라서 소량의 금속으로도 ㉠금속을 활성 성분으로 사용하는 고체 촉매의 활성을 높일 수 있다.

증진제는 촉매에 소량 포함되어 활성을 조절한다. 활성 성분의 표면 구조를 변화시켜 소결을 억제하기도 하고, 활성 성분의 전자 밀도를 변화시켜 흡착 세기를 조절하기도 한다. 고체 촉매는 활성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증진제나 지지체를 포함하지 않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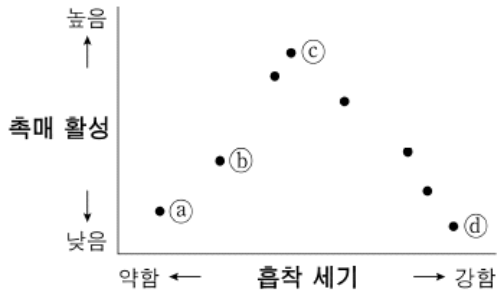
[문제 9번] ㉠의 촉매 활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응물을 흡착하는 금속 원자의 개수를 늘린다.
- ② 활성 성분의 소결을 촉진하는 증진제를 첨가한다.
- ③ 반응물의 반응 속도를 늦추는 지지체를 사용한다.
- ④ 반응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를 크게 하는 금속을 사용한다.
- ⑤ 활성 성분의 금속 입자들을 뭉치게 하여 큰 입자로 만든다.

#129 정답 및 해설

[보기 11번]

다음은 여러 가지 금속에 물질 ㉠이 흡착될 때의 흡착 세기와 ㉠의 화학 반응에서 각 금속의 촉매 활성을 나타낸다.
(단, 흡착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음.)



[지문]

분자들이 만나 화학 반응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 한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은,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아 반응이 빠르게 진행된다.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여 반응 속도에 변화를 주는 물질을 촉매라고 하며,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능력을 촉매 활성이라 한다. 촉매는 촉매가 없을 때와는 활성화 에너지가 다른, 새로운 반응 경로를 제공한다. 화학 산업에서는 주로 고체 촉매가 이용되는데, 액체나 기체인 생성물을 촉매로부터 분리하는 별도의 공정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고체 촉매는 대부분 활성 성분, 지지체, 증진제로 구성된다.

활성 성분은 그 표면에 반응물을 흡착시켜 촉매 활성을 제공하는 물질이다. 고체 촉매의 촉매 작용에서는 반응물이 먼저 활성 성분의 표면에 화학 흡착되고, 흡착된 반응물이 표면에서 반응하여 생성물로 변환된 후, 생성물이 표면에서 탈착되는 과정을 거쳐 반응이 완결된다. 금속은 다양한 물질들이 표면에 흡착될 수 있어 여러 반응에서 활성 성분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철을 활성 성분으로 사용하는데, 이때 반응물인 수소와 질소가 철의 표면에 흡착되어 각각 원자 상태로 분리된다. 흡착된 반응물은 전자를 금속 표면의 원자와 공유하여 안정화된다. 반응물의 흡착 세기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이때 흡착 세기가 적절해야 한다. 흡착이 약하면 흡착량이 적어 촉매 활성이 낮으며, 흡착이 너무 강하면 흡착된 반응물이 지나치게 안정화되어 표면에서의 반응이 느려지므로 촉매 활성이 낮다. 일반적으로 고체 촉매에서는 반응에 관여하는 표면의 활성 성분 원자가 많을수록 반응물의 흡착이 많아 촉매 활성이 높아진다.

[현장독해]

- <그림> 나왔네. 금속 종류 촉매 활성, 흡착 세기 비례-반비례 관계 이런 거 지문에서 나오면 그림이랑 같이 보자.
[좋은 독해 습관 : <그림> 키워드 지문에 나오면 연결지어 읽기]

-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은 반응이 빠르게 진행.
[좋은 독해 습관 : 비례·반비례 관계 정리]

- <그림> 촉매 활성 나왔네.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즉 활성화 에너지를 작게 만드는 것이 촉매 활성인 듯.

[좋은 독해 습관 : 지문-<그림> 연결해 읽기, 반비례 관계 주의]
- 생성물이 액체 기체니까, 촉매는 액체 기체가 아닌 고체여야 분리할 필요가 없겠지.

[좋은 독해 습관 :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멈춰서 생각]
- 활성 성분, 지지체, 증진체 앞으로 설명 하겠다는거네.

- 활성 성분은 '그 표면', 즉 활성 성분의 표면에 반응물을 흡착시켜 촉매 활성을 제공. [좋은 독해 습관 : 앞뒤 표현 연결, 지시 관형사 '그' 등 사소한 동어반복도 습관적으로 하기]
- 반응물이 활성 성분의 표면에 붙어서 생성물이 되고 생성물이 활성 성분의 표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반응.

[좋은 독해 습관 : 과정이 길면 한번 쪽 읽고 정리]
- <그림>이랑 지문 반대네. 지문은 금속 하나에 다양한 물질, <그림>은 물질이 [가] 하나고 금속이 여러 개네.

[좋은 독해 습관 : 반대적 사고 요구하는 출제요소 파악]
- '철'이 고체 촉매, '수소와 질소'가 반응물, '수소와 질소가 원자 상태로 분리'된 게 생성물.

[좋은 독해 습관 : 앞내용과 뒷예시 표현 연결해 읽기]
- 흡착 세기 이거 <그림> [좋은 독해 습관 : 지문-<그림>연결]

- 흡착이 약하면->흡착량이 적어->촉매 활성이 낮다.
vs 흡착이 강하면->흡착량이 많아->반응물이 지나치게 안정화->표면에서의 반응이 느려짐->촉매 활성이 낮다.

[좋은 독해 습관 : 비례·반비례 관계 정리]
- 활성 성분 원자, 이게 앞에 수소와 질소의 원자랑 금속 철 표면의 원자가 많을수록->흡착이 많아-> 촉매 활성 높아

금속은 열적 안정성이 낮아,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고온에서 금속 원자들로 이루어진 작은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어 큰 입자를 이루게 되는데 이를 소결이라 한다. 입자가 소결되면 금속 활성 성분의 전체 표면적은 줄어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지체이다. 작은 금속 입자들을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은 지지체의 표면에 분산하면 소결로 인한 촉매 활성 저하가 억제된다. 따라서 소량의 금속으로도 ①금속을 활성 성분으로 사용하는 고체 촉매의 활성을 높일 수 있다.

증진제는 촉매에 소량 포함되어 활성을 조절한다. 활성 성분의 표면 구조를 변화시켜 소결을 억제하기도 하고, 활성 성분의 전자 밀도를 변화시켜 흡착 세기를 조절하기도 한다. 고체 촉매는 활성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증진제나 지지체를 포함하지 않기도 한다.

[문제 9번] ①의 촉매 활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응물을 흡착하는 금속 원자의 개수를 늘린다.
- ② 활성 성분의 소결을 촉진하는 증진제를 첨가한다.
- ③ 반응물의 반응 속도를 늦추는 지지체를 사용한다.
- ④ 반응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를 크게 하는 금속을 사용한다.
- ⑤ 활성 성분의 금속 입자들을 뭉치게 하여 큰 입자로 만든다.

- 열적 안정성이 낮아->작은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어 큰 입자
- 작은 입자들 여럿이면 표면적이 넓었는데 큰 입자 몇 몇개로 줄었으니까 전체 표면적은 줄어든다는거네.

[좋은 독해 습관 :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멈춰서 생각]

- 지지체 = 표면적 넓고, 열적 안정성 높은 애
- vs 금속 = 열적 안정성 낮은 애, 고온에서 전체 표면적 줄어드는
- [좋은 독해 습관 : 차이점 중심으로 구분해 읽기]
- 작은 금속 입자들 고온에서 서로 달라붙기 전에 지지체에 분산 ->소결 저하->촉매 활성 저하 억제
- vs그러니까 소결 즉, 작은 입자들이 달라붙어 큰 입자를 이루면 ->촉매 활성 저하된다는 [좋은 독해 습관 : 차이점·관계 정리]
- ①은 그니까 지지체 써서 소결이 적게 일어나도록 해야 금속이 소량이어도 활성 저하를 방지해서 활성을 높인다는 거네

[좋은 독해 습관 : 밑줄의 의미 스스로 생각해보기]

- 증진제 역시 소결 억제기인데, 애는 방식이 활성 성분을 바꾸는거네. vs 지지체는 활성 성분 보조하는건데
- [좋은 독해 습관 : 차이점 중심으로 구분해 읽기]
- 밀도는 질량/부피인데, 구조를 변화시켜서 활성 성분의 전자 부피를 바꾼다는 건가?

[좋은 독해 습관 :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면 멈춰서 생각]

- 활성 성분은 필수 vs 증진제나 지지체는 선택 확인
- [좋은 독해 습관 : 차이점 중심으로 구분해 읽기]

[정답 및 해설] ①번

- ①금속 = 철 = 고체. 지문 예시랑 똑같은 상황에서 비례반비례 관계 따져보라는 것 [좋은 풀이 습관 : 출제 의도 파악]
- 소결 줄이고, 흡착 적당히, 활성화 에너지 작게 뭐 이러면 촉매 활성 높아졌지 [좋은 풀이 습관 : 주관식으로 정답 생각]
- ① 2문단 마지막에 금속 철 표면의 원자가 많으면 흡착 많아져서 촉매 활성 높아진다고 했잖아. 이 방법도 되겠네. 정답 ①번.
- ② 소결 촉진하면 활성 저하되지. 증진제는 소결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저하시키는거고. 거짓
- ③ 2문단에 반응 속도 느려지면 촉매 활성 낮아진다고. 거짓.
- ④ 1문단에 활성화 에너지 작은 게 반응이 빠르게 진행되어 촉매 활성이 높아진다고. 활성화 에너지 커진다는 건 그 반대니까 촉매 활성을 높이는 방법은 아니지. 거짓.
- ⑤ 3문단 뭉치게 해서 큰 입자로 만드는 게 소결이잖아. 소결되면 촉매 활성 저하라니까. 반대야. 거짓.

#0 나가기 전에 : 제작 방향성

문제나 풀자

저는 독해법·풀이법·학습법·멘토링 등을 칼럼 형식으로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에 지쳐 버렸습니다. 좋은 독해 습관, 좋은 풀이 습관들을 그저 소개만 해서는, 아무리 쉽고 재밌게 얘기하더라도 한계가 있더군요. 제가 여전히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자신의 안 좋은 습관은 고치고, 좋은 방법들은 최대한 많이 자기 습관으로 만드는 그 실질적 행동 방법. 그 실천 지향적인 **실질적 액션 플랜**을 제시하는데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수많은 국어 고수들의 그렇게 잘나고 멋들어진 풀이를, 결국 학생 스스로가 시험 순간에 해낼 수 있게 만드는, 그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이 자료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전, 좋은 방법들을 그저 소개만 하고 있을 시간에, **학생들이 한 문제라도 더 풀게 하고자** 했습니다. 지나가다 우연히 한 문제를 푸는 학생조차도, '좋은 자극, 좋은 긴장감'을 얻을 수 있도록 문제를 엄선하고 해설을 쓰고 있습니다. 최고난도·최다오답 문제뿐만 아니라, 공부 잘한다는 학생들도 가끔씩 실수하는 문제, 누구나 한번쯤은 틀려가며 배우는 문제, **좋은 습관대로 푼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문제** 등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풀어봤는데 틀려서, 독이 바짝 오른 상태에서 해설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좋은 독해법·풀이법·학습법·멘토링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학생들에게도, 제게도, 시간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더 나오리라 믿습니다.

도전하여 내 것으로 만들자

이 자료의 문제들은, 국어 기초 개념, 즉 '고전 어휘 및 고전 독해법'과 '문법 개념' 등을 1회독 한 학생. 윤혜정 선생님의 [개념의 나비효과], 이해항 선생님의 [국어의 기술]과 같은 기초 개념서를 1회독 이상 한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도전 가능한 것들**입니다. 저는 수업 설명회에서도 학생·학부모님들과 이 문제들을 함께 푹니다. 수업 커리큘럼·계획서·분석 자료를 그럴듯하게 발표하는 것만큼이나, 눈앞에서 지문을 읽고 문제 푸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더 큰 공감을 얻더군요. 중학생·고1·고2·고3·N수·학부모 등의 틀에 스스로를 가두어, 이 자료는 내가 풀 게 아니라고 편견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다 맞힐 수 있는 실력을 갖추자는 마인드로, 해당 자료의 문제들을 다 맞히고 막힘없이 설명해내는 것에 도전해** 보세요.

스스로 설명해보자

활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문제 풀고 해설 읽는 거죠. 다만, 남들보다 질적으로 높게 이 자료를 활용하여 경쟁에서 이기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설명해보는데 집중하세요. 스스로에게 정답과 근거를 설명해본 후 해설과 비교해보세요. 하루하루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안 좋은 습관은 안하게 되고, 좋은 습관은 해내게 될 겁니다.

굳이 이 자료를 복습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을 갖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보다는, 여기서 알게 된 좋은 습관들과 방법들을 평소 국어 문제 풀 때 적용해보려고 하세요. 또는 몇 달 혹은 1년 후에, 똑같은 문제를 스스로에게 다시 설명해보면서 자신이 성장했는지를 점검해보셔도 좋습니다.

물론, 해설에서 공감 가는 부분, 스스로 잘 안됐던 부분은 시간차를 두고 몇 번이고 다시 복습하면 더욱 좋기야 하겠지요. 반복의 지루함을 인내하고 복습하는 자가 결국 인생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에 어색했던 것을, 마치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만양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지루하다고 복습 잘 못하거든요. 복습만 잘 해도 대한민국 90%는 이길 수 있습니다.

색다르게 해보자

일반적인 국어 문제들을 풀다 지쳐 토할 것 같을 때, 공부하기는 너무 싫는데 그래도 뭔가는 해야 마음이 편할 때, 그럴 때마다 가끔씩 들춰보고 또 몇 문제 풀어 보세요. 문제도 유형도 영역도 형식도 평소 풀던 것들과는 좀 다르겠지만, 인생에 걸쳐서 도움이 될 좋은 독해 습관과 좋은 풀이 습관을 얻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 벌을 받더라